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제45차 학술대회

자본의 서사와 화폐 상상

▌주 최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UNIST 사이언스월든 공동주최

▌일 시 2021년 11월 5일 (금) 13:00 ~ 18:30

▌방 식 온라인화상회의 ZOOM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한국문학연구소

SCIENCE Walden

—초청의 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와 UNIST 사이언스월든 인문사회팀은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1시부터 〈자본의 서사와 화폐 상상〉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은 '돈과 인문학' 세미나팀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자본 및 화폐가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문제화되는 양상에 대해 총 5편의 발표와 토론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황과 재개발, 토목사업과 같은 경제적 사건들이 서사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현재의 시공간 위에서 화폐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안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본과 그 표현으로서의 화폐가 서사적으로 재현되고 실천적으로 상상되는 양상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 UNIST 사이언스월든 공동학술대회

자본의 서사와 화폐 상상

개회사 13:00~13:10 — 한국문학연구소 소장 정환국

〈 1부 : 자본의 서사 〉

사회 : 오영진

발표1 13:10~13:55
세계대공황과 박태원의 게임적 모더니즘
발표 : 안용희 (가톨릭대학교) | 토론 : 한영인 (창비 편집위원)

발표2 13:55~14:40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에 나타난 불균등 발전의 도시공간과 이동성의 주체
발표 : 유인혁 (서울시립대학교) | 토론 : 오자은 (덕성여자대학교)

발표3 14:40~15:25
댐 건설과 개발 난민의 서사: 공선옥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발표 : 조윤정 (KAIST) | 토론 : 김은하 (경희대학교)

15:25~16:00 자유토론

16:00~16:20 휴식

〈 2부 : 화폐 상상 〉

사회 : 권두현

발표5 16:20~17:05
'돈 놀이'와 '돈이 일하게 하라' 사이 : 자기계발 주체와 투자자의 접속
발표 : 권창규 (포항공과대학교) | 토론 : 김수현 (서울대학교)

발표6 17:05~17:50
똥을 품은 돈- '똥본위화폐'와 '꿀숍'의 실험
발표 : 유병선 (UNIST) | 토론 : 송종운 (UNIST 사이언스월든)

17:50~18:20 자유토론

폐회사 18:20~18:30 — 사이언스월든 인문사회팀장 한만수

목 차

❑ **세계대공황과 박태원의 게임적 모더니즘** | 안용희 ■ 7

토론문 ■ 23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불균등발전의 도시공간과 이동성의 주체**
:『오만과 몽상』을 중심으로 | 유인혁 ■ 27

토론문 ■ 51

❑ **댐 건설과 개발 난민의 서사**: 공선옥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 조윤정 ■ 53

토론문 ■ 75

❑ **대중 투자 텍스트의 담론 구조**: '경제적 자유'와 화폐 증식의 상상 | 권창규 ■ 79

토론문 ■ 100

❑ **똥을 품은 돈**: '똥본위화폐'와 '꿀숍'의 실험 | 유병선 ■ 103

토론문 ■ 118

세계대공황과 박태원의 게임적 모더니즘

안 용 희
가톨릭대학교

1. **구인회의 모더니즘을 다시 읽기**
2. **자본과 문화, 모더니즘의 외부**
3. **구인회 유니버스의 캐릭터 '이상/구보'**
4. **서브컬처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1. 구인회의 모더니즘을 다시 읽기

구인회의 모더니즘은 근대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1990년대 문학 연구의 장을 관통하며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였다. 이 과정에서 단체로서의 구인회보다는 이를 대표하는 이상, 박태원, 김기림, 정지용 등의 문학적 성과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이 사실이다. 구인회가 1933년 결성된 이래 뚜렷한 활동 없이 1936년 『시와 소설』 창간호만을 내놓은 채 사라졌다는 점에서[1]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직으로서의 구인회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논의는 그간 구인회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모더니즘이 다소 강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2] 이 연구에서 1920년대 문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구인회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졌지만, 이는 식민지 조선의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리얼리즘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증명

1) "구인회는 인간 최대의 태만에서 부침중이오. 팔양이 탈회했소-. 잡지 2호는 흐지부지요. 게을러서 다 틀려먹을 것 같소." 이상, 「편지<2>」, 『이상 전집 4』, 뿔, 2009, 168면. 이상의 이러한 호소는 편지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으며, 동경으로 건너간 이후 이는 삼사문학에 대한 것으로 이어진다.

2) "구인회가 한국의 근대문학을 현대문학으로 이끌었다거나 1930년대 모더니즘문학을 주도했다는 문학사적 판단도 구인회 회원이었던 몇몇 시인과 작가들만을 연구한 결과이며 구인회라는 단체를 상세하게 규명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것이다." 현순영, 『구인회의 안과 밖』, 소명출판, 2017, 21면.

하기도 한다. 카프를 탈퇴하여 구인회 창립에 앞장섰던 김유영이 애초 순수문학을 지향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에 한계를 느끼며 탈-카프를 지향했다는 식의 논의가 그러하다. 유치진, 이무영, 이효석, 조용만 등 구인회의 초기 구성원들이 모더니즘과 거리가 있지만[3], 나중에 가입한 박태원, 이상, 김유정 등이 기획했던 새로운 문학이 구인회의 정점을 이루었음은 명확하다. 오히려 구인회가 인원에 따라 명칭을 정한다든지 하는 느슨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카프의 운동과는 다른 본질적 속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4] 1차 세계대전을 피해 우연히 중립국 스위스에 모여든 예술가 그룹에서 비롯된 '다다' 운동처럼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배문화, 혹은 문화 권력과는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 조선의 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주목을 요한다.[5]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분류되어왔던 것들의 공통된 속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후대에 규정된 모더니즘과 당대 모더니즘의 내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재서의 평론에 대한 의미부여 방식이다. 주지하다시피 최재서는 이상의 「날개」와 박태원의 「천변풍경」에 대해 각각 리얼리즘의 심화와 확대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호명 자체가 좌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단의 재편을 노린 시도라고 볼 수 있다.[6] 기실 최재서는 좌파 문학이 아니라 민족주의 진영까지 포함한 리얼리즘 문학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가 주목한 것은 재현의 내용이 아니라 재현의 기법이나 재현 체계 자체였다. 최재서는 그 전년도에 사회주의 문학의 퇴조 이후 '풍자문학론'의 의의를 강조한 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글은 행동주의적 휴머니즘에 맞서는 지성론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비판받는다.[7] 하지

3) 박상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범주화 시론」(『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과 이상, 최재서』, 소명출판, 2018)에서는 이들의 소설 역시 모더니즘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한다.

4) 노태훈, 「193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와 텍스트의 존립 양상」(『구보학보』11, 2014)에서는 이를 예술가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구인회나 삼사문학에 대한 이상의 조바심은 의미심장하다.

5) "1930년대 모더니즘소설이라는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의 범주는 어떠하며 특징, 정체는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에서 이 책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박상준, 앞의 책, 12면. 이러한 지적은 30년대 모더니즘의 실체에 대한 논의(권은, 『경성 모더니즘』, 일조각, 2018.)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진 바 있다.

6) 박상준, 「최재서의 1930년대 중기 문단 재구성 기획과 모더니즘의 호명」, 앞의 책, 143-209면.

만, 최재서의 논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문학분류에 있어 내용과 사상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작가의 태도와 기술에 중점을 두는 방법을 취하려 한다”는 지점이다. 그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현대는 말할 것도 없이 과도기”이기 때문이다.[8]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대를 앞둔 작가들에게 과제를 던진 셈이다.

이는 이상과 박태원의 소설에 대한 평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재서의 비평은 “주관을 떠나서 대상을 보랴고 하”는 이상과 박태원 소설의 공통점에서 출발하고 있다.[9] 「날개」의 심리주의적 성격을 고려하면, 여기서 ‘주관’은 객관적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혹은 실천 대 지성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념을 앞세운 리얼리즘이 ‘리얼리티’를 재생산하는 방식에 대해 대응하는 모더니스트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재서 역시 박태원의 모더니즘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박태원의 소설 기술을 카메라에 빗댄 그는 「천변풍경」의 작가가 카메라로서의 기능은 뛰어나지만 감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10] 「천변풍경」이 목소리의 발화와 카메라 기법을 교차시키는 등 정교하게 영화의 서술기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논의는[11]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최재서의 판단 역시 리얼리즘의 관점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케 한다.[12]

이 지점에서 새삼 묻게 되는 것은 모더니즘 문학은 무엇인가이다. ‘모던’ 개념의 극적 변화를 따라가 보면[13] 모더니즘은 후기근대에 등장한 역사적 사유인 동시에[14] 우

---

7) 임환모, 「1930년대 ‘지성’의 실체와 의미」, 『한국언어문학』32, 한국언어문학회, 1994.5, 285-303면이 대표적이다.

8) 최재서, 「풍자문학론」, 『조선일보』. 1935.7.14.~21.

9)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야」,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98면. 단행본에서 글의 제목은 바뀌었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10)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야」, 103면.

11) 이광욱, 「발성영화 전환기의 매체역학과 「천변풍경」에 나타난 영화적 글쓰기」, 『구보학보』11, 2014, 171-218면.

12) 최재서의 비평 활동은 친일 행적과 연관되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으나 최현희, 「일제 말기 최재서의 예술론과 정치의 미학화」(『개념과소통』12, 2013)에서는 그것을 ‘모더니스트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

13) 레이먼드 윌리엄스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사용되던 ‘modern’은 19세기를 거치면서 ‘향상된’, ‘효율적인’의 의미로 거듭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역, 『키워드』, 민음사, 2010, 315-7면.

14) “19세기 말엽부터 싹트기 시작한 모더니즘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비로소 활짝 꽃피게 되었던 것이다.” 김욱동, 「모더니즘」, 이선영 편, 『문예사조사』, 민음사, 1997(개정판),

리의 현실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중세에 만들어진 modernus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에 속하는', '새로운', '현재의' 등을 의미했을 때 그것은 아직 진보의 시간 위에 놓여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됨과 동시에 우리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요구하게 되었다.[15] 모더니즘의 정신을 제외하고 그 외관이 변화무쌍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16], 1930년대 조선, 폭을 좁혀 구인회를 둘러싼 조선 문단이라는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모더니즘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따지는 것은 제논의 사례처럼 거북이에게 무한히 다가갈 뿐 닿지 못하는 아킬레우스의 절망감을 낳는다.[17] 현실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앞질러 갔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으로서의 거북이를 쫓는 끝없는 수렴이 아니라 우열 관계의 전도를 낳은 무한의 상상력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유럽의 모더니즘 예술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피터 게이가 정리한 두 가지 특징, 즉 '관습적인 감수성에 저항하려는 충동'과 '철저한 자기 탐구' 정도로[18] 모더니즘의 기본 틀을 세우고자 한다. 모더니즘이 '모던'이라는 '우리 시대'에 대한 어떤 태도라면 우선은 그 태도들을 간단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듯싶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이상을 꼽는 데 대개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논의들을 참고하면, 건축과 수학의 용어들을 문학적 기호체계 안으로 가져온 이상은 자신의 육체를 텍스트로 변형한 가운데 당대 사회의 풍경에 대한 현미경적 탐사를 수행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 문학이 자기의 내부로 침잠해가는 양상을 모더니즘의 심화라는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19] 모더니즘이라는 적확한 '말'이 없었다고 해도 그의 창작을 당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진단으로 판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기에는 김기림처럼 이상의 문학을 문학사적으로 위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20]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상을 '작가'로

154면.

15) M. 칼리니스쿠, 이영욱 외,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언어, 1993, 23-37면.

16) M. 칼리니스쿠의 논의는 이 다양한 모습을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키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살펴보고 있다.

17) 권은(앞의 책)은 '지오-모더니즘' 개념을 통해 식민지 도시 경성의 특수성과 모더니즘 문학의 보편성을 겹쳐 읽는데 이는 '실체'라는 강박에 갇히지 않는 시도이다.

18) 피터 게이, 정주연 역, 『모더니즘』, 민음사, 2015, 29-32면.

19) 이상은 1933년 정지용의 주선으로 문학계에 발을 들인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지만 1936년 9월 「날개」를 발표하기 전에는 무명에 가까웠고 그 직후인 10월 동경으로 떠났다.

자리매김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밝히자면 여기에는 박태원과 마주보는 글쓰기의 작업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얼핏 보면 텍스트를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로 구축하는 모더니즘 기법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러한 창작방법의 의미는 당시 세계대공황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과 관련될 때,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2. 자본과 문화, 모더니즘의 외부

한국의 모더니즘과 서구의 모더니즘은 그 태생에서부터 식민지와 제국의 거리만큼이나 물질적 격차를 갖고 있기에[21] 서구 모더니즘의 시선을 1930년대 구인회에 곧바로 투사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모더니즘적 태도가 발생하는 경로의 유사성만은 인정할 수 있겠다. 자본 축적의 양상이나 모더니티의 꼴은 제각각이지만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적 외양과 그에 대한 태도라는 정도에서 모더니즘 일반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22] 그런 점에서 먼저 서구의 모더니즘이 19세기말의 물질적 풍요에서부터 시작되어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성장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모더니즘은 산업화와 도시화한 국가들의 부에서 자라났다."[23]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중산층이 대두되고 이렇게 형성된 출판시장으로부터 문학이 발생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24] 거기에는 단순히 많은 돈을 넘어선 막대하고도 무차별적인 자본의 축적 시스템이 필요했다. 모더니즘 예술사의 첫 머리에 놓이는 보들레르의 댄디로서의 정체성은 이윤과 효율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자본에 대한 혐오의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의 성장에 제1차 세계화가 있었으며 그 흐름이 위기에 이른 것이 세계대공황이었다.[25] 이 점에서 1930년대 세계를 강타했던 세계대공황과 모던 보이의

20) 김기림은 평론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1939.10)와 시 「쥬피타 추방」(1946.4)를 통해 이상 문학을 역사화 하고 해방 후 『이상 선집』(백양당, 1949)을 간행하여 그를 문학사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21) 권은, 앞의 책, 13-7면.

22) "모더니즘은 단순히 미학적 스타일의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의 '문화적 지배소'였다." 위의 책, 48면. 19세기말부터 진행된 1차 세계화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3) 피터 게이, 앞의 책, 48면.

24) 중산층과 관련된 근대소설의 성장에 관해서는 이언 와트, 강유나·고경하 역, 『소설의 발생』, 강, 2009 참고

집합체이기도 했던 구인회의 모더니즘을 관계지어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26]

비단 대공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근대 이후 작가들의 삶에서 돈은 싫든 좋든 양가적인 대상으로 여겨진다.[27] 부르주아의 속물적 삶에 대한 거리두기에서 비롯된 작가의 창작활동은 그의 작품을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선택해주는 소비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작가의 활동을 고투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문화산업 전체를 통틀어 봐도 문학은 그다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28] 돈에 굴복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돈에 쫓겨 집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존 방식을 발자크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원고가 완성되기도 전에 가불을 통해 다음 원고를 위한 사치를 부렸다는 사실 이전에 그가 메트로폴리스 파리의 토대가 되는 자본의 작동 방식에 구속된 상태였음은 『고리오 영감』, 『마법 가죽』 등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들의 도덕적 파탄기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소설들이 앞서 증명한다. 엥겔스가 이를 '위대한 리얼리즘의 승리'라는 말로 상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돈의 마력에 이끌린 어떤 존재들은 돈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을 그려내는 것만으로 세상의 이치를 포착한다. 돈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는 순간 그러한 감각은 현실이 구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게 된다.

자본과 문학의 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돈이 무엇인지부터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삶의 세부 양상까지 결정짓는 돈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가치가 "특정 행위가 더 큰 사회적 총체성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서 인식되는 방식"이라면[29] 그 대부분을 돈이 좌우하는 사회는 사람들에게 돈이 교환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닐 때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형

---

25) 이헌대 · 노언탁 · 최상오, 「19세기 세계화의 전개과정과 특징적 양상」, 『산업연구』19, 경기대학교부설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06, 107-128면.

26) 후술되겠지만 일본의 경제공황은 관동대지진의 여파에서 비롯되어 이미 1927년부터 금융공황의 양상을 띠었다. 디트마르 로터문트, 양동휴 외 역,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예지, 2003, 170-74면.

27) 김병익, 「작가란 무엇인가」, 김인환 · 성민엽 · 정과리 편,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8.

28) 『문학사상』이 1985년과 2002년에 실시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가 그러한 결과를 잘 보여준다. 문학이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작가에게 돈은 양가적인 대상이다. (「20만명 중 '억대 연봉' 극소수…배곯으며 '연참' 나서는 웹소설 작가들」, 『뉴스웍스』, 2020.9.19.)

29) 데이비드 그레이버, 「서문을 대신하여」, 서정은 역,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그린비, 2009, 21면.

성에는 상업자본주의 시기 국가와 시장의 대결, 자유에 토대를 둔 소유권 개념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힘들이 작용했으나 경제관념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으로는 산업혁명이 꼽힌다.[30] 관념, 추상, 이론 등 다양한 말들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질적 실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처럼 유럽에서 출발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겹쳐 읽는 이유가 될 것이다.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연결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비약적 세계화를 초래한다. 하지만, 삶의 감각과 원리를 반영하는 문화는 어떠한 현실과 제도의 일방적 작용을 통해 형성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문화는 삶의 방식인 동시에 가능성, 즉 삶의 결과인 동시에 과정이기 때문이다.[31] 자본주의 문화에서도 다양한 삶이 존재할 터이니 이는 마찬가지이다. 분명 그것은 자본의 축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이겠으나, 그것이 하나의 지배문화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브컬처가 자연스럽게 공존될 수밖에 없다.[32] 다소 과장하자면 서브컬처는 "자본주의 체제가 끊임없이 주변부화하는 억압된 주체들(혹은 과잉된 주체들)이 버티고 서 있는 생존공간"이다.[33]

문학이 문화의 한 부분이라면 문학에도 지배문화와 서브컬처라는 관계 틀을 적용할 수 있다. 가령, 1920년대 초반 형성된 동인지의 목소리는 그 이전 유학생 학우회의 기관지들이 내세운 문학담론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주었다.[34] 유학생 학우회의 담론이 민족주의와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지 자본주의와는 거리를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19세기를 거치면서 민족과 이성만큼 자본주의에 오염된 개념은 찾기 힘들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김동인의 '정치운동 대신 문학'이라는 발언은 선배들의 거추장스러운 조직과는 거리를 둔다는 내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동인이 보여준 '버릇없는/오만한' 태도는 비슷한 연배의 박영희 등과 다다이스트 임화의 경우에

30) 여기에서는 로버트 하일브로너, 홍기빈 역,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미지북스, 2016)의 견해를 따랐다. 하일브로너에 따르면, 경제학의 중요한 문제가 희소성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생산과 분배의 과제로 이어진다.(위의 책, 21-49면) 산업혁명은 이 점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31) 존 피스크, 박만준 역, 『대중과 대중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2면.

32) 켄 고프먼과 댄 조이는 문화의 폭을 넓혀 인류 역사에 걸쳐 카운터컬처의 흐름을 정리한 바 있다. 켄 고프먼&댄 조이, 김세미 역, 『카운터걸처』, 텍스트, 2010.

33) 이동연, 「역자서문」, 딕 헵디지, 이동연 역, 『하위문화』, 현실문화연구, 1998, 13면.

34)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 조선에서 창간된 『신청년』의 청년문화적 속성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안용희, 「신청년의 분화/분화와 '운동'의 문학적 형상화」, 『어문연구』17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6, 163-186면 참조

게서도 지적된 바 있다.[35] 또한, 얼마나 자각적이었는지는 별개 문제지만 적어도 『창조』의 동인들은 낡은 세계를 기계 문명으로 재구축하고자 한 미래주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36]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이들 상당수가 식민지 조선에 새롭게 형성된 남성지식인 동성 사회에 흡수되고 말았지만, 적어도 그들(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이 '동인'을 꿈꾸던 시기에 보여준 저항성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것은 서브컬처의 목소리가 문화산업의 영토가 되기도 하고 지배문화로 전향하기도 하는 사실을 반영한다.[37]

구인회의 모더니즘을 이러한 동인지의 계보 안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 구인회의 구성원들은 정지용(1902년생)이나 이태준(1904년생), 유치진(1905년생)을 제외하고 대개 1908년에서 1910년 사이(김유영, 김기림, 김유정, 조용만, 박태원, 이상 등)에 출생하였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시작될 당시 이들은 이제 막 '학생시대'를 벗어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모더니즘의 지류 중 가장 파괴적인 '다다이즘'의 세례를 받고 성장하기도 하였다.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다다이즘은 1924년 고한용에 의해 처음 조선에 소개되었지만, 3.1운동이 실패한 후 문화정치 아래에서 근대적 제도에 억눌려 있던 이들에게 파괴를 통한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38] 이들은 동인지 세대의 저항성을 넘어서 근대적 역사관 자체에 대한 무화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들의 영화예술에 대한 공통된 관심은 그들의 문학이 혼성미디어적 속성을 지니는 데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39]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시의 조선 경제는 형식적으로는 일본 경제 블록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의 조선은행은 한반도 안에서 돈을 찍어 한반도 밖으로 투자하는, 일종의 국제투자기관"

35) 유광렬, 『기자반세기』, 서문당, 1969, 134-5면 및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Ⅱ』, 문학과지성사, 1988, 548면.
36) 김동인의 미래주의에 대해서는 한성철,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한국문학 영향 연구」, 『이탈리아어문학』17,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5, 189-210면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37) 후자의 경우로 19세기의 대중예술이었다가 고급문화가 된 세익스피어 연극을 들 수 있겠다. 존 스토리, 유영민 역,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1 참고.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지배권력에 의한 위계화의 과정이 개입한다. 서브컬처는 날것 그대로 지배문화가 될 수 없다.
38) 박정선, 「식민지 근대와 1920년대 다다이즘의 미적 저항」, 『어문론총』37, 한국문학언어학회, 2002.12.
39) 조영복, 「이상의 예술 체험과 1930년대 예술 공동체의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23, 2007, 204-250면.

으로 “조선은행의 역할은 일본-조선-만주를 관통하는 경제안정대(엔 블록)를 견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40] 1930년 명백한 판단착오 아래 금본위제로 복귀한 일본이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도 ‘독립’된 조선은행권을 사용하던 식민지 조선은 적어도 통화정책으로 인한 피해와는 무관했다. 물론 이는 화폐 공급 차원의 문제이고 실물 경제에는 엔블록 체제에 밀어닥친 파고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1930년대는 1920년대 일본 독점자본의 침략에 따른 식민지 자본주의 형성에 이어 엔블록 경제체제 아래에서 병참기지화와 공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41] 제국과 자본을 겹쳐 읽는 관점에서 이 시기 조선이 소작쟁의와 노동조합의 경험을 거친 이후 민족의 이름을 내세워 제국의 자본과 대결하고 있었다면 좋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민족 역시 자본주의의 첨병으로 존재했다.[42] 또한, 1920년대부터 계속된 조선인들의 만주 진출이 보여주듯이[43] 엔블록 경제체제는 이미 1910년대부터 구축되어 조선은 제국의 연장으로서 충실히 기능하고 있었던 셈이다. 1910년대부터 조선은행법에 따라 금과 은은 물론 일본은행권을 준비자산으로 해서 조선은행권을 발행함으로써 일본 경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차 대전 이후 반동공황과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진재공황이 겹치면서 시작된 1927년 금융공황 이후 조선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세계대공황이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경제세력에 의한 파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930년에 무리하게 금본위제로 복귀한 조치는 조선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동시에 헛된 꿈에 부풀게 만들었다. 지금의 가상자산 열풍에 맞먹는 ‘황금광시대’의 광풍은 금본위제 아래에서 끊임없이 금이 유출되는 상황을 금 채산을 통해 대응하고자 한 당시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당대의 모습은 김유정의 「금따는 콩밭」이나 「노다지」 등에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등장하는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임에 틀림없었다.”라는 발화[44] 역시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

40) 차현진, 「중앙은행 오디세이⑦」, 『중앙SUNDAY』, 2015.1.25.
41) 박승호, 『한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나름북스, 2020, 77-9면.
42) 카터 에커트, 주익종 역, 『제국의 후예』, 푸른역사, 2008. 이 책은 경성방직을 세운 고창 김씨 가문을 통해 민족자본가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43) 이 점에서 최서해 소설 등에서 만주의 중국인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윤휘탁, 「침략과 저항의 사이에서」, 『한국사학보』19, 고려사학회, 2005 참고
44)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1994(개정판), 41면.

이미 지적했듯이, 모더니즘이 대공황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럽지 않다.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의 발생을 “<2차 산업혁명>과 <독점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의 긴박한 역사적 전개”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데[45],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아울러 ‘제2차 30년 전쟁’이라 일컫는 관점에서 모더니즘은 이른바 ‘세기말’에서부터 연속된 역사적 흐름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46] 경제학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대공황의 발생의 원인을 1차 세계대전의 처리 과정에서 금본위제로 회복한 사실에서 찾는다.[47] 시선을 돌려, 모더니즘에 앞서 위치하는 리얼리즘과 자본주의의 관계는 어떠할까. 끊임없는 욕망이 소비와 생산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방식은 환유의 방식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는 리얼리즘 소설과 상동성을 갖는다. 비판적 리얼리즘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 역시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비판한다고 해도 결국 물질적 욕망에 빠진 악인이 등장하고 결핍을 실패로 인식하는 사유의 차원에서 이는 자본 축적의 상상력에 맞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기대고 있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30년대의 시점에서는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사유 아래에서는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존립 가능한 정치·경제 체계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그에 대한 일관된 대안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48]

3. 구인회 유니버스의 캐릭터 ‘이상/구보’

식민지 조선의 모더니즘을 그 특유의 경제적 토대 위에서 살펴보고자 한 시도는 ‘주변부 모더니즘’이나 ‘경성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49] 이들 논의 이전

45)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151면.
46) “1930년대 대공황 시대는 19세기 말에 싹튼 세기말적 정신적 불안감이 1차 대전 동안 방향상실, 비관론으로 증폭되어 위기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다. 그 위기감은 예술적으로도 극단적인 실험(모더니즘)으로 표출되었다.” 양동휴, 『대공황 시대』, 살림, 2009, 61면.
47) 디트마르 로터문트, 앞의 책, 40-42면. 단기적으로는 왜곡된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뉴욕 증시의 폭락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가리킨다.
48) 마크 피셔, 박진철 역, 『자본주의 리얼리즘』, 리시올, 2018, 11-2면.

에 이미 이경훈은 이상과 박태원의 문학에서 돈의 흔적들을 찾아 의미화하기도 하였다.[50] 그는 카프문학이 1,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의 삶을 계급적 시각으로 그려낸 것과 달리 3차 산업과 관련한 현대적 소비자로서 룸펜 주인공들을 형상화했다는 점을 규명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단연 문제적인 존재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의 말처럼 이상은 최후의 모더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 문학이 이러한 의미를 띠게 되는 과정에서 박태원이 이상에 대해 쓴 일련의 텍스트들은 그 문학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박태원은 이상을 대상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34.8, 소설), 「애욕」(34.10, 소설), 「방란장주인」(36.3, 소설), 「보고」(36.9, 소설), 「이상애사」 (37.4, 추도문), 「이상의 편모」(37.6, 수필), 「성군」(37.11, 소설), 「제비」(39.2, 소설), 「만인의 행복」(39.4, 소설), 「이상의 비련」(39.5, 수필) 등을 발표했다. 이 중 텍스트에서 다루는 대상이 이상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글은 「이상애사」, 「이상의 편모」, 「제비」, 「이상의 비련」 등인데, 추도문이나 수필을 제외한 창작으로는 「제비」이 유일하다.[51] 그렇다면, 여타 텍스트들은 어떻게 이상과의 관계가 드러나는가.

익히 알려진 대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구인회 멤버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들이 즐겨 찾던 다방 '낙랑파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면,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김기림이 등장하고 '이국종 강아지'를 향해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의 한 대목을 패러디하기도 한다. 그리고 오전2시 카페를 나와 종로 네거리에서 헤어지기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이가 바로 이상이었다.[52] 「애욕」에서는 '하웅'의 무한 반복적인 연애 실패기를 다루는데, 이보다 조금 앞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연재하던 당시 이상이 '하융'이란 이름으로 삽화를 그렸다는 점에서 '하웅'이 '하융=이상'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소설이 구인회에 대해 지니는 의미는 「이상의 비련」을 통

49) 주변부 모더니즘은 신형기, 경성 모더니즘은 권은의 용어이다.
50) 이경훈, 「모더니즘 소설과 돈」, 『현대문학의 연구』12, 한국문학연구학회, 1999, 325-59면.
51) 현재 「이상의 비련」은 단편으로 분류되어 단편집에 실려 있는데 서술 기법으로 보건대 '수필'로 분류하는 게 맞다.
52) 여기에서 실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김기림이나 이상은 모두 '벗'으로 통칭된다. 한편, 1933년 5월 발표한 「피로」는 다방 '낙랑'에서 출발해 그곳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고현학적 탐색을 한다는 점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원형을 이룬다. 박태원이 구인회에 가입하고 나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은 그의 모더니즘이 구인회를 토대로 한 세계관을 구축했음을 짐작케 한다.

해 드러나는데, 이들은 『조선일보』라는 공적 미디어를 다방과 같은 자신들의 사교장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란장주인」과 「성군」은 '다방'에 모인 일군의 예술가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인회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53] 특히, 「방란장주인」은 구인회의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는 『시와 소설』 창간호에 '구인회'란 무엇인지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보다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보고」는 이상의 「날개」와 유사성이 두드러지고[54], 「만인의 행복」(이후 '윤초시의 상경'으로 개제)은 「보고」의 내용을 다소 변형한 이야기로 보인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꿈」(1930)에서 「골목 안」(1939)까지 이르는 박태원 소설 세계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이상'이라는 캐릭터와 접목하고 있다.[55] 이상 소설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카페 여급과 룸펜 지식인의 인물군까지 확장하면 이상은 박태원의 텍스트를 지탱하는 주춧돌처럼 보인다.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글쓰기의 형태는 서사 장르의 범주 안에서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반복적으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 소설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56], 이상과 박태원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보다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박태원의 등단작으로 알려져 있는 「수염」(1930)은 이후 이상 문학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울과 수염을 중요한 모티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수염」에서의 '거울'이 나르시시즘적 장치이고 수염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데 비해, 이상의 텍스트에서 거울은 근대적 현실의 축도이고 수염은 왜소화된 생명력을 보여준다.[57] 이 단적인 사실만으로도 이상의 모더니즘이 근대를 바라보는 비판적 성찰에 의거한 데 비해, 박태원의 텍스트는 지나치게 사소한 지점에 주목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나마 이상이라는 문제적 존재를 형상화함으로써 박태원은 글쓰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53) 현순영의 논의에 따르면 구인회는 이상의 '제비' 다방에서 회동한 적이 없다. 다만, 이들의 예술가적 공동체로서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를 구인회의 구성원들과 겹쳐 읽을 수 있을 듯하다.

54) 김종회, 「박태원의 <구인회> 활동과 이상과의 관계」, 구보학회, 『박태원과 모더니즘』, 깊은샘, 2007, 102-3면.

55) 이것은 「꿈」의 스토리를 빌려 간단히 말하면 근대의 꿈과 악몽은 동일한 메커니즘 위에 놓여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56) 자신의 삶을 모델로 반복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스즈키 토미, 한일문학연구회 역, 『이야기된 자기』(생각의 나무, 2004)나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문학과지성사, 1998)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57) 조은주, 「박태원과 이상의 문학적 공유점- 거울과 음악, 산책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23, 2007, 251-282면.

생각될 정도이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틀린 얘기이다. 「수염」이 발표되던 해, 이상은 총독부 기관지 『조선』에 「12월 12일」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은 해방 이후 발굴될 때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조선과 건축』, 『조선』, 더 나아가서는 『가톨릭청년』에 게재한 시, 소설 등은 모두 그러한 처지였다고 할 수 있다.[58] 흥미로운 사실은 이상이 문단에 최초로 등장한 「오감도」 연작의 발표를 이태준, 박태원과 함께 논의했다는 점이다. 이태준은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장이었지만 박태원의 개입은 다소 의아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오감도」 연재에 뒤이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도 같은 지면에 연재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은 박태원이 이상의 「날개」가 발표된 같은 달 『여성』지에 「보고」라는 짤막한 소설을 발표하면서 일어난다. 이 두 소설에 등장하는 부부의 모습이나 그들의 거주지에 대한 묘사 등이 유사하고 『조광』이나 『여성』가 모두 조선일보에서 발간한 잡지였다는 점, 무엇보다 이상과 박태원의 교우관계로 미루어[59] 이 둘이 의도적으로 같은 달에 서로 다른(하지만 매우 긴밀한) 지면에 이 소설들을 발표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날개」에 대한 고평에 비해 「보고」는 거의 문학사적 해프닝 정도로 알려져 있다.[60] 간혹 이상을 소재로 작성된 박태원의 작품 목록에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창작기법으로 따져봤을 때 이러한 지속성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며 문제적이다. 더욱이 이는 박태원의 창작 방법 전반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 부분에서는 「날개」와 「보고」의 비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박태원의 창작방법을 (아즈마 히로키의 용어를 비틀어) '게임적 모더니즘'이라는 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즈마 히로키의 '게임적 리얼리즘'은 이제는 대중문화가 되어버린 오타쿠의 문학[61], 즉 한때의 서브컬처를 논의의 축으로 삼아 최근의 문학을 데이터베이스를 소비

58) 박태원은 구인회에 가입하기 이전 이상이 경영하던 다방 '제비'에 가서 『조선과 건축』에 실린 시들 을 보았으며 그 중 「운동」이 매우 인상 깊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박태원, 「이상의 편모」, 김유중・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18-9면.

59) 이상 사후 「염천」에 대한 글의 후기에서 박태원은 그들이 창작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김종회, 앞의 글에서 이 사실들을 지적하지만, 이 의미를 '문학적 주고받기' 정도로 정리한다.

60) 당시 최재서가 『조선일보』에 연속적으로 평론을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고」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도 큰데도 최재서가 「날개」와 「천변풍경」을 비교하는 대목에서도 「보고」는 언급되지 않는다.

61) '오타쿠' 자체도 극심한 변화를 겪은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에지마 사토시, 김현아・주재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소설을 사용하여 게임적 경험을, 바꾸어 말하면 콘텐츠 지향적 미디어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지향적 미디어의 경험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2] 이때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지향적 미디어의 경험이 콘텐츠로서의 이야기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즈마 히로키는 리얼리티를 구축하는 새로운 경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미디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으나, 그 미디어의 토대가 되는 실재(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논리를 펼친다. 이것은 그가 오타쿠의 문학을 설명하면서 포스트모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63] 현실의 이야기보다 미디어적 경험이 더욱 ‘리얼’하게 인식되더라도 당연히 이 사이에는 수많은 실재의 힘이 개입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는 매우 지난한 과제일 것이다. 박태원이 이상, 혹은 이상과 구보를 캐릭터로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이 과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날개」와 「보고」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날개」는 룸펜 지식인과 성노동자라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부부관계를 소설의 이야기 축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 관계는 소설의 결말에서 ‘다시 날자’는 외침이 공허할 만큼 ‘리셋’이 불가능하다. 당대의 리얼리티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서는 이미 폐쇄된 식민지 자본주의의 왜곡된 현실을 분리된 ‘내면’을 통해 응시하는 자기 탐구의 기법을 취할 뿐이다. 여기에 다시 ‘리셋’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마주보는 텍스트로서의 「보고」이다. 「보고」는 상호텍스트성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가벼운 톤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한편으로는 「날개」의 문제의식을 현실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다시 ‘행복’이라는 본질적 삶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리셋의 힘은 「날개」와 「보고」의 마주보기에 그치지 않고 이미 「애욕」을 통해 구축된 캐릭터 이상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전개된 열린 ‘행복 찾기’와 연결되어 구인회의 모더니즘을 세계대공황을 맞은 조선의 현실과 마주세우면서도 자본의 리얼리티로 향하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어울리는 것은 이상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박태원의 이상(혹은 이상

명 역, 『세카이계란 무엇인가』, 워크라이프, 2016, 38-62면이 상세하다.

62) 아즈마 히로키, 장이지 역, 『게임적 리얼리즘의 탄생』, 현실문화, 2012, 135면

63) 이택광, 「포스트모던은 어떻게 포스트모더니즘과 헤어지는가?」, 『실천문학』, 2012.8, 369-71면.

과 구보[64])이라고 할 수 있다. 박태원은 이상뿐 아니라 자신의 소설에서 수많은 캐릭터를 통해 결코 끝나지 않는 문학과 현실의 순환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65] 이 수많은 대화의 양상은 화폐 발권자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었지만, 아니 처음부터 지니고 있지 않았지만 삶 자체로서 어떤 가치를 담지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짓말 같은 소설, 장난감 화폐의 세계가 바로 박태원이 이상/구보를 캐릭터로 하여 펼쳐 보인 모더니즘의 정체였던 것이다.

4. 서브컬처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30년대 내내 지속된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국한되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금태환에 대한 걱정 없이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국가별로는 공급 중심의 실물 경제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면서 케인스 경제학이 국가 운영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이 '통제된 자본주의' 체제 아래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 내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서로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66]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 시대는 매우 짧게 끝나고 말았다.[67] 아이러니하게도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초였던 미국의 달러는 미국 중심, 혹은 월스트리트 중심의 세계경제 재편을 초래했고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경제는 자본을 확장하는 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와 리얼리즘은 또 다시 위기에 빠지고 다시/무한히 위기를 봉합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구인회의 모더니즘은 당대의 지배문화가 반복해서 제시했던 리얼리즘적 해답의 유효성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와 리얼리즘이 현실을 재생산하는 것이 봉합에 그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서브컬처로서의 모더니즘은 매번

64) "그러나 이제 고백을 하자면 <애욕> 속의 하웅은, 이상이며 동시에 나였고, 그의 친우 구보는 나면소 또한 이상이었던 것이다." 박태원, 「이상의 비련」, 『이상의 비련』, 깊은샘, 1991, 172면.
65) 이는 안용희, 「박태원의 유머소설과 서술전략」(『구보학보』12, 2015.6)을 통해 일부 논의된 바 있다.
66) 김만권, 『새로운 가난이 온다』, 혜다, 2021, 81-5면.
67)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 선언을 했다.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인회의 모더니즘은 잘못된 채점표를 받아든 것처럼 보인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1990년대의 한국 사회에 등장했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반복되었다. 보드리야르나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의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성격을 설명하는 방도로만 기능했다. 신자유주의와 대중문화를 앞세운 자본의 재구성 과정에서 이것은 실재와 재현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을 '리얼리티'라는 거대한 환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현실의 변모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의 재현 체계를 동원해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지만 파국의 순간을 늦출 수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한 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 '게임적 리얼리즘'으로 서브컬처 문학의 의미를 규정한 아즈마 히로키의 사유 방식이 그러하다. 서브컬처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그것이 주류문화와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러한 이질성은 동일성의 체계 안에 포섭되지 않는 가능성을 내포하고만 있을 뿐 그 자체로 동일성의 공고한 체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의 주류가 된 서브컬처는 그 용어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로만 보자면 '주류', '대중'과 어울릴 수 없는 개념이다. 딕헵디지가 청년문화를 대상으로 서브컬처를 논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불통하는 '저항성'을 핵심적 속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브컬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투영된 문화는 변화의 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사회의 가치체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새로움에 대한 추구 역시 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미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린 이야기 방식 자체가 이야기의 세계를 좌우한다면, 가치체계의 반영물인 이야기의 세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게임적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에서 엿볼 수 있다. 서브컬처를 하위문화라는 원래의 의미로 다시 들여다볼 때, 우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문화부족도 떠올릴 수 있다.[68] 그들은 실패했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서브컬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68) 이동연, 『문화부족의 사회』, 책세상, 2005.

토론문

한 영 인
창비 편집위원

학술논문의 초고를 읽고 토론문을 쓰는 것이 7년만의 일인데다 안용희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태원과 이상의 소설을 비롯한 식민지 시기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제 자신 안용희 선생님께서 차후 관련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건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론자가 되기에 역부족이라는 솔직한 고백으로 토론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근대, 근대성, 모더니티, 모더니즘 등의 어휘들이 구체적인 발화의 맥락에 따라 얼마간 자의적이고 유동적인 용례를 지닌다는 점까지 떠올려보면 – 정확하게는 'modernity'의 번역어로 근대와 근대성, 현대성 등이 맥락에 따라 혼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 여기서 안용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임적 모더니즘'을 어떻게 개념화/맥락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증폭되는 면이 있습니다.

발표문의 서두에 "근대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1990년대 문학 연구의 장"을 언급해주시기도 하셨지만 관련해서 저는 1990년대 근대성 담론이 "근대의 역량을 거의 무한동력에 가깝게 확대하고 그 경계를 거의 영속성에 가깝게 확장하는 해석을 제시했으며, 이런 해석을 통해 근대 '너머'나 '이후' 또는 '바깥'에 관한 서사들의 다시쓰기를 수행했"고 "구체적으로 근대성 담론은 근대성 너머로 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 불가능의 서사를 근대성은 자기부정마저 가능하다는 서사로 전화시킨다."는 황정아 선생님의 비판적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안용희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69] 근대성의 바깥이나 외부를, '미적 근대성'의

69) 황정아, 「근대성의 '판타지아' – 1990년대 한국 문학의 근대성 담론」, 『개념과 소통』 25, 한림과학원, 2020, 117~118면.

이념을 통해 다소 낙관적이고 감상적으로 추구했던 1990년대 몇몇 논자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황정아는 “근대성의 내적 자기부정을 설명하는 기제는 미적 근대성으로 수렴되지만 미적 근대성이 아무리 철저히 근대를 비판하고 반성한들 그 행위는 결국 근대성의 자기반영에 지나지 않”으며 “그토록 ‘창조적인’ 근대성에도 근본적인 자기비판과 부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때 근대성의 바깥”이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70]

황정아의 논의를 참조하는 이유는 안용희 선생님께서 박태원(혹은 구인회)의 모더니즘을 새롭게 읽는/혹은 읽어야 하는 이유를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적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근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응전에서 찾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미 우리가 기대고 있는 삶의 방식”이며 비판적/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였을 뿐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적실한 사유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과연 ‘게임적 모더니즘’은 어떻게 그와 같은 어려운 작업에 닿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안용희 선생님께서는 모더니즘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 상정하고 그것을 원본삼아 식민지 조선의 모더니즘이 얼마나 거기에 도달/미달하는지를 따지는 식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모더니즘의 원본’ 없이도 “당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진단”이라는 “모더니즘의 심화”를 이뤄낸 작가로 이상을 꼽은 뒤, 이상의 작업과 이상을 마주보는 글쓰기 작업을 수행한 박태원의 소설에 주목합니다. 그런 다음 박태원의 소설이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모더니즘 기법의 일종”이라고 할 때, 이는 “세계대공황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날 것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와 문학(문화)의 관계를 탐색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인회를 비롯한 식민지 모더니즘 문학을 일종의 “서브컬쳐”로 볼 수 있으며 거기서 ‘서브컬쳐적 저항성’을 추출해내는 장면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시 구인회의 모더니즘뿐 아니라 이제는 ‘근대 문학’ 일반이 모종의 서브컬쳐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학부는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학부 졸업 후 국문과 대학원을 가니까 국문과 출신 학생들이 이광수로 각종 ‘개드립’을 치며 놀고 있는 걸 보고 참신한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한

70) 황정아, 위의 글, 118면.

기의 소설을 읽으며 '한국근대문학'이 완연히 서브컬쳐의 영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구인회의 모더니즘-서브컬쳐-저항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건너편에는 근대(자본주의) 이후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패배주의적이고 체념적인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의 시점에서 근대(자본주의) 이후를 도모했던 리얼리즘이 1930년대 당시에 "자본 축적의 상상력에 맞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대안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대목에 관해서라면, 그건 말씀대로 "먼 훗날의 이야기"를 소급해서 내린 판단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안이 얼마나 적실한 대안이었는지를 떠나,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비에트라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상상되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상과 기획의 측면에서라면, 식민지 조선 역시 일제의 식민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세계사적 경향성'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세계에 갇힌 전망만을 강요받았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상의 「날개」가 자본주의의 리얼리티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자본주의의 대안이나 이후를 상상하지 못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 비해 (이는 마크 피셔의 논의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폐단이기도 합니다.) 박태원은 "구인회의 모더니즘을 세계대공황을 맞은 조선의 현실과 마주세우면서도 자본의 리얼리티로 향하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어쩌면 이 발표문의 핵심적인 논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이상의 소설과 박태원의 소설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것인데 그 도출과정이 이번 발표문에서는 조금 소략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후 논문 집필 과정에서 더욱 보충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그와 같은 평가를 가능하게 한 두 작가 사이의 서사 전략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3절의 논의는 박태원의 모더니즘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침윤된 무기력한 태도와 달리 "자본의 리얼리티로 향하지 않는 세계"를 구축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자본의 리얼리티로 향하지 않는 세계"의 뚜렷한 면모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은 이후 4절에서 그 세계의 면모에 대한 보다 소상한 이야기를 듣기 원할 텐데 4절의 논의는 오히려 그 '다른 세계'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다루

고 있거나 성취의 측면을 짚더라도 '자본주의 리얼리즘'과의 비교를 통한 소극적인 의미부여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안용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서브컬쳐의 저항성'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지닌 실천의 형식인지요? 발표문의 말미에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서브컬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쓰셨는데 이 문장에 서려 있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서브컬쳐는) "매번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조금은 체념적인 감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는 발표문의 핵심적 개념이기도 한 '게임적 모더니즘'이 단지 아즈마 히로키에 대한 수사적 패러디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한편 모더니즘이 근대성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기비판의 계기를 내포한 역사적 예술형식이라는 주장은 90년대 마샬 버먼의 모더니즘론을 차용한 여러 논의에서 반복되어 제출된 것이기도 합니다. 안용희 선생님의 이 글은 어떤 면에서는 1990년대에 '미적 근대성'이 차지했던 위상을 '서브컬쳐'로 대체한 듯도 보입니다. "거짓말 같은 소설, 장난감 화폐의 세계"라는 표현에 내재한 언표 차원의 허구성은 미적 근대성 및 예술의 자율성의 이념에 대한 새로운 반복(?)은 아닐까요. 그러하면 90년대 근대성론에서 펼친 모더니즘론과 '게임적 모더니즘'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의 말미에 서브컬처의 이질성은 "그 자체로 동일성의 공고한 체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일성의 공고한 체계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당면한 최고 목표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굳어버린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화하는 '다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미 그와 같은 주장을 줄기차게 해온 '포스트모더니즘'을 앞세우지 않고 굳이 '게임적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에 착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임적 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양상일까요? 이런 궁금증들도 두서없이 찾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불균등발전의 도시공간과 이동성의 주체
: 『오만과 몽상』을 중심으로

유 인 혁
서울시립대학교

1. 두 도시 이야기, 혹은 월경의 서사
2. 현의 월경: 가난에의 탐방
3. 남상의 월경: 거짓 염탐과 사보타쥬
4. 움직이는 주체들

1. 두 도시 이야기, 혹은 월경의 서사

이 연구의 목적은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에서 불균등발전의 도시공간이 재현되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박완서가 『오만과 몽상』에서 사회·계급적으로 양극화된 도시를 포착하고 있으며, 월경의 환경적 조건으로 전유하고 있음을 논증하겠다. 나아가 『오만과 몽상』의 인물들이 행하고 있는 이동성이야말로 박완서가 재현한 근대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가시화하겠다. 이를 위하여 『오만과 몽상』의 배경인 1970년대 서울에서 불균등발전의 공간이 어떠한 환경적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의 노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재구성하겠다.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에는 계급에 따라 두 쪽으로 나뉜 도시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소설은 현과 남상이라고 하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현은 부호의 막내아들이고 남상은 극빈자의 장남이다. 이 "각기 대척적이면서도 극단적인 태생의 인물"[1]들은 그만큼이나 양극화된 공간에 분할되어 있다. "현은 한옥과 양옥 두 채로 된 큰 저택에 살고 있었고 남상이는 빈촌의 어둡고 퇴락한 집"에 살았다. 현의 가회동 본가는 "성곽같이 위압적인 집"이며, 남상의 망우동 집은 "도심의 판자촌에서

1) 방민호, 「불결함에 맞서는 희생제의의 전통성」,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280쪽.

흘러온 철거민촌"이다. 여기서 현과 남상의 집은 두 청년의 계급적 차이를 환유하면서, 현대도시 서울의 명암을 가시화하는 장소다.

이것은 자본주의 도시의 일반적 공간성을 포착한 결과다. 닐 스미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불균등발전의 지리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불균등발전(uneven development)이란 일정한 공간에서 "한 축에서는 발전이, 다른 축에서는 저발전"[2]이 나타나는 양상을 일컫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균등발전은 다양한 지리적 규모로 전개된다. 즉 선진국과 제3세계라는 지구적 규모, 도시와 농촌과 같은 국가적 규모, 부촌과 빈촌이라는 도시적 규모 등에서 빈부의 차이가 가시화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도시는 불균등발전의 패턴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이것은 공간의 양극성이 도시의 스케일 안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포착되기 때문이다.[3]

그런데 『오만과 몽상』이 불균등발전의 도시공간을 재현했다고 말할 때,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는 『오만과 몽상』이 양극화된 도시공간을 비판한다는 뜻이다. 박완서는 남상이 거주하고 있는 망우동 판자촌, 시유지 위에 건설된 B동의 철거민촌, 현이 집을 나와 '가난에의 탐방'을 수행하며 거주한 불량 주거의 경관을 생생히 묘사했다. 이는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밑바닥 가난'의 장소로서, 위태롭고 비위생적인, 전혀 재생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소다. 이러한 양상은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오만과 몽상』의 주제로서 검토됐다. 예컨대 박진은 『오만과 몽상』이 "계급 고착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적 현실"을 포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실은 사회적 약자들의 부당한 희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아프게 증언"한다고 지적했다.[4] 조미희는 이 소설을 "빈민을 향한 부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도시빈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5]하는 텍스트로 읽었다. 이러한 관점은 박완서 소설이 한국 사회의 천박한 세속성을 비판했다는 일반적인 해석을 계승하는 것이다.[6]

---

2) 닐 스미스, 최병두 외 옮김, 『불균등발전』, 한울, 2017, 29~264쪽.
3) 닐 스미스에 따르면 "불균등발전의 가장 발달된 패턴은 도시규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특히 '국제적인 규모' 등 확장된 스케일 위에서는 불균등발전의 패턴이 덜 명확하게 나타난다. 닐 스미스, 위의 책, 262~264쪽.
4) 박진, 「아버지 자본의 타락한 법에 맞서 청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오만과 몽상』, 세계사, 2012, 285~286쪽.
5) 조미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기원과 도시빈민의 양상」, 『한국언어문화』 6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215쪽.

두 번째는 『오만과 몽상』이 양극화된 도시공간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항적인 서사의 조건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오만과 몽상』에서 양극화된 도시는 공간적 구별짓기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월경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2장과 3장에서 상세히 분석하겠지만, 현과 남상은 자기 계급의 공간을 떠나 반대편의 세계를 탐사하는 주체들이다. 현은 "성곽같이 위압적인 집"을 떠나 남상이 전전했을 '굴속 같은 방'으로 이사했고, 남상은 '굴속 같은 방'을 떠나 부르주아 계급의 공간에 투신했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이러한 공간적·사회적 이동성이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가능성을 창출했다. 현의 경우 가난을 대상화하는 그릇된 관점을 버렸고, 남상은 타자의 계급에 대하여 저항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때 도시가 계급에 따라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계급불평등의 경관으로서만 표현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환경으로 활용되었다.

『오만과 몽상』이 양극화된 도시사회를 가로지르거나, 초월하려는 주체를 다룬다는 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방민호는 『오만과 몽상』이 "자기에게 할당된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경희는 『오만과 몽상』을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둘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도덕적 집단으로서 중산층"[7]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설명했다. 이때 『오만과 몽상』은 부르주아 계급을 대표하는 현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표하는 남상이 노동윤리를 갖춘 중산층이 되고자 분투하는 서사로 요약됐다. 오자은 역시 『오만과 몽상』을 "두 남자 주인공이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분투"하는 서사로 파악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계급적 위치의 청년들이 "서로를 각자의 삶의 관객으로 삼아 누가 먼저 자수성가를 하는가, 자수성가 서사 쓰기 경쟁"을 하는 과정으로 포착됐다.[8] 정하늬는 『오만과 몽상』이 "현의 집의 '부(富)'와 남상의 집의 '가난', 그것도 '바닥가난', 그리고 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청년의 노력"

---

6) "이 작가의 경우 비판대상이 되는 현실은 주로 70년대 도시중산층의 삶으로서, 물질적 생활수준이 오르고, 아파트족, 자가용족이 늘며 이민붐이 부는 등 온갖 행복의 찬가가 불리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삶의 기쁨은 날로 만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저자 특유의 정직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잡아낸다."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 1979년 봄호, 350쪽.

7) 한경희,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교섭하기」, 『페미니즘연구』 16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6, 310쪽.

8) 오자은, 「'중산층 남성 되기의 문법'과 윤리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23~130쪽.

을 그린다고 정리했다. 나아가 이 작품은 “서로를 거울처럼 욕망하며 서로가 서로의 결핍 부분을 찾아 메우려 하는” 청년의 서사로서 이해됐다.[9] 이러한 연구들은 『오만과 몽상』이 대칭적인 계급적 타자를 짝패로 삼고 있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고자 한다는 점을 바르게 포착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연구들은 도시의 반대편을 탐사하는 현과 남상의 모험을, 현대 자본주의의 허위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현실에 휩쓸려 타락하거나 전락”[10]하고, 자본주의적 교환을 위해 ‘죄지음’을 감수하는[11] 일들로 포착된다. 물론 현과 남상은 이러한 여정의 끝에서 자신의 본질이나 도덕의식을 회복하지만, 그것은 도시에서 경험한 일들을 반성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오만과 몽상』의 무대인 도시공간이 “타락한 세계의 악마적 힘”[12]의 거점으로서, 모순되고 타락한 사회질서가 현현된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의 삶이란, 속물적인 자본주의의 법칙들을 수용하는 일이며, 현과 남상은 이러한 도시의 함정에 빠진 주민으로 축소된다.

반면에 이 글은 현과 남상이 수행하는 이동성이, 차이와 불공정을 넘어서는 실천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겠다. 이를 위해 『오만과 몽상』의 두 주인공, 현과 남상의 행동을 두 겹의 차원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우선 현과 남상에게, 두 쪽으로 갈라진 도시가 어떠한 환경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탐색하겠다. 다음으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주체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이 도시의 환경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신과 재생을 위한 공간적 계기로 삼고 있음을 가시화하겠다.

---

9) 정하늬,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 연구-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 『구보학보』 23호, 구보학회, 2019, 546쪽.
10) 박진, 앞의 글, 283쪽.
11) 오자은, 앞의 글, 120쪽.
12) 방민호, 앞의 글, 286쪽.

2. 현의 월경 : 가난에의 탐방

『오만과 몽상』의 서사는 현이 고등학교 단짝인 남상으로부터 절교를 당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은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부호 기업가의 막내아들이다. 그리고 남상은 독립투사의 후손으로서 극빈한 도배장이의 장남이다. 즉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 기업인을 낳고, 악덥기업인은 현이를 낳고 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는 남상이를" 낳는 가계는, 양극화된 계급적 상태의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두 청년이 절교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현과 남상의 관계가 선대의 문제 때문에 단절된다는 사실은 문제적이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자손은 그대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살아갈 수 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목숨을 바친 사람의 자손은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13]가 존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런데 현과 남상의 이야기는, 두 청년이 극단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짝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즉 『오만과 몽상』의 서사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인물들이 "같은 중학교를 거쳐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 서로 다른 계급을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화시키는 사회적인 힘에 맞서, 두 소년이 친교를 나누는 이웃(neighbor)이 됐다는 상황은 문제적이다.[14]

13) 방민호, 앞의 글, 278쪽.

14)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움직이는 두 부분의 공간들이 겹치는 일은 없다. (중략) 우연한 만남이 한 번 이루어진다 해도, 이러한 만남은 아무 결과를 낳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소통에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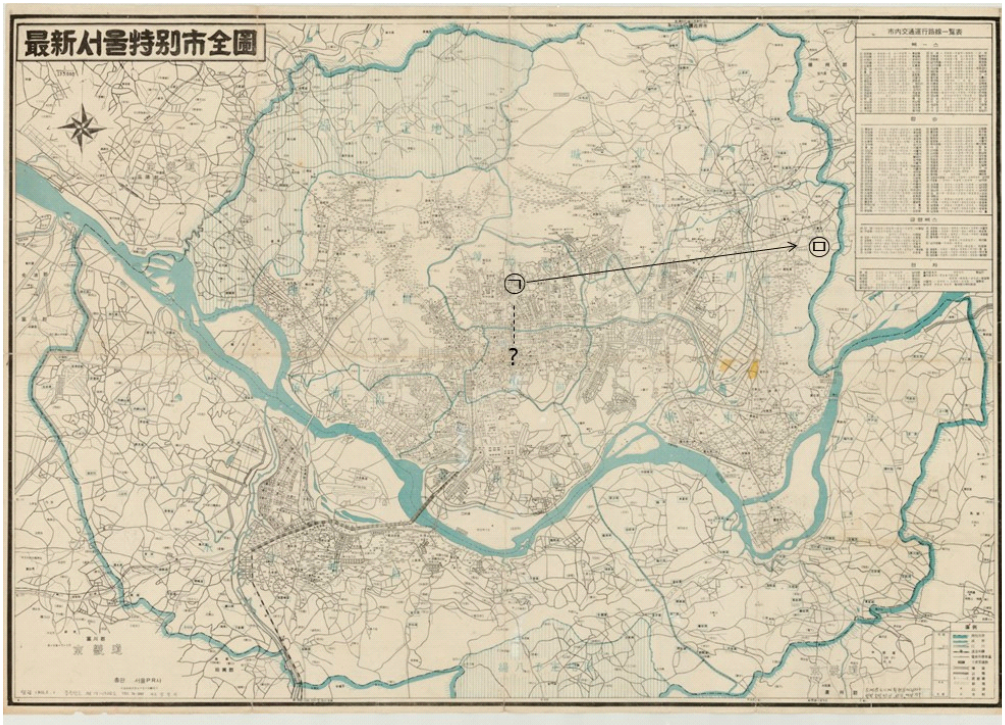

그림 7 ㄱ–가회동 현의 집, ㅁ–망우동 철거민 촌, ?–이사 전 남상의 집

위 그림은 『오만과 몽상』의 서사적 장소들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다. 『오만과 몽상』에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현의 본가는 ㉠가회동에 있다. 이 일대는 이른바 '북촌'으로 서울의 전통적인 고급 주거지역이다. 한편 남상의 집은 ㉤망우동 일대에 있다. 그중 특히 시유지 위에 난립한 판자촌이다. 이때 현과 남상의 계급적 차이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구현되어 있다. 현과 남상은 서울의 중심부와 주변부로 각각 분할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이 하교 후 남상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은, 물리적·심상적 차원에서 서울을 횡단하는 행위였다. 우선 현이 가회동과 망우동을 오갔던 것은 매일 10km 가까운 거리를 "걷고 차 타고"하는 수고를 들여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니 현과 남상의 친교는, 현이 물리적으로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현은 심상지리의 차원에서 도시를 횡단하고 있다. 남상의 동네는 다만 실제 지리의 차원에서만 서울의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변적인 공간이다. 그곳은 극

빈한 마을로서, “도시가 확대되감에 따라 철거민촌은 어차피 그런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외곽 쪽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이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때 현은 상층계급이 사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는 서울의 주변부에 매일 탐방을 가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은 서울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횡단하고 있는 이동성의 주체다. 『오만과 몽상』을 주의 깊게 읽으면, 박완서가 현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배경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박완서는 일부러 현과 남상을 서로 동떨어진 장소에 배치했다. 남상은 본래 현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 남상은 “국민학교 졸업할 무렵” 까지는 “도심의 판자촌”에 살았다. 이때 도심이라는 지칭은, 그가 현재의 종로구나 중구 등 전통적인 서울의 영역에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남상은 현과 만나기 전에 망우동으로 이사했다. 그 결과 현의 동선은 훨씬 길어졌다. [그림1]의 지도는 박완서가 남상을 망우동으로 이사시킴에 따라, 현의 이동성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가시화한다. <㉠-?>의 상대적으로 짧은 선은, <㉠-㉤>의 긴 선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현이 남상을 방문하는 것은,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 되었다. 즉 박완서는 남상과 현의 간격을 확장함으로써, 남상을 만나기 위한 현의 이동을 의미심장하게 만들었다.

> 남상이네는 일곱 식구가 방 두 칸 짜리에 셋집에서 살고 있었다. 남상이는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또 한 칸의 방도 남상이의 누이동생들이 저희끼리 싸우거나 어른한테 대드는 소리로 잠잠할 날이 없었다. (...) 남상이의 부모는 서로 남남끼리처럼 냉담해 보였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야 아기가 생긴다는 만고의 진리조차 그들만 보면 의심스러워질 만큼 그들은 서로 얼음과 숯처럼 어울리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을 보면 잘 싸우는 부부가 얼마나 의좋은 부부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남상이는 이런 집의 맏아들이었다. 남상이는 장래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가 까다로운 수학문제에서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 시험지를 수없이 허비하면서 온몸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착하고 아름답고 고적해 보였다. 현이는 그런 친구를 바라보기를 즐겼다. 그에게 있어서 친구의 집의 가난과 불화와 병고는 친구의 그런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암울하고 모호한 바탕색에 불과했다.
>
> 『의사 남상이』 언젠가 친구는 의사가 되고 그는 이런 제목의 소설을 쓸 작정이었다.

그는 하루에도 몇 가지씩 수없는 소설 제목을 만들어내고 곧 싫증내고, 잊어버리곤 했지만 『의사 남상이』만은 변함없이 그의 내부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남상이가 의사가 되기 이해선 그의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남상이네 식구 중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매우 실질적이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닌 일은 헛된 일이었다. 헛된 희망을 안 가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안했다. 남상이는 미구에 그에게 닥칠 이런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진 몰랐지만 결코 그의 도움을 호락호락 받아들일 것 같진 않았다. 남상이가 보는 참고서는 거의 다 현의 것이었지만 각별히 곱게 다루어 안 볼 땐 반드시 선반에 모셔놓고, 중요한 대목은 노트에 베껴놓고 다시 보지, 절대로 책 속에 언더라인을 치거나 책장을 접어놓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현은 자기의 호의가 친구의 이런 결벽성과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리라는 것까지 진작부터 생각해놓고 있었다.

"임마, 네가 의사가 돼야 내가 『의사 남상이』를 쓸 거 아냐. 너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투자야. 부담 느낄 거 하나도 없어. 적어도 노벨상감이니까. 상금만 해도 내가 투자한 것의 몇십 갑절을 뽑고도 남을 테니까."(1권, 18~21쪽)

한편 현은 타자의 공간으로 이동한 후, 시각적 주체의 성격을 드러낸다.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현이 미적이면서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남상 일가를 대상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5] 우선 현은 남상을 미적인 대상으로 포착했다. 남상이 입시를 위하여 수학문제를 푸는 과정은 "착하고 아름답고 고적한" 행위로 인식되었다. 즉 현이 "학교 밖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남상이네서" 보냈던 것은, 그가 남상을 "바라보기를 즐겼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은 남상의 환경을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다. 현은 가난이 남상의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낸다. 현의 관찰에 따르면 가난은 많은 구성원들을 좁은 공간 속에 밀집시켰고, 이는 친밀성의 장애를 만들어냈다. 남상의 자매들은 서로 자주 다투고, 그의 부모는 성애를 나누지 않는다. 이들 가족에게는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편 이 가족에게는 사회적 이동성의 잠재력이 없다. 그들은 "헛된 희망을 안 가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적 태도를 계발했다. 여기서 현은 가난한 가족의 인정세태

15) 여기서 현의 시각성은 권력의 차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현은 어느정도 "독재적이고 특권적인 남성의 위치에서 보는 방식"(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416쪽)을 실천하고 있다.

를 발견하며,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한편 현은 남상에 대하여 중립적인 관찰자로 남지 않았다. 우선 현은 남상을 소재로 하여 『의사 남상이』라는 소설을 쓸 계획이었다. 요컨대 현은 남상을 미적으로 포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현할 생각이었다. 또한 현은 남상을 경제적으로 원조할 생각이었다. 그는 남상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려고 했다. 남상의 가족이 남상을 뒷받침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친구로서 후원을 결심한 것이다. 이때 현과 남상은 보는 자와 대상,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처지로 분할됐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동등하기보다는 비대칭성을 띠게 되었다.

그렇다면 남상이 현과 절교를 선언한 것은, 이러한 주체-대상의 관계를 종식한 것이다. 남상은 현의 대상화에 다만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이 아니다. 그는 현의 호의가 후원의 형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었다. 이는 앞의 인용문에서 남상이 현의 참고서를 대여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남상은 현의 참고서를 빌려 공부하지만, 밑줄을 치지 않거나, 책장을 접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즉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참고서의 소유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에게 일종의 '결벽성'으로 포착됐다. 현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있어서, 남상에 대한 원조를 영리적 목적의 투자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남상의 절교 선언이 아니더라도, 현의 계획이 순탄히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한편 남상은 현의 시선을 거부하고 있다. 남상이 현과 절교한 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현의 방문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상의 할아버지는 현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타일렀다."(1권, 103쪽) 여기서 남상의 할아버지가 직접 요구한 것이 절교 그 자체가 아니라 '방문'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남상의 할아버지는 타자의 눈에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즉 현이 속한 계급(친일파/부자)에 의해 자신이 속한 집단(애국자/빈자)가 타자화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만과 몽상』은 현이 가난의 미학적·사회학적 대상화를 거부당하며 시작하는 서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은 이동성과 시각성을 활용하여 계급적 우위를 드러냈으나, 곧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그런데 현은 남상과 절교한 이후에도 타자에 대한 탐방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본격적으로 투신했다. 현은 가출 후 고학(苦學)을 통해 의대생이 되었다. 그것은 "녀석

이 뒷받침 없인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지레 포기한 걸 그는 뒷받침 없이 돼주는"(29) 것으로서, 남상에게 복수하려는 행위였다.

> ㄱ)현의 자취방은 시장의 꼬리가 정말 짐승의 꼬리처럼 살짝 꼬부라지면서 소설짐에 다다르기 바로 못미처에 있었다. 양옆에 이층집이 붙어 있어서 그 집은 이빠진 자국처럼 보였다. (...) 허술하고 위태로운 이층집이었다. 올라가는 계단도 없이 길에서 곧장 사닥다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닥다리도 낮 동안 곤두서 잇고 밤엔 어디론지 치워졌다. 도둑을 맞을까 봐 그렇게 한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치우는 게 이층집 식구들의 문단속이었다. (...)너절한 변두리 동네, 새로 생긴 더러운 싸구려 시장이 뒷문 밖으로 꾸역꾸역 꿰져 나와 꼬리를 이룬 곳에서도 맨 끄트머리에 사는 인간들에게도 내려다보고 쳐다보는 관계가 있다는 걸 현은 쉽게 냉소할 수 있을 뿐 자기를 그런 관계 속에 놓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골목사람처럼 살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골목사람들로부터 초연했다. (1권, 34~35쪽)

> ㄴ)영자는 현의 코앞에 두 손을 내민 채 그렇게 말했다. 현은 영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 피부병이란 원래 만지고 싶지 않은 거기도 했지만 영자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진찰이란 실은 접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현을 한층 냉담하게 했다. (...) 영자는 아직도 손을 내밀고 있다. 수포 같은 발진은 미세하고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얼핏 봐서는 정하고 앙증맞은 소녀의 손일뿐이다. 그러나 현은 잡지 않는다. 소녀의 눈빛이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1권, 56쪽)

이러한 과정에서 현의 이동성·시각성의 권력은 유지되었다. 요컨대 현은 여전히 타자의 공간으로 탐방하여, 그들을 대상화하는 주체로 남았다. 인용문 ㄱ)에서 현은 가난에 따라 과밀해진 환경이 치안을 악화시키며, 나아가 이웃 간의 신뢰와 유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너절한 변두리 동네'의 인정세태를 상세히 포착하는 일은, 정확히 현이 남상의 동네에서 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현은 과거보다 훨씬 냉정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즉 현은 "철저하게 골목사람처럼 살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골목사람들로부터 초연했다." 이러한 양상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영자와의 관계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영자는 고아 출신으로서 제약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영자는 고학을 하는 현을 고아로 오해했는데, 이에 따라 동병상련

의 유대감을 발휘했다. 영자는 현에게 각종 돌봄을 제공했으며, 현은 이를 통해 “청결하고 편안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1권,202)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현은 영자에 대하여 거리를 뒀다. 인용문 ㄴ)은 이러한 양상을 잘 드러낸다. 당시 영자는 제약공장에서 노동하며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영자는 의대생인 현에게 진찰을 청했는데, 이는 사실 명확한 진단보다는 일종의 친밀성(‘약손’)을 요구한 것이다. 현은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일부러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자신이 영자를 비롯한 ‘골목사람’들의 이웃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방문객”이자, “아니꼬운 관광객”(1권, 201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현은 영자와 친밀성을 교환하는 것을 “방문객의 예절”에 어긋나는 일(1권, 192쪽)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삽화들은 현의 무정함을 부각시킨다. 특히 현은 지속적으로 돌봄을 베푸는 영자에게 모질게 굴었다. 영자의 친절에는 고함으로[16], 애정에는 배신으로 응답했다. 현은 자기 생활의 재생산을 상당 부분 영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은 영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일방적으로 결별함으로써 그러한 돌봄을 배신했다. 심지어는 영자와의 사건을 “가난을 결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의식”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을 자본주의의 심연을 내면화한 인물로 읽도록 강하게 유도한다. 그리하여 도시에서 성장하며 세류를 통과한다는 것은 속물성의 지배에 놓이거나[17] “최대한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이 남기는 자본주의 절대율”, 즉 ‘교환논리’를 “성장문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18]

ㄱ)“어떤 좋은 일이 있냐? 나도 좀 알자꾸나.”

현이 신기한 듯이 물었다.

“전엔 시들하던 계 탈 날도 기다리게 되고. 기다릴 일이 생기니까 세월도 빨리 가는 것 같고, 하는 일도 신이 나고. 살맛이 다 나는 것 같아.”

영자가 새처럼 즐겁게 조잘댔다.

“뭐라고? 나 때문에 계 탈 날을 기다린다고?”

현이 기성을 지르며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영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1권, 187쪽)

16) “이제 통닭 생색 좀 그만 내. 나 그거 거저 먹은 거 아니니까. 갚아줄게. 튀기지 않은 날 거 한 마리로 갚아줄 테니까.”(54) 비닐장판. 곗돈.
17) 방민호 앞의 글, 279~280쪽.
18) 오자은, 앞의 글, 153쪽.

ㄴ)그러나 가끔 그는 그의 청결하고 편안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이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나에 생각이 미치면서 깜짝 놀라곤 했다. 그는 영자가 눈앞에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그의 생활의 심각한 의존도를 실감하고 두려워했다. 그는 여러 가지를 두려워했다. 그중에도 바보 같은 계집애, 영자가 가장 두려웠다.

"이 바보 같은 계집앨, 그냥 그냥……."

그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곧 때릴 것처럼 손을 쳐들기도 했지만 정작 때리진 못했다. (1권, 202쪽)

그런데 현의 행동은 '탐방자'라는 자기의 위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더 자세히 말해, 현은 '타자'에게 몰입하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행동했다. 인용문 ㄱ)에서 우리는 현이, 영자의 돌봄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은 "영자의 고혈로 그의 실상의 윤활유를 삼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1권, 205쪽)을 깨쳤다. 인용문 ㄴ)은 영자의 돌봄이 점점 현의 '두려움'을 야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은 다만 냉정하게 영자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영자의 공감과 동정을 두려워하며, 일종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남상으로부터 '배신'당한 현이, 다시금 남상의 계급의 인물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현이 일종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이유에 따라 영자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남상 때문에 현은, 타자가 느끼는 거리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경험했다. 현이 영자와 거리를 두는 것은, 이러한 성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이 영자에게 매료된다면, 그것은 '가난을 탐방하는 자'가 '가난한 자'를 미화하는 일의 반복이다. 한편 현이 영자에게 친밀성(약손)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가난을 탐방하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정신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것은 정확히 「도둑맞은 가난」에서 상훈이 '나'에게 저질렀던 일이며, 현이 남상에게 하려고 했던 일이다.[19] 그것은 영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다.

19) 우현주는 "가계도와 같이 자신의 출신을 긍정하는 현에게 가난은 생존의 양태가 아닌 타자의 감각일 뿐이기에 공감의 환대가 불가능"하며, "현은 궁핍과 빈곤을 선택했을 뿐 가난에 대한 감정은 객관화된 감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양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6, 145쪽) 여기서 현이 환대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함부로 타자에게 자신의 주관을 투사(projection)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ㄱ)현은 성혜한테 붙들린 채 고함쳤다. 그가 그만두라는 건 결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만 둬, 그만두라니까. 잘난 척 좀 그만두라니까. 이 바보 같은 계집애야."

현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통곡으로 목이 메어왔다. 그가 알고 있는 그 바보 같은 계집애가 그만큼 잘난 척하기란 도대체 얼마만큼 힘이 드는 걸까? 생각만 해도 뼈가 저렸다. 남을 위한 연민으로 육체적인 아픔까지 경험하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표현은 적나라했다.(2권 67~68쪽)

ㄴ)그의 눈앞에서 빠른 속도로 생명이 사위어가는 환자가 영자라는 걸 알아보고 나니 시간 관념만 혼미해졌을 뿐 아니라 여지껏 익힌 의술도 송두리째 까먹어버려 그는 그가 할 바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의사가 아니었다. 매달려서 꺼져가는 생명을 구걸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보호자일 뿐이었다.(중략)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 환자를 살려주세요."

평소 가깝게 지내고 형, 형하고 따르던 레지던트를 그는 하느님처럼 우러르며 생급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마치 남상이가 현이라는 호칭을 잊어버리고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듯이. (2권, 266쪽)

그런데 현은 영자를 통해 타자와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인용문 ㄱ)에서 현은 간호사 성혜를 영자와 대면시켰다. 이는 현과 영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재조정하는 일이었다. 즉 현은 영자와의 '가까운 사이'를 '먼 사이', 혹은 무관한 사이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현은 영자에 대한 연민으로 '육체적인 아픔'이 느껴지는, 극단적인 공감을 경험했다. 즉 현의 '음모'는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단숨에 압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용문 ㄴ)은 현이 난산(難産) 중인 영자를 환자로서 만나는 장면이다. 여기서 현은 영자에 대한 동정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은 타자를 관찰하거나 평가하고, 혹은 대상화하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 끝에 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괴물단지' 노릇을 그만두고 "고통스럽지만 보람 있는 삶", 즉 "남의 생명과 고통을 위한 헌신"(2권, 272쪽)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현은 타자에 대한 거리감을 상실하고 나서 재생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서사는 일견 과장된 멜로드라마로 다가온다. 무정한 남성 부르주아와 다정다감한 하층민 여성의 관계 속에서 한국 대중서사의 스테레오타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때 현의 서사는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남성이, 자기희생적인 여성을 만나 친밀성의 가치를 각성하는 이야기로 쉽게 읽힌다.

그러나 우리는 현의 '탐방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현은 타자의 공간을 탐방하는 과정에서, 타자와 관계를 맺는 일의 모순을 경험했다. 우선 현은 남상을 통해, 타자의 공간에 함부로 틈입하는 것이 어떠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다. 다음으로 현은 영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떠한 파국을 초래하는지를 경험했다. 현은 이러한 모순을 통과한 다음에야 "남의 생명과 고통을 위한 헌신"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때 현은 변화와 자기구원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은 계속해서 타자의 공간으로 떠나고, 그리하여 타자와 만나고, 실패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의 이동성은, 정확히 성장의 원동력이다.

정리하자면, 현의 이동성은 『오만과 몽상』의 서사적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 첫째, 현은 『오만과 몽상』에서 실제 서울을 횡단하며, 타자의 공간을 탐방하고 있다. 현이 10km나 떨어진 친구의 집에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빈촌으로 가출하지 않았다면, 『오만과 몽상』의 서사는 전개될 수 없었다. 둘째, 현은 물리적 이동을 통해 사회적 탐방을 수행하고 있다. 현의 계급적 지위는 타자를 향해 이동할 수 있고, 또한 관찰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은 유동하는 주체다. 그는 부호의 아들에서 가난한 고학생으로, 자수성가한 의사로 계속해서 탈바꿈한다. 그는 타자에 대해 동정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또한 무관심해지고, 나아가 연대를 결심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현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3. 남상의 월경 : 거짓 염탐과 사보타주

『오만과 몽상』의 서사는 남상이 현에게 절교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남상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그러나 남상은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학력을 갖추는 일이 버겁게 느껴졌다. 남상의 아버지는 “일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은 도배장이”(1권, 46쪽)다. 남상의 어머니는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도 “손은 잠들지 않고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잣 까는 일을 계속”(1권, 19쪽)한다. 즉 그녀는 의식 없이도 노동하는 일종의 기계가 되었다. 남상이 입시를 포기한 것은, 대학 등록금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상의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이었다.

남상은 자신의 계급에게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남상은 중등·고등학교 입시를 통해 현과 같은 학교에 진학했다.[20] 그러나 당장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은, 남상이 학력자본을 위해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남상에게 가족은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

남상에게 사회적 이동성이 가로막혔다는 점은, 그의 공간적 차원에 아로새겨져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남상은 국민학교 때 서울의 도심부에 살았다. 그러나 서울 도심의 판자촌들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망우동으로 이사했다. 이에 따라 남상의 통학거리가 확대됐다. 그래서 남상이 ‘명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 되었다. 즉 남상의 마을에 닥친 일은, 남상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남상은 이동을 통해 사회적 타자와 만나는 역량이 부족하다. 남상은 현의 친구로서 종종 가회동에 방문했다. 그러나 남상에게 현의 집은 “성곽같이 위압적인 집”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현이 남상의 집에 방문하는 것과 다르게, 남상은 현의 집에 방문하며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미다. 거기에 현이 남상 가족의 생활상을 면밀히 관찰했던 것과 달리, 남상은 결코 현의 생활을 엿볼 수 없었다. 현의 집은 도로와 접한 면에는 양옥이 있고, 그 안쪽으로 한옥이 있는 구조의 저택이다. 그래서 “양식의 철대문에서 한식의 솟을대문까지는 경사를 줄인 꼬불탕한 길로 꽤 오래 걸렸다.” 남상은 오직 현의 공부방이 있는 양옥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저택의 내부에는 도달

20) 중학교 입시시험은 1969년에, 고등학교 입시시험은 1974년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는 중등교육 평준화시대”(문교40년사 편찬위원회,『문교 40년사』, 문교부, 1988, 389쪽)로 평가된다. 현과 남상은 이러한 평준화 시대 이전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하지 못했다.

여기서 남상의 이동성과 시각성이 제한된 것은, 비록 남상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현의 집의 공간 질서가 작동한 결과다. 남상이 방문한 양옥은 과거 행랑채가 있었던 자리에 세워졌다. 행랑채는 가옥의 대문 부근에 붙은 주거공간을 의미하는데, 주로 사용인들이 머무르는 용도로 활용됐다. 그러나 해방 후 현의 아버지는 고용인들을 해고하고, 행랑채를 허물어, 그 자리에 양옥을 지었다. 그곳은 특히 현의 공부방으로 사용되는 등, 필수적인 주거 기능 외의 목적으로 활용됐다. 요컨대 남상은 현의 안채나 사랑채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바, 남상은 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현은 자율적으로 타자의 공간에 방문했다. 그에게 이동한다는 것은, 그의 주체적 성격을 드러내는 행위다. 반면에 남상은 타율적으로 이동했다. 그의 이동은 도시공간의 폭력성이 작동한 결과로서, 일상의 재생산 및 사회적 성공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이다. 또한 남상에게 이동이란, 자신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다.

> ㄱ)남상이네 동네가 B동 산비탈로 철거당한 건 남상이가 제대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였다. 가을이었다. 흔히 가을을 이사철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남상이네 동네가 잡은 이삿날은 구청에서 내보낸 계고장에 적힌 기일에 의한 것이지 가을철하곤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이사할 땅 역시 구청에서 정해주었다. 시유지라고 했다. 살던 동네가 철거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도 시유지에 허가 없이 함부로 들어선 동네이기 때문이었다.(1권, 241쪽)

> ㄴ) 새로운 땅은 사람 사는 고장으로부터 동떨어졌을뿐더러 척박했다. 도시의 땅이 척박하다는 건 푸서우기나 낟알을 기를 수 있는 능력하곤 상관이 없었다. 다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의미했다. 그들의 새로운 땅엔 상수도도 하수도도 묻혀 있지 않았고, 샘물도 솟지 않았다. (중략)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연장 운행되리란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그 대신 가끔가끔 시외버스가 섰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정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는 배반감도 느낄 겨를이 없었다.(1권, 248~250쪽)

남상에게 이동성의 곤란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인용문 ㄱ)은 남상의 망우동 집이 철거를 당한 후, 봉천동(B동)의 시유지에 이사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남상은 도시개발에 따른 탈장소(displacement)를 경험하고 있다. 즉 "도시가 확대돼감에 따라 철거민촌은 (...) 단계적으로 외곽 쪽으로 밀려나게 돼 있다는" 원리를 체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외곽'의 동네는 '사람 사는 고장'과는 멀리 떨어진 오지와 다름없었다. 인용문 ㄴ)에서 나타나는바, B동 철거민촌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취사와 위생 등 기초적인 재생산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또한 도시로 통하는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남상의 아버지는 "일거리의 본고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이유로 노동을 포기했다. 즉 B동 철거민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막벌이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노동자에게 '사람 사는 고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점은, 경제적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남상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여기서 남상에게 이동성이란, 소외의 의미로 경험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남상이가 그 눈부시게 발전한 동네에서 사장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사장 집만이 3년 전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가 아니었다. 대충 이 근처려니 싶어서 두리번대다가 정원이 넓은 어느 신축 양옥의 대리석 문주에 붙은 나광대란 문패가 눈에 띄었다. 나광대란 사장의 이름이었고 흔한 이름이 아니었건만도 긴가민가했다. 저택과 정원의 규모가 으리으리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작은 창살에 입을 바짝 대고 큰 소리로 통성명했다. 소리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대답했다. 천막지 만드는 서울화학 나광대 사장님 댁 아니냐고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소리는 그렇다고 간략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그는 항의했다. 소리는 재차 모른다고 대답했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대화한다는 건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었다.(1권, 129~130쪽)

한편 남상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있어서도, 이동성의 힘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했다. 위 인용문은 이러한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남상은 입대 전 자신이 공장장으로 일했던 서울화학 사장 나광대의 집을 찾았다. 그는 나광대에게 재취직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3년 사이 나광대의 사업이 번창하자, 공장이 있던

터는 '신축 양옥'으로 재구축됐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남상은 "작은 창살에 입을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삽화는 남상에게 있어서 타자의 공간을 방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상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염탐꾼'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은 남상이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제안받은 자리다. 그것은 자본가의 편에서 동료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훼방함으로써, 홀로 면천(免賤)하는 길이었다. 이것은 남상이 현의 계급으로부터 습득하고자 했던 "세상 돌아가는 낌새에 대한 남다른 감각"(1권, 25쪽)를 내면화하는 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남상이 이러한 '염탐꾼'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인 태업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남상은 표면적으로는 타자의 계급을 선망하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계급에 대하여서는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상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타자의 계급에 대해 위협적이며 적대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모순은 총 세 가지 양상을 통해서 나타났다. 첫째, 남상은 B동 철거민촌 이웃들에게 등 돌리고 홀로서기만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남상은 B동 철거민촌의 문제를 외부로 전파시키는 저항적 주체의 역할을 했다. 둘째, 남상은 나광대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남상의 행동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셋째, 남상은 나광대의 '편'이 되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남상은 서울화학의 부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첫 번째로 B동의 문제를 살펴보자. 여기서 남상은 새롭게 이사한 B동의 이웃에게 무심히 굴었다. B동에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적인 위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겨울이 닥쳐오자 배설물의 처리가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땅을 판 뒤 "거적이나 비닐 조각을 엉성하게 두른"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뒷간은 몇집이 어울러서 하나씩이었기 때문에 누런 탑이 자라는 속도를 걷잡을 수 없었고, 그것을 치우는 문제는 서로 미루었기 때문에 시비가 잦았다." 즉 B동은 도시 인프라가 미비한 데 반하여 인구밀도가 높았고, 이는 위생은 물론이거니와

인정(人情)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상이를 앞세워서 관(官)에 진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상은 다만 "뒷간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자물쇠까지 채워 놓고 남상이네만 전용으로 쓰기 시작했다."(1권, 254쪽) 즉 남상은 이웃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나아가 자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의 이동성을 제한했다.

> 그러나 남상이는 묵묵히 자기네 똥지게는 자기가 지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고개 너머와는 반대로 벌판으로 내려가 얼어붙은 개천에다 그걸 버렸다. 해토하면 어디론지 흘러가겠지. 수세식 변소가 별건가. 똥을 강물로 흘려 보내는 거지. 그는 삐딱하게 똥지게를 지고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중략) 너도 나도 남상이가 하는 대로 똥을 얼어붙은 개천에다 버리기 시작했다. 해토만 하면 그 똥물이 어디로 흘러 어디서 또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지만 당장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 (1권, 261쪽)

그런데 남상은 은밀한 방식으로 부르주아 계급 및 그들을 비호하는 국가권력을 곤경에 빠뜨렸다. 위 인용문은 남상과 그의 이웃들이 B동의 개천에 배설물을 투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남상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B동 일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동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남상을 모방하여 개천에 배설물을 버려댔기 때문이다. 이 똥들은 봄이 되면 개천의 물에 녹아들고 악취나 전염병 등 위생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다만 남상의 동네뿐만 아니라, 물줄기를 타고 서울의 넓은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상과 그가 속한 계급의 단견(短見)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 같다. 철거민촌의 문제를 바깥으로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철거민촌을 고립시키고 비가시화하려는 개발 당국과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B동 철거민촌이 위치한 산비탈의 맞은편에는 "깨끗한 중류의 주택가"가 있다.[21] 이때 철거민촌과 고급 주거지역이 산비탈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은, 도시개발 당국이 두 계층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뒤에 이어지는 전

21) 이러한 양상은 불균등발전의 복잡한 패턴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B동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외 지역으로서, 자동차를 통해 이동성을 확보한 중산층에게 매력적인 입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한 계층들에게는 '사람 사는 고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입지가 된다.

개에 따르면 '중류의 주택가'의 주민들은 "공들여 고급 주택가로 키운 자기네 동네의 이면에 하필이면 철거민촌이 들어선 걸 마치 자기네 등더리에 몹쓸 부스럼이 돋아난 것처럼 끔찍해하면서 몸서리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혐오는, 철거민촌을 가려주는 산등성이 없었다면 한층 강화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 산등성이 없었다면, '중류의 주택가'에 대한 철거민촌 주민들이 분노는 통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곳 동네는 철거민촌과 달리 상하수도 시설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었다. 따라서 식수와 오수처리에 있어 일상적인 곤란을 겪고 있었던 남상의 이웃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컸다. 그리하여 B동 일대는 산비탈을 가운데 두고 빈부의 경관으로 분할되었다. 즉 불균등발전의 공간의 극명한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등공간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었다. B동이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빈부의 공간으로 나뉘었다는 점은, 곧바로 계급 충돌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B동의 주민들은 배설물들을 "고개 너머 주택가 예쁜 양옥집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행(非行)은 "몹쓸 열병"처럼 전염성을 가지고 확산됐다. 이는 "양쪽 동네가 대판 패싸움이" 붙는 원인이 되었다. 파출소 순경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편네들을 입건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마는 각서를 받는 대신 저쪽 관용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패싸움을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이렇게 '똥싸움'은 종식됐으나, 이후 사람들은 "남상이가 하는 대로 똥을 얼어붙은 개천에다 버리기 시작했다." 즉, 똥문제는 이제 B동의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 개천과 강줄기를 따라 광역(廣域)으로 확장했다.

여기, 남상의 이웃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바로 스케일 점핑(scale jumping)이다. 스케일 점핑이란 작은 스케일의 문제를 넓은 스케일에서 가시화하는 정치적 실천을 의미한다.[22] 도시개발 당국은 철거민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며, '중류의 주택가'의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둘러싼 경계를 강화하여 왕래를 차단할 생각에만 골몰했다.[23] 그런데 남상의 이웃들은 이러한 차별에 순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촌의 쓰레

22) 스케일 점핑의 개념은 닐 스미스가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라 공원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도심의 거리에서 가시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안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Neil Smith, "Contours of a Spatialized Politics: Homeless Vehicles and the Production of Geographical Scale", *Social Text*(33), 1992, pp.54-81를 참조.

23) "이런 얘기를 듣는 어른들은 진저리를 치면서 다시 그런 데 가면 혼날 줄 알라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문둥이나 유괴범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253)

기통에 자신들의 배설물을 투기하고, 나아가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하천을 오염시켰다. 그리하여 지역의 문제를 도시와 국토의 규모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남상이는 이러한 저항의 실질적인 전위였다. 사람들이 하천에 배설물을 투기한 것은 남상이를 모방하는 것이었다. 중류의 주택가에 배설물을 투기하는 것 역시 남상을 모방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남상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마다 산등성이를 넘는 일에 참여했다.[24] 즉 남상은 표면적으로는 이웃과의 연대를 거절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상은 결과적으로 자기 계급을 소외시키는 힘들에 대하여 무정부적인 저항을 보여주었다.

> 공장으로 입주한 후 남상이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공원들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었다. (중략) 자취방이나 하숙방에서 노름판을 벌이는 걸 들키면 판이 적든 크든 호통을 쳐서 떠엎고는 두 번 다시 노름을 했다가는 사장님한테 일러서 당장 해고를 시킬 거라고 공갈을 쳤다.
>
> "내 말 한마디면 느들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사장님은 내 말이면 전적으로 믿게 돼 있으니까."
>
> 이렇게 그가 나 사장과 특별한 사이라는 걸 감추는 대신 과시했기 때문에 도리어 아이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 그건 남상이가 미리 계산한 역효과였다. 그걸 믿지 않는 대신 주책없이 사장님까지 팔아가며 저희들을 이롭게 해주려는 그에게 친근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복실이는 그때 상처가 다 아물어 붕대를 풀고 있었지만 흉한 흉터가 남았을뿐더러 힘줄이 오그라붙어 조막손이가 돼 있었다. 그걸 제대로 성형을 해주려면 적지 않은 치료비가 들 터였다.
>
> "자넨 도대체 내 편인가? 아이들 편인가? 비용은 비용대로 갖다 쓰고 그까짓 조무래기들 여론 조작 하날 제대로 못 해? 사업이 커지다 보니 나도 남들처럼 내 사람 하나쯤 거느리려고 했더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원 사람이 변변치 못하긴……." (중략)
>
> "사장님하고 저하고 짜야죠. 전 어디까지나 사장님 사람이니까요. 아시겠어요? 이번 복실이 건에 사장님이 슬쩍 저한테 져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장님으로부터 복실이 치료를 따내는 거죠. 그건 덕환이도 못한 일이고, 아이들이 절실히 바라는 일이고 또 저를 믿고

24) B동 철거민촌 사람들은 남상 일가의 똥 처리법에 대해 궁금해했고, 남상의 어머니는 "고개 너무 주택가 예쁜 양옥집 쓰레기통에 버렸노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B동 철거민촌의 "여편네들이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열망"과 결합하여 '똥사태'를 촉발했다.

위임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장님의 인품과 회사의 위신에 관한 일이기도 하구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복실이 치료는 마땅히 회사 측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2권, 77~79쪽)

남상의 표리부동한 행동의 두 번째 양상은, 서울화학 공장에서 생긴 일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남상은 자본가의 공간에 침투하여, 그들의 사업을 교란했다. 위 인용문은 남상이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産災)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다. 나광대의 공장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복실이란 노동자가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나광대는 이것을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위장해,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이때 남상은 나광대를 설득하여 복실의 치료비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남상은 우선 치료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나아가 자신이 복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공원들의 인망을 얻어, 노조결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남상은 자신이 오로지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한다. 즉 이 모든 일들이 나광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의 편"에 선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상의 이기적인 행동은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위 인용문에서 남상은 나광대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득이라는 모순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나광대는 남상의 이러한 술책을 "높은 단수"로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대체 어떠한 입장인지 혼란스러웠다.[25] 이러한 양상은 덕환과 복실을 해고할 때 반복됐다. 남상은 덕환과 복실이 아이를 갖자 공장 내 '풍기문란'을 구실삼아, 두 사람을 모두 해고했다. 이것은 공장주 나광대의 입장에서도 몰인정한 행위로 인식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상은 기이한 협상을 벌였다. 그는 우선 나광대에게 "두 사람에게 계산해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에서 복실이의 치료비를 떼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해고당한 덕환이 노동청에 제소하자, "그런 데 드나드는 일을 죄짓고 경찰서나 드나드는 일만큼이나 겁을 먹고 싫어"하는 나사장을 대신하여 협상에 참여했다. 남상은 결과적으로 "타협을 본 한도 내에서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했다. 이것은 덕환에게 "형님이 중간에서 애 많이 써서 이만큼이라도 받게 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25) "아, 알아들었네. 이제야 알아듣겠어. 자네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친구가 도대체 그런 높은 단수는 어디서 배웠나?"

이러한 덕환의 반응은, 그가 “남상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수룩한 구석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즉 속아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남상이 아니더라도, 덕환과 복실은 해고의 위험이 높았다. 1970년대 “여성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단의 각공장들은 어느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남녀문제로 남에게 알려지면 가차없이 해직시키는 구실로 삼기 때문에 스캔들은 곧 일자리를 잃는다는 불문율이 지배”하고 있었다.[26] 그렇다면 나광대는 남상이 아니더라도 덕환과 복실의 해고를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광대가 직접 덕환과 복실의 일을 처리했다면, 남상보다 훨씬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광대는 복실의 사고를 개인적인 실수로 처리했던 전적이 있다. 그래서 서울화학의 노동자는 나광대를 ‘사실 네다바이꾼’으로 불렀다. 게다가 나광대의 아내는 복실이 퇴원 치료를 받는 동안, “은혜를 알면 공밥 먹을 생각 말고 성한 한 손으로 이것저것 집안을 돌보라고”(1권, 302쪽) 주장한 만큼 몰인정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남상은 실제로 사용자 나광대의 타협과 양보를 끌어냈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장은 그가 고수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는 조만간 밀려나리라는 걸 예견한 것 같았다.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시설의 확충, 새로운 기계의 도입도 불가피했지만, 큰돈이건 잔돈이건 제 주머니에 찔러넣고 제 주머니에서 내주는 구멍가게식 경영 방식을 탈피하는 것도 시급했다.
>
> 나 사장은 자기 사업이 마치 타의에 의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그의 주먹구구식 경영 방식에 연연했지만 시류를 아주 안 타지는 못했다. 우선 나 사장은 남상이에게 영업권을 주어 남대문 시장 일대의 도매상과 지방을 뛰게 했다. 듣기 좋고 부르기 좋아 정해진 부서도 없이 강 과장이라 부르던 게 비로소 정식 영업과장의 직책이 주어졌다. (중략) 종당엔 남상이가 쥐고 있는 거래선만 해도 작은 공장의 생사가 달릴 지경에 이르른지라 나 사장은 꼼짝없이 남상이의 횡포를 당할밖에 없었다.(2권, 87~88쪽)

남상의 이중적 행동의 마지막 예는, 그가 서울화학의 성장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26) 「공순이는 과연 타락했는가 도색조의 선정적 보도는 보다 큰 사회 문제를 은폐한다」, 『동아일보』 1974년 2월 11일.

는 그 몰락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나광대는 본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이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 없었다. 공장의 규모가 커지면 “가족적인 분위기를 깨고 노조 바람이 불어닥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2권, 83쪽) 그런데 남상은 서울화학이 ‘시류’를 타고 ‘성장’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남대문 시장 일대의 도매상과 지방”을 뛰어다니며 ‘영업’을 했고, 그 결과 많은 거래선을 확보하여 서울화학의 규모를 키웠다.

그리고 서울화학의 성장은 정확히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서울화학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들의 생산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서울화학은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노사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 이윽고 “원료를 국산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 후부터 천막지 공장도 난립해서 덤핑”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는 생산관계의 혁신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과열된 경쟁 상황으로 몰아넣고, 붕괴를 유도했음을 뜻한다.

여기서 남상은 서울화학의 성장에 기여한 만큼, 몰락에도 기여했다. 그는 영업에서 수단을 발휘함으로써 서울화학이 지역 규모에서 광역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 서울화학의 어음할인을 담당함으로써, 회사의 거래 규모를 더욱 확장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은, 서울화학의 몰락의 낙차를 가중시켰다.

정리하자면 남상은 부르주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동화되려는 주체로서 자신을 표현했다. 그러나 실제로 남상은 부르주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그들의 활동을 훼방했다. 이때 남상은 스파이와 유사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상은 노동계급의 사람이지만 ‘남사장의 편’으로서 행세한다. 그러나 남상의 행동들은 결국 하층계급의 입장을 대표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나아가 남상의 행동들은 부르주아 계급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그들의 자본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완)

토론문

오 자 은
덕성여자대학교

안녕하세요, 유인혁 선생님 발표문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불균등발전의 도시공간과 이동성의 주체: 『오만과 몽상』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오자은입니다. 그간 유인혁 선생님께서 지속해오신 서울이라는 시공간과 장소성의 문제, 그리고 이동성의 주체에 대한 최근의 작업들을 따라 읽어온 독자로서 역시 선생님의 이번 발표문도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그리고 이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제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전체적인 논지에 이견을 제기한다기보다 작품 해석 차원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들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는 현을 "서울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횡단하고 있는 이동성의 주체"로 보시고, 남상에 대해서는 타율적으로 이동했지만 부르주아가 허락한 염탐꾼의 위치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인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인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두 인물의 주체화 과정에서 '이동성'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동'은 상당히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불균등발전의 지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의 '이동'을 선생님께서는 (현대소설 속의 인물들은 대개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서사의 전개에 따른 '이동'을 하게 되어있다고 볼 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매우 물리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 설정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의 '이동'을 '지리적인 경계넘기'나 '물리적인 이동'으로 확정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 다소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현이 애초에 남상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가회동에서 망우동까지 먼 거리를 왕래했다

는 점은 선생님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지만, 그 외에 이 소설에서 드러난 '이동'을 '지리적인' 월경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존의 연구사에서 말하고 있는, '현의 쪽방촌 가난 탐방' 정도로도 크게 무리 없이 작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현의 '이동'에 비해 남상의 '이동'이 이 발표문에서 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남상의 이동은 그가 살던 마을이 철거되어 B 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사실 '이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과 남상이 수행하는 이동성이, 차이와 불공정을 넘어서는 실천의 기초가 되었다"는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 다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현의 '실천' 과정에 대해 말씀하시며 현이 영자와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는 이유를 "현이 일종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이유에 따라 영자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음"으로 분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상의 배신을 통해 타자의 거리감을 무시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은 현이 그러한 결과를 영자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녀를 의식적으로 멀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찰의 결과라는 것은 다소 과잉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자는 일단 '남녀관계'라는 맥락 속에 놓여있는 여성이며, 남상과는 달리 거의 무조건적으로 현에게 헌신하고 '감정'을 기대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상의 (의도치 않은) 저항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의 후반부에서 선생님께서는 "남상의 이기적인 행동은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남상의 저항성을 너무 강조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남상은 나광대의 공장에서 사측 잘못으로 조막손이가 될 위기에 처한 여공 복실이를 도와주는 척 기만하고, 한 푼을 아끼기 위해 대학 병원에 보내지 않으려는 나광대 사장을 도와 그녀를 회복 불능의 장애인으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는 남상이 서울화학의 성장에 참여하면서 그 몰락을 주도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실 오히려 남상은 (그로테스크한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자본주의 사회의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나광대 사장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광대 사장은 남상이도 모르게 일부러 부도를 내버리고 자신은 재산을 챙긴 채 도주함으로써 종국에 남상이를 파탄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댐 건설과 개발 난민의 서사

: 공선옥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조 윤 정
KAIST

1. 국가 발전과 댐 건설의 내러티브
2. (비)가시성의 정치에 맞서는 글쓰기
3.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간적 기억 상실
4. 합법과 불법, 그 불확실성 위에 놓인 개인
5. 결론

1. 국가 발전과 댐 건설의 내러티브

현재 우리나라에는 80여 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다. 댐은 하천의 유량을 조절하고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공 저수지로서 기능한다.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댐은 세계 수준의 공학, 보도 가치를 지닌 장관을 드러내 보이는 상징적 기념물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댐의 경제적 효용성이나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댐 건설을 국가 발전과 동일시해 온 정치적 논리와 맞닿아 있다. 진보라는 미명하에 이뤄졌던 댐 건설은 국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로 선전되어 왔다.

9년여 동안 지속된 논란과 갈등 끝에 2000년 6월 동강댐 건설 계획 백지화가 선언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댐 건설은 여전히 찬반논란의 대상으로 미디어에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개발이나 주민과의 수익 공유 등 댐의 지역·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찬성 측의 논리가 한 축을 차지한다. 그리고 자연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 주민의 생존권 위협을 내세운 반대 측의 논리가 맞선다. 최근에는 신재생, 친환경 등의 수식어를 단 양수발전소 개발을 앞두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러 지역을 후

보지로 선정하여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은 댐 건설을 정부와 지역민 사이의 설득과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구도하에서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현대적이고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개발 세력과 개발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감상적인 저항 세력' 사이의 전쟁'[1]이 된다. 그리고 댐 건설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 미래를 내다보는 국책사업으로 미화할수록 삶의 터전을 잃고 가난한 원주민에서 더 가난한 이주민이 된 사람들은 쉽게 잊힌다. 특히, 댐 건설은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하기에, 스펙터클하고 폭발적이고 극적인 장면으로 형상화하기 어려운 위협이다. 이 인식할 수 없는 위협을 '이해'하려면 과학자나 창작자의 증언 작업을 통해 그 위협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apprehensible)'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2] 그러나 가난한 공동체들에서 그 폭력의 원인, 영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는, 부지불식간에 퍼져나가는 위험, 시간적 지연,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생존 자체가 기업형 언론의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다층적 비가시성에 맞서서 중재 역할을 해낼 수 있다.[3]

댐 건설은 자연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빈곤을 더 큰 빈곤으로 만든다.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여 관개 시설을 마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축적된 물, 에너지, 자본이 국민 전체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것이 아님은 여러 나라의 사례로 입증되었다.[4] 이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 큰 댐에 대한 반대 운동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풍경에 대해 증언을 제공하는 작가-활동가의 내러티브적 상상력이 부각되었다.[5] 우리나라에서도 댐 건설이 야기한 실향민의 문제는 문순태의 「징소리」 연작(1978~1980)을 통해 서사화되었다. 작가는, 1970년대 장성댐 건설로 사라진 방울재를 떠난 사람들의 아픔을 징소리의 환상, 즉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한 맺힌 울음소리"[6]로 표현했다. 이 때만해도 댐 건설은 6.25 전쟁처럼

1) 아룬다티 로이, 최인숙 역, 『생존의 비용』, 문학과지성사, 2003, 30면.
2) 롭 닉슨, 김홍옥 역,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39면.
3) 위의 책, 41-42면.
4) 패트릭 맥컬리, 강호정 외 9인 역, 『소리 잃은 강: 대형 댐의 생태와 정치 사회학』, 지식공작소, 2001, 265-299면; 아룬다티 로이, 앞의 책, 36면.
5) 롭 닉슨, 앞의 책, 257-296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감당해야만 하는 숙명으로 그려졌다.

그 후, 1997년 동강댐 건설 반대가 본격화되었고 이 전국적인 환경운동에서 230여 명의 문인이 '동강 살리기' 운동 참여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때 8명의 시인과 소설가가 동강을 모티프로 한 시, 소설, 수필을 모아 『동강의 노루궁뎅이』[7]라는 책을 엮었다. 이 작품집 간행에 참여한 문인들은 저작권료의 10%를 환경운동기금으로 내놓았다. 또한 출판사는 책이 팔릴 때마다 판매 수익금 5%를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다.[8]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안겨주는 두려움·불길함·어두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잠재적 폭력과 그 폭력에 가려 보이지 않던 존재들을 전면으로 끌어내고자 했다. 자연과 멀어지는 삶이야말로 가난임을 일깨운 작가들의 이 같은 활동 전략은 발전과 진보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부패와 거대 언론의 편파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최성각의 소설 「동강은 황새여울을 안고 흐른다」는 댐 건설을 둘러싼 국가 발전의 내러티브가 앞세워온 합리적, 진보적 개발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

동강댐 건설 계획 무산 사례는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설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댐 건설 계획은 계속되고 있으며, 수몰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몰 지역 주민의 이주 처리 문제는 댐 건설 반대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만이 댐 건설 지역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인식하는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 공선옥이 2000년대 발표한 소설 「정처 없는 이 발길」(2001)과 「먼 바다」(2003)는 그 지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970, 80년대 문순태의 소설이 댐 건설에 따른 실향을 역사적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당대 분위기를 담고 있다면, 2000년대 공선옥의 소설은 댐 건설 반대 투쟁이 일단락되고, 보상과 이주가 쟁점이 된 때를 중심에 둔다. 무엇보다 이 소설들은 이주자가 아니라 '이주할 수 없는 자'의 삶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금까지 두 편의 소설이나 이 소설들이 실린 소설집은 '가난과 소외' 그리고 '가난

6) 문순태, 「무서운 징소리」, 『징소리』, 소명, 2021, 147면.
7) 신경림 외, 『동강의 노루궁뎅이』, 베틀북, 1999.
8) 박해현, 「문인 8명 공동 작품집 '동강의 노루궁뎅이'」, 『조선일보』, 1999. 6.20.

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공선옥의 생태의식은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위기'를 의식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기보다는 '삶의 위기'를 겪고 그 대안으로 '흙'을 지향하는 '인간다운 삶'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었다.[9] 정해진 곳 없이 쫓겨 다녔던 이들은 저개발지로 스며드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에, 공선옥의 소설에서 유랑은 파행적 개발이 드리운 차별과 소외이자 거덜 나고 훼손된 삶의 표상으로 의미화되었다.[10]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삶의 위기는 분명 산업화에 기반한 개발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발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 그중에서도 댐 건설과 그로 인한 인간 생태 위기를 다룬 두 편의 소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처 없는 이 발길」(『창작과 비평』, 2001)이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라는 점, 「먼 바다」(『실천문학』, 2002~2003)는 댐 건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좀 더 확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분석될 여지가 있다.[11]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두 편의 작품 이외에 수몰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 문제를 90년대 노동자의 현실과 겹쳐놓았던 소설 「우리들의 고향」(1995), 그리고 댐 건설 관련 산문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내세운 개발 아젠다의 사회문화적 피해-불안하고 불온한 개인들의 양산-를 추적하려는 작가의 활동에 의미 부여할 것이다.

2. (비)가시성의 정치에 맞서는 글쓰기

공선옥 작가는 단독으로 6권의 산문집을 출판했다. 그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연을 중심에 둔 산문을 쓰기도 하지만, 일부러 먼 길을 떠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한다.[12] 2002년 공선옥은 『월간말』

9) 김미영,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24,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98면.

10) 김은하, 「풍찬노숙의 사회와 돌봄의 마음: 공선옥, 유랑가족」,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5. 5, 369면; 서혜지, 「가난한 사람들의 유랑과 가족의 해체: 공선옥의 『유랑가족』을 중심으로」, 『비평문학』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201면.

11) 두 작품은 이후 소설집 『멋진 한 세상』(2002), 『유랑가족』(2005)에 각각 수록된다.

12)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작가 공선옥은 '민중의 소리'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 「수북통신」을 연재했다. 그가 이 연재물을 통해 전한 소식은 농촌에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업체, 아파트 개발 열풍으로 밀려난 고향의 풍경, 해고노동자의 투쟁, 외국인 노동자의

기획으로 '마흔에 길을 나서다'라는 연재 기사를 쓴다. 전국 각지를 돌며, 풍경과 사람 그리고 시대의 상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는 섬 아이들, 강원도의 약장수 할머니,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미선이와 효순이 가족, 봉화의 화전민 마을 사람들, 가리봉의 노동자들을 만난다. 작가는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노인, 여성,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만나 그들이 겪는 고난과 슬픔을 들여다본다. 그는 누군가 알리지 않으면 시선의 정치에서 배제될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세상 밖에 드러낸다. 이로써 저만치 동떨어져 외재화한 존재로 취급되어 온 사람들에 대한 무심함이 그들에겐 삶을 육박해오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일깨운다.

2005년에 작가는 『사는 게 거짓말 같을 때』를 출간한다. 공선옥은 이 산문집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난은 없고 빈곤만이 남아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같은 처지의 이웃끼리 인심을 나누는 '숨 쉴 구멍'이 있는 가난에 비해,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생계를 도모하며 살 수 없는 구조인 삭막 그 자체를 뜻한다.[13]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개발과 발전의 역사란 "가난한 사람들 흩어놓기의 역사"[14]라고 꼬집는다. 이 때문에 가난은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난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작가는 발전의 내러티브가 내포한 지배적 시선의 폭력성을 폭로한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작가인 '나'는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말 걸기의 구조를 만들고, 타자의 온갖 속성과 만난다. 이 '누구'란 질문은 나에게 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혹은 알려질 수 없는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증한다.[15] 작가는, 자기를 설명할 언어보다 자기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언어에 신음했던 이들의 말하기를 보존하려 한다. 그가 「작고 여린 것들을 위하여」라는 산문에서 "산업화 시대의 관성으로, '건설의 쇠망치소리'에 고무되던 시기에 형성된 마인드로 작고 여린 것들이 내는 소리에 귀를 막고만 있을 것인가"[16]라고 던진 질문은

삶 등이다.

13) 공선옥, 「가난과 빈곤」, 『사는 게 거짓말 같을 때』, 당대, 2005, 91-92면.

14) 위의 책, 92면.

15)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57-58면.

16) 공선옥, 「작고 여린 것들을 위하여」, 앞의 책, 102-103면.

그 문제의식을 집약한다. 이 질문은 산업화 시대부터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변으로 밀려난 빈자들이 생존 환경을 위협하는 건설의 정치로 인해 비가시성과 기억 상실이라는 이중적 악순환에 갇혀 있음을 드러낸다.

공선옥의 글쓰기는 문학적 형식과 사회 환경적 변화 사이의 복잡한 접점에 관한 탐구에서 비롯한다. 그의 증언력과 상상력은 공장, 농촌, 달동네 등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인 소설 「정처 없는 이 발길」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17] 그가 사진작가와 함께 찾은 전라도 진안에서 만난 '최한생' 씨는 전북 진안군 용담댐[18] 수몰 예정지에 사는 소작농이다. 작가는 수몰지에서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했던 '최한생' 씨와의 만남을 산문 「가을, 진안, 최씨」에 기록해 두었다. 그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신문기사, 지역 보고서, 논문 등 용담댐 건설 반대 투쟁 문서에는 기록될 수 없었던 존재이다. 댐 건설과 관련해 최하층 주민에 대한 문화적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한 사회과학 논문조차 익명의 집단이나 통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8월 용담댐 건설 계획이 확정되자, 주민들은 1989년 5월 용담댐 결사 반대 진안군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26일 용담 다목적 댐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서, 용담댐 관련 문제는 이주 및 보상 대책 문제로 전환되었다. 다음의 인용문 (1)은 당시 용담댐 관련 신문기사이다. 주민 이주와 관련하여 가짜 보고서가 만들어진 정황과 주민 보상비 과다 지출을 문제 삼는다. 인용문 (2)는 용담댐 건설 정책 집행에서 주민 불응에 관한 연구 논문의 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댐 건설에서 주민 불응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3)은 현재 일반인들이 당시 용담댐 건설 반대 투쟁에 관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인 디지털진안문화대전의 '경과'와 '결과' 부분이다.

> (1) 군은 전체 수몰민의 52%가 집단 이주를, 48%는 자유이주를 희망한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도에 보고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해 마치 모든 수몰민들이 이주

17) 이 작품이 진안의 '최한생' 씨와의 만남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은 작가가 「정처 없는 이 발길」을 수록한 『멋진 한세상』의 후기에 밝혀 놓았다.
18) 산문 「가을, 진안, 최씨」에는 '용당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진안에 건설된 댐의 명칭은 '용담댐'이기에 정정하여 썼다.

를 원하는 것처럼 꾸몄다.[19]

민자당 전북지사후보추천대회에서 후보로 추대된 강현욱 전농림수산부장관은 “새만금 간척 사업과 용담댐 건설 사업 등 지사 시절 착수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북이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대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다짐.[20]

전북 진안 용담댐(공사기간 90~99년)은 사업 초기의 공사비 예상액이 3천 5백 5억 원이었으나, 댐과 터널의 위치가 변경되고 주민 보상비가 상승하면서 금년 4월 수정치는 1조 2천 3억 원으로 3.4배나 높아졌다.[21]

(2) 응답자의 배경 중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 거주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일수록 불응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수몰민들은 현거주지에서의 경제적 생활에 불만이 없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댐사업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짊어져야 할 경제적 및 심리적 위험부담 때문에 불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

(3) 주민 내부에서도 댐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투쟁 위원회의 입장과 충분한 보상을 받아내자는 대책 위원회의 입장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되면서 쟁점은 보상 문제·이주 대책·이주 단지 조성 등으로 전환되었다. 오랜 갈등 끝에 1997년 8월에 주민과 수자원 공사가 합의함으로써 보상과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8월에 주민과 수자원 공사가 합의함으로써 댐 건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용담댐은 정상 가동 중이고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의 이주도 완료되었다.[23]

(1)은 진안군의 군수의 지시에 따라 1992년 읍면직원들이 수몰민의 의견을 조작하고 보도한 사건, 용담댐 건설 의지가 정치인의 자긍심을 상징하고 지역 발전의 기념

19) 「진안군 수몰민 실태 조사 조작」, 『한겨레』, 1992. 10, 17.
20) 김광오, 「“지역발전” 호소 세몰이 시동」, 『동아일보』, 1995. 5. 16.
21) 김기훈, 「대형 국책사업 “세금 쏟아붓기”인가」, 『조선일보』, 1997. 5. 7.
22) 박동석, 「지역정책사업집행에서 주민불응에 관한 연구: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권 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7, 55면.
23) 용담댐 건설 반대 투쟁에 관한 개요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작한 향토문화전자대전 중 ‘디지털진안문화대전’ 참고. 이성호, 「용담댐 건설 반대 투쟁」, “디지털진안문화대전”, 검색일 2021. 10. 11. http://jinan.grandculture.net/jinan

비로 작용했던 일, 1997년 당시 용담댐 건설 보상 증액의 규모를 알려준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수몰민들이 공사 초기에는 공무원의 조작 행위나 탁상행정을 상대로 생존권 투쟁을 벌여야 했고, 후기에는 보상금을 노리며 공사를 지연하는 불응 집단이라는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인 (2)를 보면,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로서의 불응 이유가 부각될 뿐, '떠나지 못하는 처지'로서의 불응 원인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논문은 '공용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수몰민들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수몰지에서 소작농으로 살아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최하층민의 상황, 생존권 투쟁 중에도 주민 내부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위계나 갈등의 상황 등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주민을 토지 소유자로, 불응 집단을 한국 특유의 정적 공동체로 상정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3)은 해당 지역의 문화를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집대성한 온라인 지식백과사전으로, 댐 건설 반대 투쟁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인용문이 담긴 글의 말미에서 이 사건의 의의는 "정부의 밀실 행정·관 주도의 일방 집행·주민 참여 배제 등에 대한 주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권리 회복 투쟁"으로 정리된다. 주민과 수자원 공사의 극적인 합의, 사업의 정상적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정리는 주민과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 상황에서 주민 집단을 온전한 주체로 세우고, 둘 사이의 대립이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만든다.

공선옥의 산문은 댐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나 오해의 해소가 소수의 개인을 지운 채 일어난 일임을 일깨운다. '최한생' 씨와의 만남에서 작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의 온기"가 없는 "나간 동네"의 풍경이다.[24] 이때의 온기란 마을 공동체, 생태계 공동체가 뿜어내는 생기일 것이다. 포클레인이 집을 부수고 전기가 나간 마을은 치안조차 담보할 수 없는 버려진 장소이다. 이제 곧 물이 들어찰 마을에서 "안전대피를 한 사람들"과 달리, 돈이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최한생 씨 부부는 안전으로부터 낙오된 존재다. 공선옥은 버려지고 잊힐 그들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24) 공선옥, 「가을, 진안, 최씨」, 앞의 책, 35면.

수몰보상금은 다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숨부터 먼저 내쉰 뒤에 천천히, 어눌하게 말하는 것이다.

"보상금 받은 것은 전부 농협 빚 갚는 데 써버렸구만요."

그가 가진 것이라곤 백여 평 되는 집터와 낡은 슬레이트집이 전부였다. 그는 분명 농사꾼이긴 했지만 소작농이었다. 이녁 이름으로 된 번듯한 논밭이 없었기에 집에 대한 보상금은 농협 빚 갚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생활비만 남았다. 그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갈 곳도 없었다.[25]

신문기사에서 공개한 보상금의 규모, 논문에서 댐 건설 사업 불응 요소로 강조한 토지 소유권자의 경제력과 정적 기반, 문화사에서 정리한 투쟁의 극적 합의나 정상적 사업 추진 등 공적 문서의 내용과 최한생 씨의 삶은 거리가 멀다. 현실에 기반한 작가의 증언은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 배고픔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겪는 처절한 배고픔을 담고 있다. 느리고 어눌한 토착어와 한숨 섞인 목소리는 포클레인의 굉음이나 화려하게 장식된 댐 건설 담론과 대척점을 이룬다.

작가는 산문의 마지막에 최한생 씨가 마지막 철거일을 앞두고 "소주병과 농약병을 양옆에 끼고"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썼다. 생존을 향한 절박함은 집단적 이상보다 앞선다. 노골적인 물리적 지배력 앞에서 댐 건설의 위험은 기업형 언론이나 학계가 주목하지 않는, 뒤처지고 낙후한 개인들에게 떠넘겨진다. 공선옥은 최하위 계층의 일상적 공포를 전면에 부각하여 국가 개발과 테크노크라시 담론이 조장한 망각의 힘을 거스른다.

3.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간적 기억 상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물결 속에서 창출된 국가 발전의 내러티브는 댐 건설을 선의에 기반한 근대성의 스펙터클로 보게 한다. 댐 건설을 둘러싼 발전 담론은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뿐 아니라, 노동 시장과 국가 발전 개념에 비추어 쓸 데 없는 존재인 '잉여 인간'을 만들어냈다. 국가 개발의 내러티브와 관련해 '잉여 인간'으로 재규

25) 위의 책, 37면.

정된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생태계의 계절적 변화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지와 맺는 관계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지만 법적으로는 비공식적이다.[26] 따라서 그들을 국가 개발 내러티브로부터 상상적으로 추방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작가 공선옥은 일찍이 소설집 『내 생의 알리바이』에 수록한 「우리들의 고향」(1995)에서 수몰에 따른 고향 상실의 문제를 그린 바 있다. 이 작품에서 노동자인 '김 과장'은 두 번의 실향을 겪는다. 십대 시절부터 일했던 봉제공장 생산라인 인원 감축 바람에 직장을 잃은 것이 하나이고, 농사라도 지으며 살고자 찾은 고향이 수몰되어 없어져 버린 일이 다른 하나이다. 고향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다녔던 공장에 찾아가 공장이 자신의 고향이라며 들여보내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에 잡혀 간다.

산업화시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노동자가 겪는 두 번의 고향 상실은, 경제 발전의 부산물인 잉여 인간의 생산이 비인격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김 과장은 사회적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박탈당한 채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가 사는 데 급급하여 고향을 찾지 못한 동안 마을이 사라져버리고 호수 주변에 별장이 들어선 것처럼, 그가 공장에 다니며 어렵게 야간 대학을 졸업하는 사이 그가 일하던 공장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되어버린다. 그의 물리적, 정신적 고향은 모두 경제적 가망이 없는 곳으로 사라지거나 그러할 위기에 처한다.

결국 김 과장은 공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자의 처지에 놓인다. 이는 고향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에 따른 절망감과 분노에서 비롯한다. 그가 두 고향에서 밀려난 것은 인생 설계의 잘못이나 태만한 태도 때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로 전락한다. 소설의 마지막에 자신을 "고물 노동자"[27]로 비하하는 '김 과장'의 말에서 감지되듯, 그는 이제 스스로를 불필요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국가는 자유 시장의 논리가 야기하는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개인들이 사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재정의한다.[28] 그 속에서 삶의 터전으로부터 유리된 하층민은 생

26) 롭 닉슨, 앞의 책, 259면.
27) 공선옥 「우리들의 고향」,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1998, 238면.
28)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101면.

명, 재산, 거주지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켜 스스로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댐 건설에 대한 공선옥의 문제의식은 용담댐 건설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인물을 직접 만나면서 심화된다. 그는 산문 「가을, 진안, 최씨」의 '최한생' 씨를 소설 「정처 없는 이 발길」에서 '갑생'이란 이름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이 소설에는 작가가 산문에 다 담지 못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억과 기억 상실의 문제, 마을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최하층민의 박탈감과 위기감이 담긴다.

댐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댐의 건설은 지역 공동체에 물리적 탈장소(physical displacement)와 상상적 탈장소(imaginative displacement)를 자행했다. 개발의 기치 아래 놓인 공동체들은 물리적으로 추방당하고 상상적으로 제거당하는 '공간적 기억상실'을 경험했다.[29] 소설 「정처 없는 이 발길」에서 갑생이 집들을 무너뜨리는 포클레인과 불길을 거슬러 그 집이 세워지고 신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회고하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건설'이 자행하는 파괴, 그 '탈장소'의 현장에서 갑생은 아주 오래된 과거부터의 기억을 되살리며,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때문이다.

> 기봉이네집의 대들보를 보자 기봉이 부친이 그 대들보 타고 입이 한자나 찢어지던 날이 생각났다. 그 집의 상량식을 하던 날, 기봉이 부친은 막걸리에 떡에 돼지 한 마리도 잡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봉이 부친을 대들보에 올려놓고 마당 가득 우꾼하게 놀았다. 그날의 웃음소리와 음식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건만 이제 그 집은 속절없이 한 모다기 모닥불로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었다. 타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타일과 석고보드와 냉장고도 탔다. (중략) 나무와 흙이 탈 때는 흰 연기가 솟았다가 타일과 석고보드와 냉장고가 탈 때는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30]

마을 사람들에 관한 갑생의 기억에는 대를 물려 살아온 집의 내력만이 아니라 그 집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공유하던 시절의 감각이 담겨 있다. 마을 공동체

---

29) 롭 닉슨, 김홍옥 역,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57-258면. 이 책에서 'displacement'는 전치로 번역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해당 개념을 탈장소로 바꿔 썼음을 밝혀 둔다.

30) 공선옥, 「정처 없는 이 발길」, 『창작과 비평』 29(1), 창작과비평사, 2001, 164면.

는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과거와 단절된다. 과거에 소박하나마 다양한 먹거리와 생계 수단, 그리고 변화 속의 연속성이라는 시간적 정체성을 제공해 주던 장소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봉이네 집이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장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 토착민이 형성해 온 공동체의 결속과 문화적 관습을 파괴하는 폭력성을 환기한다. 실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 중 70% 정도가 50대 이상이 노령층이었으며, 약 4/5가 넘는 주민들이 이곳에서 30년 이상 생활해 온 사람들이었다.[31] 이 때문에 그동안 촌락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된 생활 변화와 이주 후의 생계 대책 부재로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 황폐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갑생이 회고하는 기봉이네 집의 변화는 신식 목간통, 씽크대, 냉장고 등을 갖춘 "문화인" 되기의 삶과 궤적을 같이한다. 보상금을 받은 기봉은 고향을 떠나 신식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 "어머니 때부터 써오던 반닫이 궤짝"을 내버리고 간다. 그것은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공선옥은 댐 건설에 따른 이주 과정으로, 마을의 소멸뿐 아니라 이주민이 버려도 좋다고 판단하는 '구식'이 결국 그들이 공유했던 역사이자 그에 대한 추억임을 들춘다. 그리고 작가는 마을 사람들이 버려두고 간 것들이 타들어가는 중에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색깔을 통해 그들이 추구해 온 문화적, 기술적 발전이 기실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져온 거리임을 일깨운다.

댐 건설에 따른 공동체의 파괴는 보상금이라는 돈의 문제가 개입할 때 더욱 가속화한다. 『유랑가족』에 수록된 연작소설 「먼 바다」에는 '동네 공동 재산에 대한 보상' 이야기가 나온다. "마을회관과 해마다 거르지 않고 당제를 지냈던 당산나무, 그 당산나무 아래 정자 등"[32]에 대한 보상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마을 이장은 보상금의 일부로 '앨범'과 '주소록' 혹은 '망향비'를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 찬성하지 않는다. 갈산리 주민의 일부는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부락에 살았던 연수, 부락에 공헌한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대응한다. 그리고 이 논쟁은 그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로 옮아가 주민 간 폭력사건으로 번진다. 결국 마을 사람 한 명이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간다.

---

31) 박동석, 앞의 책, 11면.
32) 공선옥, 「먼 바다」, 『유랑가족』, 실천문학사, 2005, 221면.

공선옥은 이 사건을 형상화하며, 갈산리 사람들이 "몇 푼의 보상금을 가지고 수치심 따위는 버려둔 채 설왕설래 다투"는 것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데서 오는 설움이나 울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가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상금, 특히 마을 공동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그들 모두가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쫓겨나 이주해야 한다는 점을 현실화한다. 그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이웃에게 그 감정의 원인을 전가하며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이렇듯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이주민은 물리적 장소와 정서적 공동체의 상실을 떠안아야 한다. 또한, 댐이 완공되고 나면 마을 전체가 수몰되니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땅과 그 땅에 살았던 주민들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의 의식에서 점차 잊혀간다.

'거칠고 어지럽게 흐르는' 강을 '길들여야' 한다는 자연 정복의 논리는 당산나무와 같은 자연도 값을 매길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와 쉽게 접속한다. 댐은 자연과 미신의 지배를 받던 인류가 과학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이성으로 미신을 타파한다는 진보 이데올로기의 상징이다.[33] 작가는 그 강력한 상징과 보상금이라는 일시적 이익이 수몰민의 애환과 분노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공동체의 분열을 주민 사이의 개인적 원한과 갈등 문제로 축소해 버리는 현상을 드러낸다.

소설집 『유랑가족』은 농민, 공장 노동자, 재개발지역 주민, 이주 여성 등 한국 사회의 주변화된 존재들이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된 상황을 연작의 형식으로 보여준다. 공선옥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한'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들의 빈곤하고 불우한 삶을 조명한다. 특히 수몰민의 문제를 다룬 「먼 바다」는 댐 건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한'과 그의 친구 '김'의 입을 빌려 발화되는 형식을 취한다.

> 물 부족 사태라거나, 댐 건설의 필요 불필요를 따지기에 앞서, 김은 건설과 개발의 미명하에 파괴되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걱정에 앞서 거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도대체 돈으로 맞바꿀 수 없는 정신에 대해서. 그러나 돈 앞에서, 발전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런 정신, 삶을 에워싸고 있던 오래된 정신 같은 것은 그저 허섭스레기에 불과한 것인지도 몰랐다. 김과 한은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빈집들

33) 패트릭 맥컬리, 앞의 책, 373면.

> 을 순례하기 시작했다. (중략) 이 집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내력이, 역사가 고스란히 흙바닥에 버려져 있다.[34]

고향이 수몰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고향으로 내려와 수몰 예정지 곳곳을 사진으로 담는 작업을 몇 년째 해온 김은 자신의 작품을 모아 "<아, 물에 잠길 내 고향> 사진 전시회"를 연다. 그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라도에 내려온 한은 김과 함께 수몰 예정지의 빈집을 돌며 사람들이 두고 간 옷, 고지서와 영수증, 상장, 사진 등을 본다. 돈이 되지 않아 버려진 '흔적, 내력, 역사'를 보며 한은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 "건설과 개발의 미명하에" 파괴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김의 작업은 공선옥이 소설을 쓰는 일과 같다. 시간적, 감각적 의미에서 상상력이 부족한 거대 문화에 대응해 작고 여린, 파괴되기 쉬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가치를 되새기는 예술적 실천이 그것이다.

댐이 환경, 에너지, 농업 생산성,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35]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댐 건설 욕망을 늦추지 않는다. 정치인의 혁신 의지 실현, 과학 기술 개발의 선전, 건설 기업의 이윤 추구, 관광 산업에 대한 자본가의 투자, 세계은행의 이자 사업 등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댐의 순기능은 이 복잡한 자본의 흐름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아젠다에 가깝다. 한의 시선에 따라 조명되는 수몰민의 과거, 그가 버려진 것들에 대해 보여주는 공감적 태도는 댐을 관광지나 관개 시설로 관망해 온 사고의 관습을 뒤흔든다. 마을로부터 떠났거나 쫓겨날 사람들에 대한 기억 서사는 독자가 댐에 대한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생산적인 불안정성을 이끈다.

4. 합법과 불법, 그 불확실성 위에 놓인 개인

이주의 고통은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유언비어와 협박에 시달리고 나서 마지막

34) 공선옥, 앞의 책, 246-247면.
35) 패트릭 맥컬리, 앞의 책, 219-299면.

정점을 맞는다. 서비스와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원래 있던 시설조차 이주가 시작되기 전에 문을 닫는다. 거기에 보상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질지, 보상금은 얼마나 될지 어느 것 하나 정확히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보태진다.[36] 이 같은 상황은 보상금을 노린 투기 사건, 마을 공동화 현상에 따른 절도사건 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용담댐 건설 후보지에서는 댐 건설 예정지역에서 보상비를 노린 외지인과 주민들의 '보상 투기'가 극성을 부려 건설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신문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37] 실농(失農)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농민들은 벼 대신 소득이 높은 버섯, 국화를 심는다. 이 같은 영농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건설교통부는 실농 보상의 기준을 변경했다.[38] 댐 건설을 앞두고 벌어진 영농 투기는 수몰지역 주민들이 유지해온 자립경제와 공유지에 대한 의존을 시장의 문제로 대체했기에 발생한 일이다.

뉴스와 신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영농 투기의 문제는 공선옥의 소설 「먼 바다」에서 주요 사건으로 등장한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읍내 다방에서 일하는 '영녀'의 빚을 갚아주고 그녀와 결합한 '박종만'은 이웃 동네에 사는 노덕필의 비닐하우스를 빌려 작물 보상을 노린다. 다음에 제시된 인용문에는 이제 곧 물에 잠기게 될 고향 땅에 "불법으로"[39] 국화 모종을 심고 그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남겨둔 종만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 국화 모종은 어젯밤 동네 사람들 몰래 하우스 안에 들여놓은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국화를 선택한 건 기왕의 정보가 있어서였다. 기존 수몰 예정지의 시설 작물에 대한 보상 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본 결과, 원예보다는 화훼, 화훼 중에서도 장미와 국화에 대한 보상이 높게 책정된 예가 있는 바, 장미 묘목을 심기에는 보상 심사 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단가도 맞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국화를 택한 것이다. 덕필의 말에 의하면 하우스에 대한 보상 심사는 앞으로 몇 달 뒤에나 있을 예정이라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하

36) 패트릭 맥컬리, 앞의 책, 130면.
37) 박순빈, 「댐예정지구 투기 극성」, 『한겨레』, 1997. 9. 30.
38) 용담댐 수몰지역에서는 느타리버섯 재배장 2백 76개 동(1만 6천 7백 57평)이 불법으로 들어섰고 미보상 지역 2백 65만여 평 중 90%인 2백 40만 평은 국화밭으로 변했다. 건설교통부는 보상계약 시점의 재배작물이 아니라 공공사업 시행지구 고시 때의 재배 작물 기준으로 변경하고 보상액도 과거 3년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백승훈, 「영농투기 기승에 제동」, 『동아일보』, 1997. 10. 15.
39) 공선옥, 「유랑가족 제5회: 먼 바다」,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3. 2. 208면.

> 더라도 수몰지구로 고지가 난 이후에 설치한 시설이라든가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노덕필이나 박종만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종만은 세상은 어차피 법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노덕필의 말을 믿기로 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지금 국화 모종이라는 희망을 심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40]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국화 모종을 심고,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모종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종만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돈에 눈이 먼 투기꾼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종만은 피해자로 그려진다. 종만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비닐하우스를 빌려주었던 덕필이 국화 모종에 대한 보상금을 챙겼을 뿐 아니라, 종만의 아내인 영녀를 유혹해 마을에서 도망치기 때문이다. 종만은 남은 돈을 다 털어 국화 모종을 구입했으나, 그의 고향 친구인 덕필은 그 절박함을 이용해 사기를 친다. 보상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수익은 농사를 지어오던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윤리의식을 송두리째 흔든다.

종만이 국화 모종을 심는 일은 불확실성에 기대어 있다. 이 불확실성은 사회적으로 일어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불확실한 상태는 무지함과 무력함이 합쳐진 결과다. 여기서 '무지함'이란 일어나길 희망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일과 다르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력함'은 할 수 있는 일과 원하는 일이 다르다는 의미이다.[41] 결국 종만은 아내 영녀가 덕필과 함께 밤도망 친 것을 비관해 보에 빠져 죽는다. 그의 죽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지식도 힘도 모두 부족함을 깨달은 자의 수치심과 절망감이 담겨 있다.

본격적인 물막이 공사를 위한 유수전환식이 있는 날, 종만의 어머니는 아들이 빠져 죽은 보 위에서 아들을 살려내고 국화 모종을 보상하라며 울부짖는다. 그 장면을 본 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댐 건설 관계자들은 물길을 전환하기 위한 발파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식장을 빠져나간다. 이처럼 국가가 시행한 댐 건설과 보상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는 개인의 파국으로 이어진다. 개인이 자기 자원을 이용하여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문 규정에 따라 시장의 게임에 참여하는 데서 보이는 무력함은 갈수록 범죄시되거나 범죄적 의도, 또는 범죄적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경향

40) 위의 책, 193-194면.
41)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부수적 피해』, 민음사, 2013, 145-146면.

이 있다.[42] 작가는, 종만이 한 선택이 불러온 실패, 그 실패가 불러온 죽음, 수몰지를 떠나지 못하는 종만 어머니의 호소를 통해 그 비극의 근본적 원인을 묻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행위는 댐 건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늘리는 것 이외에 다양한 피해를 일으킨다. 그 피해는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땅을 재정착 준비를 위해 헐값에 외지인에게 팔아넘기거나, 가족의 먹거리이기도 했던 농작물 대신 보상 단가가 높은 버섯이나 꽃을 재배한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집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노린 "섰다판이 들어와 온 마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보상금은 물론 이주비까지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어"[43]버리기도 한다. 투기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주민들 사이의 분란과 가족의 붕괴가 이어진다. 그리고 경작지와 농작물이 줄어든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수몰지를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은, 보상금을 노리며 시간을 벌고 건설을 방해하는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부정적 낙인까지 얻는다.

공선옥은 철거 예정일 공고가 "푸른색"에서 "붉은색"[44]으로 바뀌는 가운데 일어나는 마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공허감을 작품에 묘사한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철거 예정일 공고에 대응하듯 아직 무너지지 않은 벽에 써 놓은 "수자원 도둑놈"[45]과 같은 낙서로 댐 건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날것 그대로 소설에 담는다. 신문에서 주민들의 영농투기를 문제 삼았다면, 작가는 이주나 재정착을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보상 문제로만 일축하는 수자원공사를 향한 주민들의 감정과 태도를 가시화한다.

또한, 작가는 수몰 예정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공동화된 마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빈집들이 늘어나자 청소년들이 집단 출몰하거나,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다가 보상금을 받으러 온 김에 빈 집에 눌러앉게 된 사람들도 있다.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빈집에 버려진 물건들을 몰래 가져다가 팔아넘기려는 외지의 고물장수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은 주인 없는 집, 사람들이 대부분 떠난 동네를 떠돌

42) 위의 책, 83-84면.
43) 공선옥 앞의 책, 2003. 2, 204면.
44) 공선옥, 앞의 책, 2001, 166면.
45) 공선옥, 앞의 책, 2003. 2, 220면.

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다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로 의심받거나 감시의 대상이 된다.

학교나 학원 등 교육적 인프라가 붕괴된 수몰 예정지에서 떠나지 못한 청소년들은 희망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가난한 부모와 불화한다. 「먼 바다」에서 종만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무기력과 무례함은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의 가구공장에서 일하다 고향에 내려온 '칠환'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인물이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인 아내 '반지'와 함께 보상금을 타가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다가 병원비로 보상금을 다 써버린 후, 빈집에 들어가 산다. 칠환네 가족은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 즉 거기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같다. 그들 가족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의 폭력적 전환"[46]을 겪은 셈이다. 기름 살 돈이 없는 칠환은,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위해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집에 남겨두고 간 기름을 몰래 훔쳐낸다.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는 그는 버려진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다. 이처럼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한 존재가 되어 간다.

칠환이 짐승 잡을 계획을 실행에 옮긴 첫날 밤, 그는 빈집을 털어 고물로 팔아넘기려는 '양대석'과 '장만수'를 만난다. 그 둘은 월남 참전 전우로,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다. 그 가운데 대석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들어섬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고 수몰 예정지인 남도로 내려왔다. 작가는 대석과 같은 인물을 통해 개발에 따른 유랑민의 증가, 그 개발의 미명과는 달리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는 개발 난민의 낙후된 현실을 폭로한다. 특히, 국익 증진을 위해 전쟁터로 보내졌던 대석과 만수가 다시금 개발 열풍에 떠밀려 삶의 지반을 잃는다는 점은 타자화된 존재들에게 반복되는 불안과 공포의 악순환을 보여준다. 칠환, 대석, 만수는 빈집에서 '집주인'과 '수자원공사 직원' 행세를 하며 상대를 속이다가 급기야 서로의 빈집 털이 계획을 눈감아주고 서로에게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새 삶터를 찾아 떠도는 유랑민"인 그들은 수몰 예정지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짧게나마 연대한 셈이다.

댐 건설은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부지불식간에 스며들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인식할 수도 없는 폭력의 세계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글쓰기는, 즉

46) 롭 닉슨, 앞의 책, 262면.

각적 감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게 오래 끄는 위협을 형상화함으로써 그것들을 접근 가능하며 실체 있는 것으로 만든다.[47] 댐 완공이 가까워지면 물에 잠길 지역으로부터 주민을 이주시키는 과정을 서두르게 되는데, 이때 대개 폭력과 협박이 수반된다. 「정처 없는 이 발길」에서 갑생은 저녁에라도 포크레인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빨리 떠나라는 인부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갑생은 떠날 수가 없다.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은 농협 빚을 갚는 데 썼고, 아들과 딸은 둘 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갑생'은 아내와 함께 서울과 전주로 아들과 딸을 찾아가지만 오히려 처참한 광경만 목격하고 돌아온다.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떠날 수 있는' 이웃 주민과 비교되어 더 가중된다.

갑생은 급기야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수자원공사 직원 앞에서 술에 농약을 타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감행한다. 직원에게 갑생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막무가내로 '진보'를 훼방 놓는 비이성적 존재이다. 직원은 보상이 이미 끝났으니, "성금이라도 모아 드릴 방법을 건의해" 보겠다고 대답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한다. 공사 직원의 대답을 듣고 집 밖으로 나선 갑생은 어디로 가느냐는 직원의 질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허는 것이요?"라고 되묻는다. 이 반문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 방향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고향을 '꼭 떠나야' 하는지를 묻는 당위성의 문제이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삶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개발 난민은 실향과 빈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죽음 충동을 느낀다. 작가는 비자발적인 이주를 강요하는 개발의 정치와 그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비윤리적 행동에 이르는 존재들을 형상화한다. 특히, 어딘가로 떠날 수 있는 존재뿐 아니라, 떠나지 못하는 존재들은 치안과 치유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가의 위력에 의해 결국 어딘가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다. 작가는 흙까지도 등질 수밖에 없는 농민의 운명, 세대를 이어 공동체를 형성해온 이웃 사이의 분란, 빈집 털이범이 되어야 하는 개발 난민의 처지, 수몰 예정지의 차가운 빈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아기를 끌어안고 우는 이주여성의 슬픔 등을 통해 댐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적 희생 위에서 세워진 허상임을 일깨운다. 그런 맥락에서 공선옥의 소설은 물, 에너지, 지역 경제 등 국가가 댐 건설을

47) 롭 닉슨, 앞의 책, 41면.

두고 내세우는 구원의 내러티브에 저항하는 언어가 된다.

5. 결론

거대 댐이라는 화려한 프로젝트는 버려져도 좋은 사람들과 생태계의 수몰에 의존한다. 공선옥은 산문과 소설에서 수몰 지구에 살거나 그곳을 떠나 유랑하는 사람들에 집중한다. 언론이 쏟아내는 개발 수사들에 떠밀린 인물들을 만나고 인터뷰하여, 그들의 삶을 기록한다. 이로써 그는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이 가족 공동체, 생태계 공동체를 훼손하는 원인이 됨을 들춰낸다. 애국심과 테크노크라시 담론이 장소를 전치하여 눈에 띄지 않게 된 잉여 인간들에 대한 작가적 관심은, 전치 이후의 삶까지도 조명하여 댐 건설이 낳은 상실감과 경제적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하여 그는 자원 개발의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진 수몰 지구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공공선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작가-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공선옥의 「정처 없는 이 발길」과 「먼 바다」는 국가 개발의 폭력성에 맞서 '개발 난민'과 '비거주자(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춘다. 그의 소설에는 생태적으로 뿌리 뽑힌 인간의 위기-경작지와 주거 공간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일어난 생계 수단의 상실, 과거와 단절된 공동체 내부의 분열, 분명 거기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로서의 개인들의 문제-를 담고 있다. 이로써 작가는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의 폭력적 전환이 낳은 배제된 자들의 삶을 들춘다. 통계상으로 '보이지 않아' 없던 존재로 여겨지던 사람들, 진보'를 훼방 놓는 존재로 치부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댐 건설을 국가적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무엇을 근대성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다만, 작가가 댐 건설과 관련하여 하층민의 문제에 천착한 것에 비해 근대화의 개발 논리를 이끄는 정치권력과 기업가들의 이익 추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비판의 목소리를 덜 낸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선옥의 소설이 산업 문명적 개발로 인한 가난과 유랑을 말하지만, 그 근저에 있는 근대화-세계화의 논리를 드러내는 데에는 관심이 덜하다는 선행 연구의 비판[48]과 함께 새겨 볼 부분이다. 그의 소설이 남긴 아쉬움은,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들의 내쫓김과 저개발지로의 유입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세계적

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공유해야 할 이야기가 더 있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꽃같은 시절』(2011)과 같은 장편소설을 통해 농촌에 들어선 대형 공장과 그 기업의 편에 선 국가에 맞서 싸우는 농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작가의 시선이 개발의 주체, 비자발적 이주를 강요하는 정치의 문제 쪽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작가 공선옥은 국가의 신자유주의 개발 내러티브의 강력함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쓴다'. 그리고 그의 소설을 읽는 독자는, 국가 진보라는 암묵적 궤도 위에서 댐, 도로 등의 스펙터클한 풍경을 보며 간과했던 인간적 희생, 잉여 인간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가했던 상상적 폭력의 위험성을 체감하게 된다.

48) 김은하, 앞의 책, 374면.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공선옥, 「정처 없는 이 발길」, 『창작과 비평』 29(1), 창작과비평사, 2001.

공선옥, 「유랑가족 제5회: 먼 바다」,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3. 2.

공선옥,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1998.

공선옥, 『멋진 한세상』, 창작과 비평, 2002.

공선옥, 『유랑가족』, 실천문학사, 2005.

공선옥, 『사는 게 거짓말 같을 때』, 당대, 2005.

문순태, 『징소리』, 소명출판, 2021.

신경림 외, 『동강의 노루궁뎅이』, 베틀북, 1999.

2. 국내외 논저

김미영,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24,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김은하, 「풍찬노숙의 사회와 돌봄의 마음: 공선옥, 유랑가족」,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5. 5.

롭 닉슨, 김홍옥 역,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박동석, 「지역정책사업집행에서 주민불응에 관한 연구: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권 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7.

서혜지, 「가난한 사람들의 유랑과 가족의 해체: 공선옥의 『유랑가족』을 중심으로」, 『비평문학』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아룬다티 로이, 최인숙 역, 『생존의 비용』, 문학과지성사, 2003.

이병천 편,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2003.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부수적 피해』, 민음사, 2013.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패트릭 맥컬리, 강호정 외 9인 역, 『소리 잃은 강: 대형 댐의 생태와 정치 사회학』, 지식공작소, 2001.

3.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진안문화대전”, http://jinan.grandculture.net/jinan

토론문

김 은 하
경희대학교

조윤정 선생님의 논문 「댐 건설과 개발 난민의 서사: 공선옥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우리나라에는 80여 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음에도 제가 댐 개발이 자연, 공동체,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무지하고 게으른 시민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제가 논문의 좋은 토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벼락치기로 ‘댐’에 관한 기초 공부를 마치고 토론문을 쓰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할텐데, 당장에 여유가 없어서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을 여쭈는 것으로 토론자 흉내를 내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의 논문에서 “수몰 지역 주민의 이주 처리 문제는 댐 건설 반대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만이 댐 건설 지역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인식하는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는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개발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이 다소 총체적으로 접근되었던 데 반해 최근에 개발은 보상 문제, 즉 돈 문제로 초점화됨으로써 개발에 따른 생태 환경, 공동체의 파괴, 개발 난민의 양산 등 여러 문제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령에 불복종해 정부와 대치하는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한 몫 단단히 챙기려 드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이미지화된 듯합니다. 개발의 반대 세력을 추문화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둔 거죠. 공선옥의 글쓰기가 잘 보여주듯이 터전에서 추방당했지만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많은 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선옥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난민으로 전락

하거나 불법적으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댐 문제를 보상문제로 프레임화하는 국가 권력이나 지배계급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비판해 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도 싶습니다.(작품마다 다르지만 그들을 풍자적으로 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댐 건설은 여타 개발 사업들과 많은 지점들을 공유하면서도 어떤 특수성을 갖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도 '보상만 잘 하면 개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시선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댐 건설은 자연생태계와 인간 공동체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빈곤을 더 큰 빈곤으로 만든다"는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이 논문에서 좀더 풍성하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 무엇보다 딱 맞는 작품이 있어야 논의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괜한 추정일 수도 있지만 댐 건설이라는 스펙터클한 사건을 다각도로, 풍성하게 다루기에 공선옥의 세 단편소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쉬워서 연구 대상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문학이 선생님의 문제의식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여러 장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댐 건설이 야기하는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파괴와 수탈, 남성적 건설 논리에 담긴 폭력성 등에 대해서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 작가인 공선옥 역시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 다소 엉뚱한 호기심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은 제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한국문학은 근대화의 파행성에 대한 기록자, 증언자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개발'이 제기하는 고향 상실, 공동체 붕괴, 인간 상품화(소외) 등은 한국문학 전공자들에게 익숙하지만 '댐'은 낯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댐 건설을 다룬 역작이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과문한 탓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한국의 작가들에게 댐 건설은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매력적인 서사가 되지 못했을까요? 댐으로 인한 생태환경의 파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저는 사실 이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만) 한국문학은 몹시 투덜대는 것 같지만 기실 한국 근대화에 응원을 아끼지 않는 "츤데레" 같은 존재였을까요? 침묵을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 해석한다면 말입니다. 이념이나 계급 등 다분히 엘리트

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주제에 대한 편식 현상도 댐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댐은 왜 보이지 않는 주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런 점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댐건설이라는 주제는 개발 이벤트 일반에 묻히지 않고 제 나름의 독자성,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3. 3장의 제목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간적 기억 상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물결 속에서 창출된 국가 발전의 내러티브는 댐 건설을 선의에 기반한 근대성의 스펙터클로 보게 한다. 댐 건설을 둘러싼 발전 담론은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뿐 아니라, 노동 시장과 국가 발전 개념에 비추어 쓸 데 없는 존재인 ‘잉여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인용문을 장의 도입부에 배치하고, “건설과 개발의 미명하에” 파괴된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공선옥 소설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댐 개발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근대 국가의 발전주의 기획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물결 속에서 창출된 국가 발전의 내러티브로 댐 건설을 선의에 기반한 근대성의 스펙터클로 보게 한다”는 서술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석하신 작품 중 하나인 「우리들의 고향」(1995)는 한국이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작하기 이전에 발표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댐 건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신자유주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러한 구획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공선옥 소설이 그려내는 개발 난민들의 장소 상실과 난민화하는 삶의 문제를 새롭게 분석해 내고자 하신 것 아닌가 추정됩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집이나 일자리의 부재 혹은 상실을 야기함으로써 인간을 빈병이나 폐품 같은 잉여, 즉 인간실격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터전에서 추방된 이들에게서 인간실격의 징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잉여화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개발 일반이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다소 느슨한 분석같기도 합니다. 물론 동질적인 것으로 환원하지 않고 차이들을 찾아내려는 것은 분명 좋은 접근법입니다. 공선옥이 그린 장소 상실, 난민으로 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이 보여주는 비극성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 파괴를 통해 난민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발은 폭력이지

만, 황석영의 인물들에게 고향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노스탤지어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공선옥의 화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고향」에서 관광지로 변한 고향에서 별장지기로 '전락'했지만 회한의 감상에 젖기보다 자신이 얻은 일자리에 자부심마저 느끼는 인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댐 건설이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간 상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투자 텍스트의 담론 구조
: '경제적 자유'와 화폐 증식의 상상

권 창 규
포항공과대학교

1. **모든 이의 꿈,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자로 제시되다**
2. **부자 되기의 과정: '일반인'에서 투자자로의 계발**
3. **돈놀이에서 '돈이 일하게 하라'는 화폐 상상으로**
4. **라이프스타일을 겨냥한 성공산업의 호황**

1. 모든 이의 꿈,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자로 제시되다

자기계발서는 익숙하다. 베스트셀러로 자기계발서가 에세이의 한 부문을 차지한 지 20년이 넘어간다. 서동진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담론에 대한 연구에서 계발서의 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전의 계발서들이 자기 수련에 가까운 행위를 권고하는 교훈적 주장으로 가득 찬 지침서라면, 1980년대 이후의 텍스트들은 경영 담론과 자기계발 담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적인 경제적 주체로서의 삶과 사적인 자아로서의 삶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두지 않는다." 오늘날 자기계발·경영 담론에서 경제적 삶은 자아의 자율성을 위협하거나 오염하는 외부적 힘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의 능동적 지평으로 바뀌어있다.[1)]

1990년대 이후로 '실용서', '경제경영서'로 명명된 계발서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2)] '경제적 관념'을 계발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 투자서는 경제적 주체의 삶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경우로, 다변화한 자기계발서의 갈래 중에서 가장 인기다. 한국에서 돈과 부자에 대해 노골적인 관심의 계기가 되었으며 돈에 대한 인식을

1) 서동진, 270.
2) 대표적 베스트셀러로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시간관리를 위한 일지.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설득력 있는 이론적 지지대를 제공한 것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1998)다.[3] 가난한 자신의 아빠와 부자인 친구 아빠를 대비한 미국인 남성 투자자의 책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모았다.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보도 셰퍼의 『돈』(1999. 20003년에 번역됨)도 경제경영 부문의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돈』은 유럽식 자기경영서라는 부제를 달고 부자 되기를 역설했다. 셰퍼는 유럽의 유명 머니 트레이더로 국내에 소개되어 베스트셀러 경제교육 동화[4] 작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가난한 엘리트 아빠가 아닌 부자 아빠로 살겠다는 가부장 남성의 목소리를 내세우며 욕망을 질문했다.[5] 『돈』 역시 가난한 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셰퍼는 일하다 죽은 변호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며 부자 되기에 대한 욕망을 밝힌다. 두 책은 공통적으로 모두들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근원적 욕망에 대해 질문하며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것을 역설했다.

부자를 인터뷰한 기록물 역시 인기를 모으며 부를 선망과 학습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미국 부자에 대한 기록물인 마케팅학 교수의 『이웃집 백만장자』(1996. 2002년에 번역됨), 신문 기자의 『한국의 부자들』(2003) 등이 그것이다.[6] 부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 있다는 『이웃집 백만장자』(1996)는 많은 수입, 많은 소비가 부자의 징표가 아니라 자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습성이 부를 축적하는 주요 능력임을 설파한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희생, 근면이 필요하다”는 게 논의의 핵심으로 따라서 누구나에게 길은 열려있다. 『한국의 부자들』(2003) 역시 부자들의 자전적 경험담을 전하면서 “부자를 모르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물론 부자 바람은 출판 시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부자학 연구(부자학연구학회)가 등장하고 대학의 부자학 강좌가 인기몰이를 했다. 대학의 부자학연합동아리도 등장했다. 2000년대 초반이었다. 부자 되기를 도모하는 인터넷 카페와 동호회도 인기를 모았다. 유명한 광고 문구, ‘부자 되세요’(2003)는 저급하다며 엘리트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가난해지고 불안정한 현실만큼이나 부에 대한 높은 열망을 반영했다. 신용카

3) 이범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과 젊은 직장인들의 수용과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129, 137.
4) 각주.
5) 보도 셰퍼, 『돈』, 32~33.
6) 토마스 J. 스탠리·윌리엄 D.댄코, 홍정희 옮김, 『이웃집 백만장자』(1996), kmabook, 2002. + 신문기자가 부자 소개 받은 경로에 대해.

드를 써서 부자 되라는 역설은 카드대란으로 명명된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구체화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체제'에서 노동 유연화라라는 이름의 고용 불안정이 상시화되면서 노동 윤리는 변화해왔다. 노동력 상품화를 뒷받침하는 논리로서의 노동 윤리가 쇠퇴하고 노동에 근거하지 않은 부의 축적이나 노동이 결여된 소비에 대해 비난할 근거가 약해진 상황에서 부자 담론은 사회적 위험의 개인화에 직면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7] 공감을 얻었다.

부의 담론이 부상하면서 자식 교육의 목표도 적나라해졌다. <명문대 입학→ 좋은 직장 취직→ 승진→ 연금 수령>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돈 굴리는 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훈육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발전됐다. 학벌사회의 입시전쟁을 통해 우승열패를 가려왔던 수렁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중고등학교 6년의 모범생이 사회를 다스리는 구조"[8]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의미 있다. 그래서 제시된 자식 교육의 목표는 자식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학벌은 좋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 택일하는 문제로 압축됐다. 자식 교육의 목표에서 부와 가난을 뽑아내는 빈한한 상상은 문제적이지만 고액의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부모들을 적확하게 겨냥했다. "한국 부모들은 솔직해져야한다",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공부를 잘하라고 합니까. 부자가 되라고 해야죠."[9] 팬데믹 시기에 주식 투자의 대부로 인기를 모은 존 리의 말이다. 그의 부자 교육은 주식과 펀드 교육을 가리키며, 사교육 대신 '주식 용돈', '주식 선물'을 제안했다.

투자 전제이자 목표로서 부자 되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송영창의 투자서, 『EXIT』(2020)에는 어느 의사의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 "저는 40대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소위 말하는 의사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할 때까지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물론 버는 돈으로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살 수

7) 최민석, 77.
8) 『나의 첫 주식 교과서』(강방천의 말), 287.
9) "젊어서 집 사는 게 제일 바보짓, 집착 버려라" 2020.11.

> 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며 벌어도 부자는 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면 그것은 단지 저의 시간이 그만큼 더 투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략) 제가 그동안 해온 것이라곤 공부밖에 없고, 공부나 일하는 법이 아닌 돈 버는 법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10]

의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물론 해당 질문은 부동산 부자인 책의 필자에게 던져질법한 질문이면서, '못 배웠지만 부자가 됐다는' 필자가 책 속에 인용할 법한 사례다. 사연자는 의사 집안에서 자라나 의사가 되는 길로 접어들었지만, 스스로 의사의 직업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의사 직업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의 필자는 자신의 부자 강좌를 수료한 의사가 추후에 상가 한 채를 매입했다는 결말과 함께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지겹던 병원 일도 즐거워졌다'는 의사의 근황을 전한다. 사연자가 구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건물 소유, 정확히는 월세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즐거우니 일도 즐겁다는 말은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모든 직업 활동이 보람 있기는 어렵겠는데, 보람을 구할만한 의사 직업을 택했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이 때 부자는 직업의 가치와 보람에 앞서는 상위의 직업군 같은 것으로, 생활의 물리적, 정신적 상황을 전면적으로 바꿀만한 능력자로 제시되어 있다.

부자와 비슷한 용어가 있다. 자산가가 그것이다. 자산가는 '투자가형 부자'를 지칭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를 배경으로 부상한 성공적 투자자 모델로, 투자 지식의 습득과 실천을 통한 자기 성취자로서의 인상을 준다.[11] 그럼에도 대중 투자 텍스트에 자산가보다 부자가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쉽고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잘 다가오므로 흔히 쓰이지만 부자의 의미는 달라졌다. 부자는 대중 투자 시대에 개인의 성공을 성취한 인물로, 투자가 일상화된 만큼 성공한 투자자에 대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인상을 준다.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종래의 노동윤리에 기반한 절약과 저축이 아닌 투자의 개인화된 대응이다. 투자가형 부자로서의 자산가는 위험(리스크)을 감수하고 보상(리워드)을 쟁취하는 투자 과정에서 위험 감수자·위험 관리자로서의 성공 모델

10) 『EXIT』.
11) 권창규.

을 제시한다.

투자를 통한 부의 축적을 새롭게 지칭한 용어가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이다. 부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는 말은 덜 속물적이면서 더 기술적인 인상을 준다. 국내에서는 2018년 전후로 경제적 자유·독립을 표제어로 내건 투자서가 쏟아져 나왔다.[12] 순자산 10만 달러, 자가 제외하고 자산이 10억으로 부자가 정의되었다면,[13]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의는 보다 기술적이면서도 포괄적이다. 기술적 차원에서 경제적 자유는 순자산이 연간 지출의 25배이거나, 혹은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자산을 지닌 상태로 풀이된다.[14] 가치 판단과 의미 부여가 포함된 확대정의는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태, 돈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임금노동과 연결지어서 볼 때 경제적 자유는 일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 혹은 노동해야 하는 시간 대신에 자유 시간이 늘어나는 상태, 좀 더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15]

부자 되기를 은유한 경제적 자유는 조기은퇴와 연결되어 있다. 억압적 임금노동에서 탈피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아예 일찍 은퇴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미국의 파이어(FIRE;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 운동은 재정적 자유·독립과 연결한 라이프스타일 운동으로 소개됐고 국내에서는 경제적 자유 담론과 '파이어족'의 유행어를 낳았다. 학자금 대출의 늪과 고용 불안정, 사회안전망 부재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파이어운동은 건강한 세월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보낼 이유가 없다며 노예노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백인 엘리트 남성의 조류라는 비판에 직면한 파이어운동은 인종과 성, 계급에 따른 여러 파생 형태를 낳았다.[16] 파이어운동은

12)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 서른 전에 평생 돈 걱정을 해결한 젊은 부자 유비의 경제적 자유 실현 프로젝트』/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지침서』/ 『나는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 : 파이어족을 위한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 3년 만에 월세 1000만 원 만든 투자 철칙』/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6단계 : 돈 걱정 없는 인생 프로젝트』(2014)/ 『나는 오르는 수익형 부동산만 산다!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쉽고, 확실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라!』/ 『(이렇게 하면 당신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요니나의 월급쟁이 재테크 : 경제적 자유를 위한 밀레니얼 세대의 필수 재테크』, 『26살, 경제독립선언 : 내 인생의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실현하는 법』(2009)

13) 『이웃집 백만장자』, 『한국의 부자들』

14) 위키피디아(FIRE 항목); Rich dad, poor dad

15) 『서른 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EXIT』; Work optional, p.XV.

신용을 통한 미국인들의 과소비 관례를 문제삼는 특징을 띠면서, 소비를 줄여 투자하는 공식을 기본으로 제시한다. 파이어운동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난 이후 불평등과 불안정에 직면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자본의 구애를 반영하고 있다.

파이어운동이 내세운 재정적 독립은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경제적 독립'으로 번역되면서 경제를 재정(finance)으로 치환했다. 경제적 자유·독립의 용어는 자유와 독립의 기치를 경제와 연결짓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 재무·재정·금융을 경제로 번역한 것은 돈 버는 기술로 좁혀진 경제 상상의 빈곤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상상은 빈곤하지만, 가난해진 젊은 세대들에게 파급력은 컸다. 경제적 자유 담론은 임금노동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 현실의 압박 속에서 부자 되기가 멀게 느껴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력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예요. 30,40대에 다 번 이후에 누릴 것을 누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17] 인용은 어느 20대 암호화폐 투자자의 말이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세계적으로 노동 현실은 각박해져왔다. 노동이 불안정해지므로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과로노동을 감수하는 '생산적 노동의 노예 상태'[18]는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공통적인 공식은 <절약 후 투자>다. 아껴 써서 종자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이다. 근검절약과 저축이라는 종래의 재무 실천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근검절약은 종자돈(시드머니)을 모으기 위한 행위이며, 위험이 사회화된 저축 행위가 아닌 위험의 개인화를 특징으로 하는 투자[19]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기반으로 하는 과소비와 낭비의 경제를 벗어나 소비를 줄인다는 지향성은 특징적이다. 속칭 '짠테크'라는 이름으로 절약을 내건 인터넷 카페와 동호회,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20] 애초에 밑천이 두둑하거나 물려받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절약하여 종자돈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자유의 담론은 누구

16) 위키피디아(FIRE 항목); 머스태시 블로그; 비치 블로그. 참고서로 2018년에 재판된 베스트셀러(『Your money or your Life』, 1992)에는 소비를 줄여 투자하는 공식이 소개돼 있다.
17) 20대 비트코인 투자자의 말이다. 2030 활동가가 보는 젊은 청년층들의 투자 광풍, 월간 경실련(2021.5-6월호), 2021.5.27.
18) 크리스티안 마라찌, 서창현 옮김, 『자본과 정동』, 갈무리, 2014, 54.
19) 박찬종.
20) 각주.

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시장주의의 환상과 투자의 민주주의를 공유한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공식은 새롭지만 새롭지 않다. 절약과 투자의 공식이 기존의 재무기술 유행, 즉 재테크 붐의 연장선에 있고 투자는 금융화된 자산 만들기를 가리켜 금융 지식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부터가 새롭지 않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재정 독립 계획이 소개된 바 있으며, 오늘 당장 일을 관두더라도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재정적 독립으로 제시했다.[21]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는 인기에 힘입어 5권까지 발간됐는데, 『부자 아빠의 젊어서 은퇴하기』(2002)는 파이어운동의 전범을 보여준다. 책의 화두는 "돈 걱정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산다는 목표 설정과 일찍 은퇴를 한다"[22]는 것이다.

셰퍼의 『돈』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의 증보판으로 소개된 바 있다. 셰퍼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라고 독려한다. "갖고 있는 돈의 이자로만 살 수 있어야 당신은 정말로 부자이고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23] 국내에서 10억 만들기 열풍이 불었던 2000년대 초, 기술(재무테크)과 숫자(10억)에 가려져있던 것도 경제적 자유의 담론이었다. 재테크 관련 단일 카페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텐인텐' 카페는 10년 안에 10억 만들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 기술을 포괄하는 상위 담론으로 내세운 바는 경제적 자유였다. "현재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노예적 삶"을 살지만, '자본주의가 인정하는 투자로' "나 대신 돈이 자동으로 일하게 만들어"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야겠다"는 게 생활의 목표로 제시됐다.[24] 최근 팬데믹 시기에는 '대한민국 경제독립'을 내걸고 주식 투자가 애국적 색채를 입고 홍보되기도 했다.[25]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전제 위에서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돼있다.

---

21) Rich dad, poor dad, 80.
22) 『부자 아빠의 젊어서 은퇴하기』, 10.
23) 보도 섀퍼, 『돈』, 235, 329. 당시만 해도 경제적 안정의 목표 수익률이 12%, 경제적 자유의 수익률이 20~30%로 격세지감을 준다.
24) 글쓴이 서현&규현 아빠, 경제적자유인으로 가는길, 텐인텐, 2011.4.15. https://cafe.daum.net/10in10/A7Rv/12604 (댓글로 금융 지식, 시간 관리, 태도 변화)
25)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독립 류의 수사는 주식 투자를 애국 행위에 비유했던 전통 서사와 결합한 결과다. 존 리의 '경제독립선언문'은 『나의 첫 주식 교과서』, 14쪽 참조.

2. 부자 되기의 과정: '일반인'에서 투자자로의 계발

문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무 기술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조기은퇴할 수 있다는 확률의 한계도 있지만, 그에 앞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과정이 부자 되기는커녕 당면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극한 대응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허덕이며 살 수는 없다고 투자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시장보다 높은 실적을 꾸준하게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실적이 좋을 때는 행운을 실력으로 포장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둘러대기가 금융만큼 쉬운 분야도 없다." 『금융의 모험』의 저자는 투자에서 능력과 운을 분간하기는 실제로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26] '왜 성공한 투자자들이 성공법 강사로 나서겠는가'[27]하는 일갈처럼 시장의 결과는 행운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해야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서사가 가능해지고 성취의 스토리가 완성될 수 있다.

왜 모두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즉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시장주의의 환상을 깨고 왜 대부분 가난하게 허덕이는가에 대한 대중 투자 텍스트의 해답은 개인에게로 향한다. 투자의 성공을 개인의 성취로 해석하듯이 실패 역시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식 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다. 투자야말로 유일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설령 금융 문해력이 있어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냉소적이거나 오만한 사람, 두려워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없다.[28]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29]

따라서 "투자형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인드셋"이 필요하며 강도 높게 요구된다. 부자 되기가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부자를 가까이하라는 조언부터 시작해서 스

26) 『금융의 모험』, 141, 42.
27) 박경철.
28) Rich dad, poor dad, 147.
29) 『이웃집 백만장자』, 144.

스로 배우고 노력하라, 서투름을 능숙함에 이르게 하는 반복의 힘을 믿으라는 조언은 주의력, 성실함, 학습태도, 자각의 요소를 가리킨다.[30] 자아 성찰과 발전에 관계된 정신적, 심리적 요소는 후기 근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근대 신분사회의 붕괴가 낳은 개인화와 달리 노동의 변화에 기인한 후기 근대의 개인화를 바탕으로 자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성찰적 기획으로 간주된다. 노동의 변화에 기인한 자아 성찰의 기획이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발전 궤도를 구상하므로[31] 투자형 인간 되기는 후기 근대의 자아 성찰의 기획에 바탕을 둔다.

자아 성찰 기획은 시장에서 쉽게 상품화됨으로써 자기 삶을 적극 계발, 경영하여 인생을 일종의 비즈니스로 다루는 경제적 주체화의 방식이 두드러진다. 기업가적 자아 자기경영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계발, 경영하고 자기 인생을 사업으로 다루는 경제적 주체화의 방식이다.[32] 대중 투자 텍스트에서 기업 모델을 발전시키는 일은 적나라하게 제시돼있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는 것처럼 개인도 능력과 운에 따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개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33] 개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자기만의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고 “1인 기업가”로 자기를 재규정해가는[34] 일이다. 돈을 벌기 위한 지식과 기능에 집중하여 삶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일은 곧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된다.

‘일반인’과 투자자의 이분법은 투자자의 삶으로 변모하기를 독려하는 단적인 사례다. 대중 투자 텍스트에서 일반인과 투자자의 이분법은 드물지 않다. 일례를 들자.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멍하게 흘려보낸 그 무수한 시간들이, 너무나 덧없고 안타깝다.”는 어느 투자자의 고백은 수십 억대 부자가 된 후배를 두고 나왔다. 자신이 ‘일반인’으로 살았던 과거 10년 동안 후배는 달랐다. 자신이 교외로 놀러가 맛집을 검색할 때 후배는 토지 개발 가능성을 점쳤고, 자신이 허니버터칩을 구했다고 기뻐했을 때 후배는 해태제과 주식을 샀다. 후배의 부는 “지난 10년을 투자자의 멘탈로 살아온 그와 일반인으로 살아온 나의 뼈아픈 격차”로 해석됐다. 10년 전에는 후배를 두고

30) 리샤오라이, 『부자의 길을 선택하다』, 192~239쪽(4장 투자형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인드셋).
31) 기든스, 143~144; 벡. + 개인주의화 용어도 쓰임.
32) 서동진, 280.
33) 『부자의 길을 선택하다』, 40~42.
34) 청울림,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46, 327.

"야, 넌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냐"며 혀를 찼지만, 자신의 과거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까닭은 후배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으로 살았던 자기 과거가 후회스럽다며, 후배의 에피소드를 통해 투자자 되기를 설득하는 『살려주식시오』의 필자는 정신과 의사이자 성공한 주식 투자자이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투자형 인간 조립법을 화학적 측면에서 일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책을 집필했다. 그는 "목사님이나 스님이 아니라면 투자자로서 살아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호모 인베스투스가 될 독자에 대한 환영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35]

일반인에서 투자자로의 전회는 시민이 소비자로 전환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의 개인으로 존재 규정하고 경쟁하면서 사람들은 시민이라는 법적 주체로 불리지 않고 투자 상품의 소비자이며 고객이라는 소비 주체로 불린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모든 법적 중재와 지속적이고 입증가능한 규범에 대한 호소를 압도한다.[36] 소비민주주의를 두고 마라찌는 '권리 없는 민주주의'라 부르며 '시민'에서 '소비자', '고객'으로의 전환에 주목하는데, 투자자 역시 투자 상품의 소비자로서의 시장화된 개인에 해당한다.

위험을 거래하는 기술로서의 투자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위험·수익의 모델을 제시하며 신자유주의적 자기경영과 통치의 기술에 무리 없이 편입된다. 위험을 계산하고 판단, 선택, 결과를 감수하는 과정은 어디까지 개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여겨지며 자신에 의한 자신의 통치라는 신자유주의적 자기 경영의 연장선에서 투자는 자신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기술이 된다.[37] 위험관리자에 대한 시장의 찬사는 이어지고 있으며 위험을 받아들이는 일은 자아실현의 궤적의 일부로 여겨진다.[38] 위험감수자를 향한 시장의 열렬한 찬사는 투자자로의 자기 개조 과정이 고투와 분열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강도에 비례하여 뜨겁다. 시장은 '성투(성공한 투자)'한 부자를 가능한 현실태로 제시하려 하며, 투자자는 지난한 자기 관리 과정에서 자기 배려와 암시의 기술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만난 대중 투자 텍스트 시장은 늘 호황이다.

---

35) 박종석, 『살려주식시오』, 위즈덤하우스, 2021, 302, 28~29.
36) 『자본과 정동』, 56.
37) Langley, 91.
38) Martin, 34.

재무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와 관계하는 양상에서 경영의 기술은 중심에 있다. '자기 자신의 기업가', '자기 자신의 자본가'가 된다는 뜻은 개인 기업을 만들어야 자기 경영인이 되는 게 아니다. 마치 자신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해 기업 경영의 논리와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39]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의 경영 자세는 생의 전반으로 확장된다.

1970년대 푸코는 경제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변화에 주목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인간을 두고 시장에서 교환하는 인간에서 기업가, 특히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 변모한 양상에 주목한 바 있다. 특히 기업 모델이 확산하면서 성립된 인적자본론에 따라 노동관이 달라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은 노동력과 노동 시간으로 축소된 상품이 아니라 능력 및 경쟁력으로서의 자본으로 파악된다. 시장으로 팔려가야 하는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기업으로서 등장하는 능력자본이라는 것이다.[40]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업은 인적자본 및 인재 담론을 적극 채용해 왔으며, 억압받는 노동자가 아닌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재를 호출하고 나아가 경영인과 같은 노동자를 호출했다.[41]

투자하는 인간으로의 변모는 자기 경영인으로 호명되었던 자본가로서의 노동자가 현실화, 구체화된 대중적 양태라 할 수 있다. 자기 경영인의 등장은 투자자를 예비했다. 자본가 대 노동자의 대립 구도를 상징적으로 깨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깰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미망은 금융자본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금융자본을 둘러싼 일상의 상상을 들여다볼 일이 남았다.

3. 돈놀이에서 '돈이 일하게 하라'는 화폐 상상으로

투자서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잠언 같은 말이 있다. '돈이 일하게 하라'가 그것이다.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돈에게 일을 시키"라, "돈을 각각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일꾼들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해야 한다."[42] 재테크의 고전으로 꼽

39) 랏자라또, 138. "주체성의 모델화를 통해 수행되는 새로운 형식의 개인 통치", 같은 책, 139.
40) 푸코, 317~319.
41) 서동진, 293.
42) 순서대로 박영옥, 송영창.

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반복되는 인상적인 전제 역시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날 위해 일하게 하라'다.[43] 자신이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것이다. 돈은 일꾼에 비유돼 있다. '돈에게' 일을 시킨다고 할 때 돈은 철저히 의인화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에게'는 생물에게 쓰이는 조사다. 무생물에 쓰이는 '~에' 대신 '~에게'가 쓰여 '돈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무생물이자 대부분 무형으로 통용되는 돈이 노동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돈이 일한다는 말은 화폐와 교환되는 자본주의의 노동을 염두에 둔 수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생산 수단을 박탈당함으로써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 대가로 화폐를 획득하여 생활한다. 따라서 돈이 나를 위해 노동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돈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을 한다는 현실을 뒤집은 수사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나 정부, 은행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는 돈의 노예로 산다.[44] 노동자로 통칭하든, 직장인이나 종업원으로 세분화하든, 심지어 자신의 사업을 꾸리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더라도 돈 벌고자 노동하고 있다면 모두 노예 상태에 있다고 간주된다. "직장인은 시간제 노예"다.[45] "돈 벌기 위해 노동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돈 버는 기계"[46]로 살고 있다.

노예 상태, 기계 상태에 대한 비유는 자본주의의 착취 원리를 꿰뚫는 적확한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면에서 인색하지만 인간 소재에 대해서는 매우 낭비적이다."[47]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인간의 노동력을 함부로 쓰면서 이윤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약하려고 한다. 마르크스가 일갈한 자본주의의 낭비와 인색은 '체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게 감각된다.

다만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대중 투자 텍스트의 해답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해결 방식 대신 개인적이며 생존 우선인 해결 방식에 가깝다.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43) "I don't work for money. (중략) Money works for me" Rich dad, poor dad, p.17, 48.
44) Rich dad, poor dad, 37, 79.
45) 차칸양, 116.
46) 순서대로 송영창, 셰퍼.
47) 마르크스, 『자본』 3권 상, 106.

되고, 기계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지배-피지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지배자가 되라는 것.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 "왜 종업원으로 살려고 하는가, 기업의 주인이 되어라"[48]. 이 때 기업의 주인은 기업주가 아닌 기업의 주식 투자자를 가리킨다. 국내 투자서에 자주 등장하는 '돈 버는 기계'라는 비유는 보도 섀퍼의 책에 나온다. "돈 버는 기계가 되지 말고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하라."[49]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 즉 '돈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굴려 월급쟁이 처지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자고 할 때, 부자는 자본가이며 '돈의 주인'으로 풀이된다. 부자가 돈의 주인으로 명명되는 까닭은 돈을 벌고자 노동함으로써 돈에 구애받는 삶이 아니라 돈을 노동자처럼 부리는 자본가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것, 생산수단을 박탈당하여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파는 노예가 되지 말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인이 되는 것, 여기서 노동자는 돈이며, 자본가는 부자라는 이름의 화폐 자본가다. 어느 독자는 투자서 후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평생 노동자로만 살아가겠다 싶었는데 주식을 사서 투자함으로써 성과를 나누어 갖는 것도 또다른 의미의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50] 모두가 사장이 될 수 없지만 노동자이면서 자본가가 될 수 있는데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설명이 와 닿았단다.

돈 버는 기계가 아닌 기계 소유자로 '올라서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금융문해력으로 압축된다. 금융문해력이 요구된다.[51] 금융 지식이 없으면 돈을 모을 수 없고 노동자-노예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돈이 일하게 하는 현명함, 즉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으로,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52]이 중요하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금융문맹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금융문맹은 돈을 제대로 관리,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된다. 금융문맹으로 부와 가난이 나뉘며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가경쟁력도 떨어뜨리므로 "금융문맹은

48) 순서대로 청울림, 주식농부.
49) 섀퍼, 『돈』, 235, 249.
50) 각주.
51) Rich dad, poor dad, 57.
52)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119, 50.

질병이자 악성 전염병"으로 표현된다.[53]

월급을 받아서는 돈을 많이 모을 수 없다. 사실이다. 돈 버는 기계로 비유된 금융을 통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금융이 부의 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현실에 가깝다. 전통 제조 기업 역시 금융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두며,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죄다 금융 투자자다.[54] 고용불안정이 상시화되면서 대학 졸업과 취업, 승진, 퇴직, 연금 수령과 같은 종래의 노동 관례는 무너져왔다. 해당 관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명문대 졸업과 대기업 입사 전쟁을 꾀한다 해도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정 기간동안 월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현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데 핵심적인 금융 지식이다.

노동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낳을 수 있는 자산을 만들라[55]는 원칙은 투자서에서 부자 되기의 핵심으로, 거의 모든 개인 재무 설계에 통용되고 있다. 현금 흐름 만들기나, 자산 증식, 재무 기술(재테크) 습득, 금융소득 만들기는 모두 '돈이 일하게 하라'는 잠언으로 응축된다. 잠언의 핵심은 노동소득 이외에 현금이 나오는 소득원을 만들라는 것이다. 노동소득 이외의 소득원이란 금융소득을 가리키며 금융소득을 추구하여 자산을 만드는 것이 강조된다. 자산(資産)은 자본화된 재산으로, 일정한 금전적 소득의 흐름을 낳는 모든 소유 대상이 자산이 된다.[56] 이를테면 부동산 수익, 주식의 배당 소득, 저축이나 채권의 이자 소득, 로열티 수입 등이 자산의 원천이 된다.[57]

관련 증언은 흔하다. "내가 잠을 잘 때도 여행을 가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준다."[58]고 설명된 것은 월세 수익을 가리킨다. "내가 잘 때도 놀 때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고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부를 창출"[59]할 수

53)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49.
54) 일례로 GM.
55)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발행처는 워너북스와 캐스플로우 테크놀로지 회사(CASHFLOW technologies, Inc.)로, "CASHFLOW"는 캐스플로우 테크놀로지 회사의 트레이드마크다(발행 사항 참고함).
56) 인용.
57) 『부자 아빠의 젊어서 은퇴하기』, 288~289.
58) 청울림, 208.
59) 『나의 첫 주식 교과서』, 25~26.

있는 것, 내 자산을 키워주고 내 꿈을 대신해서 이뤄준다는 것은 주식 투자다.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서는 잭팟(대박)을 터뜨린 이들이 있었다. '성투'한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매일매일 배당금을 챙기고 있는 상황을 두고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60]고 표현했다. 표현은 과장돼 보이지만 일부 코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큰 부자가 됐다.

금융자산은 흔한 주식이나 채권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모두 금융자산으로 묶일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실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암호화폐가 공통적으로 금융자산으로 수렴하는 까닭이 있다. 부동산은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일차로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증권으로 유동화되어 있다. 아파트의 상당 부분은 은행 대출금에 담보로 잡혀 채권으로 바뀌어 증권으로 유동화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61]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모기지 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일차 자산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이 물리적 원인이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이전까지 자산적 성격이 규제되었던 주택이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62] '오르기 전에 사면 돈을 벌고, 꼭지점에서 사면 돈을 잃는 것'[63]으로 압축되는 부동산 거래 행태를 봐도 부동산 투기는 가격에 기초한 자산 거래에 속한다.

암호화폐는 분산화된 화폐 구상을 기초로 출발했지만 거래자의 관심은 통화를 대체할 거래수단에 있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으로서의 대체 투자에 쏠려있다.[64]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응용의 다양한 사례가 '코인'으로 통칭되고 가격 가치로만 따져지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가 금융화된 자산 투기 이상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65] 국제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는 2017년 말 암호화폐 선물(futures) 거래가 시작되면서 금융시장과 연계됐다.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투자는 각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나 주식회

60) 강기태, 『서른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21.
61) 강내희, 427~428. 소비 면에서뿐만 아니라 공급 면에서도 부동산 증권화를 통해 대규모 건조 환경이 가능해졌다. 공간의 금융화에 대해서는 같은 책 참조.
62) 이지웅, 100.
63) 청울림, 157.
64) 김홍배, 45쪽 재인용.
65) 권창규, 「암호화폐 투자의 자기경영 서사」, 2021.

사의 소유권 지분, 데이터로 다르지만 금융 투자로 수렴되어 있다.

자산의 금융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화폐 상상은 금융이 주요 축적 수단으로 부상한 금융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금융을 독자적인 축적 수단으로 보든, 그렇지 않으면 종래 산업에 기생하여 이윤을 축적한다고 보든 간에[66]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상품은 문화상품, 지식상품과 함께 강력한 축적 수단이 되었다.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의 척도이자 교환 수단, 부의 축적 수단을 넘어서 부의 생산 수단으로 기능하고 신용으로 기능한다.[67] 특히 1970년 금달러본위제가 붕괴된 이후 실물 없는 달러가 국제 통화의 기준이 되고 신용화폐가 발달하면서 화폐자본의 무한한 성장이 가능해지고 화폐자본의 무한증식이 바람직하다는 환상은 커졌다.[68] 이자나 배당,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돈은 '불임의 돈'으로 여겨지면서 자가증식하는 화폐가 바람직하며 정상적인 화폐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돈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낳는다는 화폐 상상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금융소득을 둘러싼 화폐 상상은 돈의 속도를 높인다. 거래와 투자를 반복하면서 돈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돈이 얼마나 빠른가'하는 '돈의 속도'[69]와 관련 있다. 부동산에 비해 펀드나 주식,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진입 장벽은 더 낮아지고 돈의 속도는 높아졌다. 부동산도 더 자주 많이 교환되는 투기 자산으로 기능하지만, 주식이나 '코인'의 매매는 더 가속화되어 있다. 팬데믹 시기에 '테마주',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 시장의 급등락도 화제를 모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주식에서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가능'했다. 코인 시장의 은어인 '돈 복사'나 '돈 삭제'의 용어는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 속도만큼이나 가격 변동이 빠르고 크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의 돈 복사는 돈 삭제의 반대말로 화폐의 자기 증식을 내건 투자 상식이 디지털 환경에 적용된 결과다. 같은 돈이라도 자산 소득에 비해 임금소득은 '느렸다.' 2020년 조사에서 부동산 자산소득의 상승률은 노동소득 상승률의 17배에 달했다. 이태경의 표현을 빌리면 "단지 소유만 하고 있었을 뿐인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땀 흘려 노동한 대가와 비교도 되지 못했다.[70]

---

66) 각주.
67) 구춘권.
68) 하비, 63.
69) 돈의 속력 인용하기. 『부자 아빠의 젊어서 은퇴하기』, 213~214.

자산으로 중심으로 가속화하는 돈의 흐름은 시공간을 압축하는 자본주의의 속도를 반영한다. 시간이 공간을 압축하면서 자본의 축적은 가속화된다. 자본의 회전 시간이 단축될수록 이윤은 커지며[71]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상품은 대표적 사례다. 금융은 시공간을 압축하고 횡단하며 온라인에서 분할, 매매되면서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노동의 저항도 피하기 쉬웠으며[72] 노동자를 자본가로 포섭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자가 투자자로 포섭되는 현상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 상황의 불안에 대응하는 개인적 선택이며, 자본가와 지배계급 쪽에서 보자면 효율적인 노동 통치가 됐다.

투자의 함의는 바뀌어왔다. 화폐 증식의 투자 원리는 투자가 일상화되기 전에는 '돈 놓고 돈 먹는' 부정적 투기로 규정됐다.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일컬어지고 정상적인 부의 축적 경로로 여겨지지 않았다. 불로소득은 떳떳하지 않았다. '복부인'이나 '꾼'들의 명명은 투기를 편법과 불법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한다. 토지라는 공공재를 겨냥한 부동산 투기에만 사회적 비난이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주식하지 마라', '주식은 투기다'라는 말이 공공연했던 때는 오래되지 않았다.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인들의 부동의 자산 1위인 부동산 투기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지만, 성실한 근로와 알뜰한 저축으로 집약되는 종래의 전통 윤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정대영의 설명을 참고하면, 1930~40년대까지는 실물자본에 대해서만 투자라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모두 투기라 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돈 놓고 돈 버는 일로 여겨진 탓이다. 1950년대부터 확산된 투자라는 용어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투기하거나, 투기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돈 놀이를 좋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사라지는 데는 부동산 투자 여론을 주도했던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었다.[73] 현재 투기와 투자는 구분되기 어렵다. 투기와 투자는 고수익과 안정 수익의 차이, 위험 부담과 위험 분산을 기준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것이, 수익은 특히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70)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2021년 대한민국, 땀인가 땅인가. 민중의소리. 2021.1.9.
71)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 III 상, 비봉출판사, 2015, 86쪽(엥겔스가 서술한 부분임).
72) 워너 볼펜드·존 할러웨이,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309.
73) 오승민, 13.

다.[74] 하지만 금융자본의 가치 실현 형태는 기본적으로 투기적이라 할 수 있다. 투기는 거래 동기가 재화의 사용이나 변형, 이동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아니며,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을 기본 동기로 하는 자산 운용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75]

투기와 투자와 혼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금융 관련 용어들이 도입되고 재규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재테크는 대중적 투자 전략으로 일상화되었지만, 용어가 도입된 1990년대 초에는 기업이나 부유층을 필두로 한 투기 현상으로 지목되면서 '단기 이익을 노린 돈 굴리기', '비근로 재산소득'으로 풀이됐다. 1990년대 초의 재테크 신드롬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풀려난 돈이 생산 자금으로 쓰이는 대신 고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이나 회사채,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화되는 현상을 가리켰다. 투기성 자금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며, "서민층과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근로 의욕을 깎아내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됐다.[76] '자산'이나 '포트폴리오'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 통용되던 말이었으나 개인화, 대중화되어왔으며, 기업의 차입 경영을 가리켰던 레버리지 투자는 개인화, 일상화되면서 종래 빚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돈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돈이 일하게 하라는 '진취적' 화폐 상상으로 바뀌면서 투자의 근저에 자리잡았다.

4. 라이프스타일을 겨냥한 성공산업의 호황

대중 투자 텍스트는 '일반인' 노동자가 투자자로 거듭나는 서사, 즉 가난한 말로를 맞을 확률이 높은 노동자가 투자를 통해 부자로 거듭나는 서사를 제시한다. 서사 구조의 전제는 모든 이가 '경제적 자유'를 실현한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다른 꿈은 없으며 설혹 다른 욕망이 있더라도 부자 되기가 다른 욕망에 앞서는 원초적 욕망이 아니냐고 꼬집는다.

부의 축적에 대한 욕망의 정도와 강도가 절대적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화폐가 낳은 상상에 속한다. 부에 대한 욕망은 공통된 것이지만 부에 대한 인간 욕망

74) 정대영, 124.
75) 셰네, 298.
76) 땅에 떨어진 은행 공신력(사설), 서울신문, 1994.4.23.

이 무한하며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화폐를 통한 부의 무한 축적이 가능해진 이후다.[77] 삼베나 금화, 곡식을 무한 축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썩지 않는 화폐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기 시작한 이백 여 년 전, 가깝게는 실물 없이 신용으로 무한 발행되는 화폐 체제가 확산된 1970년대 이후에 부에 대한 절대적인 욕망은 물리적으로 가능해졌다. 신용에 기반한 달러본위제의 구축과 동시기에 확산된 '노동 유연화'와 복지 민영화의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 개인주의화에 바탕을 둔 부자 되기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한국에서는 반공 개발주의 내내 구축된 가계 단위의 생활보장체계의 연장선에서[78] 자산 투자가 확대되어 왔다.

부자 되기에 대한 욕망이 서사의 전제가 된 이상 서사의 목표는 자동적으로 단일하게 지정된다. 부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상상이나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부자 되기라는 평이한 서술 대신에 보다 기술적이고 민주적인 '경제적 자유'가 목표로 제시된 대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자유·경제적 독립은 부자 되기와 동일한 근래의 유행어로 부의 축적이 누구나에게 열려있을 법한 민주적 속성을 부각하며 보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현실태가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전제와 목표가 확정된 이상 방법만 중요해진다. 물리적 기술(재테크)과 정신적 기술로서의 자기 관리가 그것이다. 재테크의 기술은 절약 후 투자의 공식으로 압축되며, 재테크를 구사하는 개인의 분열과 고투는 자기계발과 경영의 지난한 과정을 채운다. 자기계발 담론의 변화에 주목하자면, 투자자는, 이미 자기경영의 자본가로 호명되어왔던 노동자가 현실화된 대중적 양태라 할 수 있다. 기술과 지식만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90 대 10, 99 대 1의 격차사회에서 부자 되기의 불가능성이 가능하게 제시되려면 '일반인'에서 투자자로의 개조 과정에서 막강한 인내와 노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고투의 서사가 '먹히는' 배경에는 과로 노동과 불안정 노동의 현실이 있다. 더 이상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다는 청년 투자자의 말은 노동 현실을 가감 없이 반영한다.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의미 부여는 자기경영의 고투를 '힙하게' 만든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은 실생활의 목표와 동기, 방법을 아우르는 과정이므로 어

77) 마르셸 모스, 『증여론』.
78) 각주.

떤 이념이나 구호, 막연한 소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생활 영역으로 편입된다. 개인화된 선택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은 체험경제와 문화경제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축적 운동을 배경으로 하면서 쉬 상품화된다. 일반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 투자자의 라이프스타일로의 개조는 투자 상품의 소비자로, 시장의 개별자로의 변신을 독려한다.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운동에는 문제적인 경제상상이 더해져 있다. 젊은 상층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재정 독립 운동(파이어 운동)이 경제 독립과 자유로 번역되어 인기를 모은 것은 재정의 기술이 경제로 대체되어버린 빈한한 경제 상상을 보여준다. 돈을 관리하고 살림을 꾸리는 기술은 경제의 구성 요소요, 하위 항목이다. '돈벌이 경제'가 '살림살이 경제'를 대체하고 압도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의 가정이 경제를 압도하고[79] 재정 및 금융이 경제를 압도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화폐의 자기 증식이라는 화폐 상상이 빈한한 경제 상상과 결합해 투자의 서사를 움직인다. 부자 되기의 욕망과 목표, 방법으로 구성된 대중 투자 서사의 근저에는 돈이 돈을 낳는다는 화폐 증식의 상상이 있다. '돈이 일하게 하라'는 화폐 상상은 금융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금융 지식과 기술로 구체화되며 자산의 금융화를 낳는다. 화폐 증식의 상상은 임금노동자의 노예 상태에 대한 적확한 현실감각을 보여주나 사회와 정치가 실종된 생존 우선의 개인적 해결 방식으로 귀결된다. 노동자의 지위에서 기업가, 자본가, '포식자'로 올라서겠다는 결심은 입시전쟁으로 단련된 적자생존의 각개전투를 머니게임으로 옮겨간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의 게임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남이 죽어야 자신이 산다'는 생존법칙으로 무장한 억제되지 않는 개인들[80]의 정글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범람하는 능력주의의 환상은 '잘 나가는 사람이 모든 걸 누리는' 승자독식의 정글을 온건하게 표현한 것이다.[81]

경제적 자유를 앞세운 일종의 '성공산업'은 사회적 약자를 일차적으로 강타한 팬데믹의 위기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적 위기에 대한 조치로서 시장의 해법과 자본의 전략을 내세운 재난 비즈니스는 정부의 역할과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82] 사회경제적 위기를 넘어 존재의 위기가 예고된 상황

79) 홍기빈,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80) 마라찌, 『자본과 정동』, 175.
81) 박명림·신광영·윤평중, 「공정의 문제와 능력주의」, 『철학과현실』, 2021.
82) 각주.

에서 '팬데믹이 주식 투자의 호시절'[83] 이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누추하디 누추하다. '권리들이 부식되면서' 사적 소유권과 재산권은 장려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물리적 기반은 현실과 가상을 막론하고 소유권의 확대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자산가들의 사회는 소유만 있고 권리가 없는 정글의 파국이다.

만민의 투자자화 문제를 담론 차원에서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문제로 갖고 올 때 남는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이상' 누구든 자유롭지 않다. 지식과 일상이 안전하게 분리되는 학계에서도 크고 작은 투자자로 대동단결하는 이들은 흔하다. 부자 담론이 일깨워주는 바, 즉 재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돈을 계속 벌어야 한다는 "욕망과 공포"[84]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다른 소유물과 달리 화폐가 단독자라는 사실은 오랜 통찰에서도 확인된다. 재정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돈과 경제에 대한 다른 질문과 공부가 필요하다. 돈에 대해 이미 정해져 더 배울 게 없다는 입장이나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대안을 모르겠다는 입장은 실상 같아서 청승가련과 허장성세를 오락가락하기 쉽다고 고미숙은 일갈한 바 있다.[85] 청승과 기만, 냉소와 허세를 돌파하여 금융과 어떻게 관계 맺을까 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좋은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기술적 차원의 해법부터 저성장의 '뉴노멀'에 불가능한 투자 수익의 서사를 돌파하는 일까지 전환의 과제가 남아있다.

83) 각주.
84) Rich dad, poor dad
85) 고미숙.

토론문

김 수 현
서울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권창규 선생님의 발표, <‘돈 놀이’와 ‘돈이 일하게 하라’의 사이 : 자기계발 주체와 투자자의 접속>에 대한 토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대중투자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인투자자를 경제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술적 발자취는 그리 충분히 남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차에 권창규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게 되고, 토론을 맡게 되어 무척 반가운 마음입니다. 투자의 영역이 오늘날 현대인의 능동적인 자아실현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선생님의 글을 무척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매매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 투자하는 중장년 남성 개인전업투자자를 인류학적 관점과 방법론으로 연구했던 학생인데요, 사실 기존에 4050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했던 개인투자의 흐름이 작년 이후부터 2030 청년층에게까지 확장되는 현상을 바라보며, 투자란 더이상 재테크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대인의 낙(樂)인 동시에 자기계발과 수련의 영역으로까지 편입되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제가 최근의 경향이라고 생각했던 흐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자기계발과 투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납득하며 ‘그래, 나도 이런 점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하는 통쾌함을 느꼈던 지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면담했던 연구참여자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지점이 많아 공감하면서 읽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보고 들은 바를 통해 보충하고 싶었던 면도 있었으며, 또 의문점이 드는 부분, 더 듣고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궁금증으로 갈무리해보았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에서 한국 사회의 ‘부자 되기’ 열풍의 원인을 IMF 체제 하 신자유

주의 기조를 토대로 한 노동유연화와 복지민영화에 따른 과로노동과 불안정노동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시작된 '부자 되기' 열풍의 양상과 그 원인을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등장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라는 관념에 대한 갈망을 동일한 현상으로, 같은 연장선 상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2020년 예탁결제원의 개인투자자 통계에 따르면 개인투자 인구가 약 300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그중 30대 이하 청년투자자가 무려 103%나 증가했고, 10대(177.6%)와 20대(180.5%) 투자자가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부자 되기' 열풍이 지금 5060 중장년 남성이 된, 당시 IMF로 고용불안정의 위기를 맛봤던 '가난한 아빠'를 대상으로 했었다면, 2010년대 후반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은 비교적 젊은 청년, 어린 학생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중도 정체되었던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기존 중장년 남성 위주로 돌아가서 '고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 집단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투자에 별 관심을 두지 않던 청년세대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자유'라는 관념에 심취해 비교적 이른 나이에서부터 재테크에 눈 뜨고, 관심을 갖고, 금융문해력을 키워나가며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MF 위기 이후 '부자 되기' 열풍과 같다고 보시는지, 혹시 유의미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드러난, 모든 투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개인으로 향한다는 대중문화텍스트에 대한 선생님의 이해와 문제의식에 대해 너무나 공감합니다. 부지런히 쌓은 금융지식과 부단한 노력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흔히 '멘탈' 내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심리 조절능력까지 모두 두루 갖춘 '자기성취자'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성공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성공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의 책임 역시 성공적으로 개인 그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선생님은 '정말 노력하면 누구나,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글에서 읽은 바를 토대로 감히 짐작하자면 "문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무 기술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하신 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 사회에

만연한 대중문화텍스트의 성공담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드러내기 위해 그 전제의 허구성을 어떻게 학술 연구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다소 지엽적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2절에서 언급하신 '일반인'에서 '투자자'로의 전회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정신과 전문의이자 성공한 주식투자자에 따르면 "멍하니 덧없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반인'의 '투자자'로의 전회는 언제나 환영받으며, 독려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은 일반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을 지키고 싶어하며, 침범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투자자로서의 삶과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철저히 분리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 만사가 투자와 연동되어 있기에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져야만 하는 도덕윤리가 투자자로서 두들기게 되는 계산기의 합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번민을 겪기도 합니다. 대중문화텍스트에서 지향하는 '투자자'로의 전회가 현실의 모습과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문단 흐름상 빠진 것 같아 추가하고 싶어 첨언드립니다.

네 번째로, 3절에서 "돈이 일하게 하라"는 잠언과 관련해 "돈은 노동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기대이익을 상회할 수 없는 근로소득과 제로에 수렴하는 금리에 대한 절망의 결과로 투자를 선택하고 있는,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청년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을 하건 투자를 하건 똑같은, 질적으로 동일한 화폐가 그 결과로 자신의 계좌에 쌓이는 게 아닌가 되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만이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고전경제학과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마르크스 화폐론이 오늘날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금융투자가 점점 더 확장되고, 그 속도도 더 가속화되어가는 오늘날 마르크스 경제학이 설 자리는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중 자아성찰기획의 상품화와 4절 중 ("개인화된 선택으로서")라이프스타일의 상품화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잘 가지 않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똥을 품은 돈

: '똥본위화폐'와 '꿀숍'의 실험

유 병 선
UNIST

머리말: 구린 돈
1. 똥본위화폐: '똥-돈-꿀'의 다른 상상력
2. 꿀숍: 구린 돈의 쓸모
3. 고귀하지만 결함 있는 이상
맺음말: '새로운 천사'

머리말: 구린 돈

"돈이 구린 건 아니다(Pecunia non olet)" 이 경구의 사연은 이렇다. 로마의 4대 황제 '폭군' 네로의 자살(68년) 뒤 1년 남짓한 기간 세 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혼란을 수습한 이가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 재위 69년~79년)이다. 그는 재정 건전화를 구실로 공중화장실을 짓고 금화를 거둬들였다. 이용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화장실에 모인 오줌을 양털 가공업자에게 팔아 제국의 빈 곳간을 채운 것이지만, 세간에선 구린 똥으로 세금을 거둔다고 뒷말이 돌았다. 화장실로 모은 돈에서 구린내를 탈취(脫臭)하고 똥을 차폐(遮蔽)해야 했다. 이때 베스파시아누스가 했다는 앞의 세 마디가 역사에 기록됐고, 오늘날에도 돈의 속성을 관통하는 촌철살인의 경구로 입에 오르고 있다.

아마도, 베스파시아누스의 경구는 어떤 상징이나 은유 없이 똥과 돈이 대면한 가장 오래된 기록 서사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아마도, 실물의 똥을 근거로 돈을 발행하는 '똥본위화폐'(fSM, feces Standard Money) 실험은 베스파시아누스 이래 똥과 돈이 2000년 만에 재회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똥본위화폐는 2015년 유니스트 사이언스월

든의 조재원교수가 창안했다. 돈을 바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대안화폐 실험은 2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똥본위화폐는 돈이 지구적 유일신이 된 21세기에 '구린 돈'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이고, 질병·기후·생태·빈곤 등 복합위기에 '똥을 품은 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근본적(radical)이다.

본 발표는 똥본위화폐의 지난 7년 실험에 관한 것으로, 다른 돈의 상상과 돈으로서의 쓸모를 중심으로 살핀다. 똥본위화폐 실험은 진행형이며, 따라서 본 발표는 중간점검의 시론(試論)에 해당한다.

1. 똥본위화폐: '똥-돈-꿀'의 다른 상상력

똥본위화폐(feces Standard Money)는 돈이긴 한데 어렵다. 용어부터 그렇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은본위제나 금본위화폐와 같은 익숙한 용어를 대입한다면 똥본위화폐란 '똥을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화폐' 쯤으로 이해될 수는 있다. 그런데 금본위화폐에서 지폐에 표시된 명목가치는 금 일정량의 가치와 동일하고, 지폐를 금으로 태환할 수 있다. 그런데 똥본위화폐에서 돈은 똥을 품지만, 똥과 태환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숱한 물음이 생기고 긴 설명이 요구된다. 똥본위화폐가 똥과 돈, 그리고 꿀에 관한 다른 생각에 바탕을 둔 까닭이다.[1)]

#왜 똥인가 우리말에 똥에만 호응하는 각별한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누다와 구리다가 그것이다. '누다'는 똥과 오줌만을 목적어로 취한다. 목적어를 빼고 소통에 지장이 없다. '구리다'도 거의 전적으로 똥의 냄새를 형용한다. 그래서 '구린 똥'이라고 하면 동어반복처럼 들린다. 똥본위화폐의 똥은 누다와 구리다에 담긴 생명 순환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생물 개체는 먹고 눈다. 밥이 하늘이다. 하지만 생태계는 누고 먹는다. 똥이 밥이다. 언제부턴가 인간 사회에서 누기사슬의 순환은 망각됐고, 먹이사슬이란 이름 아래 성장지상주의와 약탈경제는 활보했다. 똥본위화폐가 똥

1) 이하 똥본위화폐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똥본위화폐 개념을 창안한 조재원 교수(유니스트 사이언스월든 PM)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27회에 걸쳐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에 연재한 「똥본위화폐」의 글을 참고했다.

을 소환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밥이 중하다면 똥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똥본위화폐는 구리다와 더럽다를 구분한다. 똥은 구린 것일 뿐 더러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구리다는 제 똥이 제 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별하게 하고, 생태계 다른 생명의 밥임을 후각으로 일깨우는 말로 정의한다. 그래서 똥본위화폐는 수세식 변기와 종말처리 방식을 문제 삼는다. 인간이 위생과 편리를 구실로 생명 순환의 흐름에서 누는 자의 의무를 배반하는 몹쓸 문명으로 보는 것이다. 우주 관광이 얘기되는 세상이다. 수세식 변기의 위생과 편리를 유지하면서, 똥을 누기사슬의 순환으로 되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똥본위화폐 실험을 주도하는 유니스트 사이언스월든은 똥을 더러운 것으로 처리하는 수세식과 달리, 똥을 구린 것으로 대하는 변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물 대신 진공펌프를 쓰는 변기에 '비비'(BeeVi, Bee Vision)란 이름을 붙였다. "꿀벌Bee이 세상을 위해 여러 역할을 하듯 똥을 가치로운 존재로 바꾸는 비전Vision을 가지는 화장실"이라고 설명한다. 비비변기를 통해 모인 똥은 급속 발효되며, 메탄가스는 에너지로 쓰고 발효된 퇴비는 흙으로 되돌린다. 당연히 물은 낭비되지 않고 수질 오염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긴 유익을 누는 자들에게 고루 배당한다는 것이 똥본위화폐가 똥을 품는 이유이다.

하지만 똥본위화폐는 "화장실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갖는 대안화폐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한다. 비비 화장실이 똥본위화폐의 선행조건은 아니며, 새로운 화폐 상상이 화장실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 돈인가? 시인 김수영은 시 <돈>(1963)에서 "무수한 돈을 만졌지만 결국은 헛만진 것 (…) 바쁨과 한가와 실의와 초조를 나하고 같이한 돈"이라며 "아무도 정시(正視)하지 못한 돈 – 돈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했다. 김수영의 말을 빌자면, 똥본위화폐는 돈을 정시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도구로서의 돈이 어떻게 신(神)이 되었는지를 도발적으로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비밀은 자본에 있다. '돈이 돈을 낳는 돈'으로서의 자본은 무한히 자기 증식하는 불멸자로 상정된다. 시인은 늘 돈을 헛만지고, 자본은 늘 돈을 낳는다. 자본의 생식력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갈음한다. 그래서 시장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두 발 자전거 타기로 비유하기를 즐긴다. 자본의 바퀴를 쉼 없이 굴리지 않으면

경제는 쓰러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는 자전거를 타는 목적을 불문에 붙인다는 점에서 고약하다. 시인이 말한 돈의 비밀은 여기에도 숨어 있다.

똥본위화폐는 자본이 될 수 없는 돈이다. 똥을 품은 돈은 똥을 누는 모든 이들에게 매일 일정한 돈을 지급하지만, 그 돈은 날마다 7%씩 감가한다. 예컨대 오늘 1만원이 내일엔 700원이 자동으로 사라져 93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돈을 쌓아둘 수도 없거니와 돈으로 돈을 불릴 수도 없다. 감가하는 돈이 "탐욕이라는 이름의 돈벌레"를 막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똥본위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돈이 공존하기를 희망한다. 단지 공존하더라도 똥본위화폐가 법정 통화로 태환되는 것은 금지한다. 서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똥본위화폐는 한 사람이 하루에 눈 똥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다. 누는 자가 스스로 똥을 품은 돈의 가치를 정한다. 돈을 헛만지지 않는, 누는 자가 돈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왜 꿀인가?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 진화론을 구축하면서 개미와 벌처럼 군집을 이루는 사회적 곤충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개체의 살아남기 경쟁에 주목했던 다윈에게 무리의 생존을 위해 개체를 희생하는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 유전자 차원에서 이기와 이타에 관한 연구와 논란으로 이어지지만, 여전히 개미와 벌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곤충으로 살아가고 있다. 똥본위화폐는 '구린 돈'에 벌이 날아들고 꿀이 모이게 한다.

'비비변기'의 작명엔 벌을 끌어들였고, 똥본위화폐의 작명엔 '꿀'이 차용됐다. 우리의 화폐가 원화이듯 똥본위화폐는 꿀화이다. 똥과 돈에서 꿀이 상상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똥이 누기와 연관한다면, 꿀은 먹기와 호응한다. 주지하듯 벌은 꽃에서 화분과 꿀을 모아 꿀주머니에서 1차 소화한 뒤 일부만 자신이 먹고 나머지를 게워내 함께 지은 벌집에 모두를 위한 먹이로 저장한다.

똥본위화폐의 철학은 돈이 똥의 누기와 꿀의 먹기라는 이중 순환을 품는다. 구린 돈과 달달한 꿀의 결합이자, 똥의 개별적 누기와 꿀의 사회적 먹기의 연대라 하겠다. 그렇게 똥을 품은 돈은 똥본위화폐라는 '사회적 벌집'의 꿀이 된다. 똥본위화폐는 똥

을 누는 모든 이에게 인간소득이자 똥 배당으로 매일 10꿀씩을 지급한다. 10꿀 가운데 3꿀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부된다. 기부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벌집에 수거된다. 요컨대 매일 받는 10꿀에서 7꿀만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 돈으로 쓸 수 있다. 그러고도 남은 꿀은 하루가 지나면 7%씩 감가되어 벌집 속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일의 해가 뜨면 먹은 자는 똥을 누고 똥을 눈자에겐 10꿀이 입금된다. 이렇게 똥본위화폐는 벌(비비변기)이 모은 똥을 꿀(돈)로 바꾸는 달달한 혁명을 제안한다.

2. 꿀숍: 구린 돈의 쓸모

똥본위화폐가 제안한 구린 돈과 달달한 혁명은 누는 자들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까? 요컨대 그것이 돈이라면 어떤 쓸모가 있을까에 관한 물음이다. 똥본위화폐 플랫폼에 개설된 '꿀마켓'과 '꿀숍'은 똥 누는 시민들이 똥을 품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구린 돈의 쓸모를 어떻게 발견하고 만들어 가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똥본위화폐가 실제 작동을 살피는 실험은 2019년 똥본위화폐 모바일 플랫폼(fsm.network) 개설 이후 구체화했다. 플랫폼에 가입하면 저마다의 '꿀통장'에 매일 10꿀이 입금된다. 3꿀의 나눔과 7%의 감가 등 복잡한 계산은 꿀통장에서 자동으로 이뤄진다. '꿀마켓'에서 여러 물품과 서비스, 액티비티를 꿀로 거래할 수 있다. 가입자 누구나 자신의 '꿀숍'을 열고 판매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누구는 고양이를 돌봐주겠다고 꿀숍을 열기도 하고 누구는 여분의 포스트잇을 매물로 내놓기도 한다. 연극과 음악회 공연의 꿀 입장권도 나오고, 유니스트 캠퍼스에선 꿀로 한방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꿀숍은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사이언스월든이 있는 울산과 유니스트 캠퍼스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뜨문뜨문하기는 해도 꿀숍의 지역 분포는 전국적이다. 일견 꿀숍과 꿀마켓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화폐경제의 교환과 돈에 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꿀 공동체의 장터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발표에서는 꿀의 쓸모를 실험하기 위해 사이언스월든이 직간접으로 관여된 4곳과 시사점이 풍부한 2곳 등 6곳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사이언스월든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화폐를 쓰지 않는 인도의 공동체 '오로빌'과 똥본위화폐 실험을 진행해왔는데,

오로빌의 사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사례1. 홍동마을 충남 홍성은 풀무원학교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대안적 마을 공동체 실험이 진행되는 곳이다. 똥본위화폐의 실험을 도시형과 구분해 농촌형 접근을 시도하기에 적합해 보였다. 홍동마을에는 2018년부터 지역화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게다가 여느 농촌처럼 사람 똥은 물론 가축분뇨 처리가 지역적 난제였다. 똥본위화폐가 지역화폐나 똥 문제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이언스월든과 홍동마을은 2019년부터 협업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협업은 사이언스월든과 홍동마을 사이에 바라보는 곳의 차이를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사이언스월든은 똥본위화폐에 몰두했고, 홍동마을은 화장실과 지역화폐가 관심사였다. 똥본위화폐는 현금(cash)이 아니라 다른 돈(money)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동마을은 실제 똥을 눌 수 있는 비비변기를 필요로 했고, 10꿀의 가치가 원이나 잎(지역화폐)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궁금해 했다. 사이언스월든은 다른 돈의 쓸모를 찾자고 했고, 다른 현금을 생각한 홍동마을에게 꿀은 "너무 어려운 돈"이었던 셈이다. 홍동마을은 꿀마켓이 열리자 꿀숍에 지역화폐 10000잎을 똥본위화폐 1000꿀에 판다고 매물로 내놓았다. 참고로 똥본위화폐에서 1000꿀은 비현실적인 액수이다. 게다가 꿀과 현금 태환 불가라는 똥본위화폐의 원칙과도 충돌한다.

#사례2. 핫핑크돌핀스 제주 서귀포 대정읍에 소재한 핫핑크돌핀스는 '제돌이'로 유명한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앞장서는 해양환경단체다. 사이언스월든은 2019년 똥본위화폐 쓸모 실험을 위해 공모를 통해 핫핑크돌핀스를 선정하고 10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의 화산지역 특성상 똥 문제는 해양생태계와 돌고래에 치명적이다. 산재한 제주흑돼지 양돈장에서 쏟아진 똥오줌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맥을 타고 해안에서 솟아오른다. 사람이 늘고 신규 주택이 해안에 늘어서면서 정화조를 넘친 똥물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든다.

조약돌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똥본위화폐가 제주의 똥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랐다. 조 대표는 빈집을 개조해 센터로 삼고 사이언스월든의 지원금으로 생태화장실을 지었다. 밤낮으로 돌고래 관찰하고 보호감시를 하는 틈틈이 제주의 시민단체와

생협, 인근 커피점 등에 발품을 팔며 똥본위화폐 가입을 독려했다. 특히 한살림생협과 똥본위화폐 논의에 공을 들였다. 결국 한살림은 꿀로 거래하기 힘들다고 했다. 센터 주변의 커피점과 음식점은 똥본위화폐의 취지엔 동의했지만, 꿀 손님이 없으니 꿀숍을 열어도 유명무실해졌다. 센터에의 생태화장실에서는 돈에 품기지 못한 똥이 발표되고, 꿀숍에는 10꿀에 올려놓은 핫핑크돌핀스 로고 핀버튼이 돌고래의 안녕을 원하는 꿀 시민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사례3 순천사랑어린학교: 순천에 있는 사랑어린학교도 생태화장실과 연계된 똥본위화폐 실험으로 사이언스월든에서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학교 류홍빈 교사는 다른 교사 1명, 이 학교 졸업생 3명과 함께 학교 구내매점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꿀로 간식을 거래하는 똥본위화폐 실험을 2020년 2학기 기간 실시했다. 앞서 류교사는 학교의 실험은 물론 향후 똥본위화폐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0년4월 학교 인근 마을의 청년 3명과 주민 3명을 조합원으로 한 '마을인생협동조합'도 만들었다.

이 학교에서 이뤄진 꿀숍 운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1000만원의 지원금으로 매점의 간식거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간식을 꿀을 받고 판다. 꿀은 온라인이 아니라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실물 꿀동전을 만들어 사용했고, 나중에는 꿀동전 대신 학생들의 꿀거래를 장부에 손으로 적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 학교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 탓에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매일 10꿀을 제공하고, 친구와 3꿀을 나누고, 하루 지나면 7%를 감액하는 수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전교생이 40명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매점의 물품은 원화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저마다 꿀의 가치를 매겨 지불했다. 여기에는 큰 혼란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가진 것만큼 낸다"는 이 학교의 교육철학이 한몫했다.

매점에서 꿀을 내고 어묵이나 떡볶이 등 간식을 '사'먹는 경험을 한 학생들의 똥본위화폐 사용 소감은 어땠을까? "간식이 생긴다", "공짜다", "게임 같다"는 응답이 많았다. 초등학생답다. 류교사는 학생들에게 똥본위화폐를 이해시키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꿀 매점을 계기로 기본소득 등에 관한 경제교육은 진행했지만, 생태교육은 못했다고 한다. 이 학교에는 생태화장실이 있었는데도, 꿀매점에서 똥과 꿀은 학생들에게 다

가가지 못했다. 오래된 생태화장실은 관리 부실로 이용자가 없었던 탓이다. 꿀매점 운영의 시행착오를 인정한 류홍빈교사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면서도 똥본위화폐에 관해 마을인생협동조합 조합원들조차 “공부가 필요하다”, “(주제가) 너무 무겁다”고 말한다고 했다.

#사례4 청계천 을지로 기술유통 중개소: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바람이 불어닥친 서울 청계천-을지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지키려는 기술유통중개소(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산하)도 똥본위화폐 실험에 동참했다. 이 중개소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분야의 기술 장인 100여명이 똥본위화폐 플랫폼에 각각의 꿀숍을 개설했다. 단 여느 꿀숍과 달리 필요한 특정 기술이 필요할 경우 해당 꿀숍이 아니라 중개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실 청계-을지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다면 집단적인 똥본위화폐 꿀숍 참여는 의외다. 이 지역 전문 기술을 찾는 고객들은 놀랍게도 대학 이공계 연구소들이나 삼성, LG, 현대 등의 연구개발 전문가들이라고 한다. 고도 정밀을 요하는 고가의 부품이나 시제품, 행사용 기념품 등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꿀숍에 참여한 기술 장인이든 고객이든 똥본위화폐의 철학을 충분히 공유하더라도 서로 꿀로 거래할 엄두는 내지 못했을 듯했다. 카메라 부품 등 정밀 가공에 특화된 업체를 운영하는 기술 장인에게 기존 고객이 꿀로 결제하기를 원하면 거래를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은 “생각해보지 않았다”였다. 행사용 기념품 등을 주문 제작하는 다른 업체의 대표도 같은 물음에 어색한 표정을 짓기는 마찬가지였다.

왜 기술 장인들은 꿀숍을 열었을까? 똥과 돈을 함께 품는 똥본위화폐의 취지에 동의했고, 한편으로는 재개발 광풍에 맞서 시민적 연대가 절실했던 차에 똥본위화폐의 꿀 시민에게 지지와 응원을 기대했던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도 있다. 기술 장인들이 밀집한 청계-을지로 대로 안쪽 블록에는 화장실이 절대 부족하다. 이곳에서 똥본위화폐는 어려웠고, 비비변기는 쉽고도 절실했다.

#사례5 ‘100일 100잔의 꿀커피’: 전북 완주 고산면에 있는 ‘서쪽 숲에 네발 요정이 내린 커피’라는 독특한 이름의 마을 카페에서 2021년 3월부터 100일간 독특한 꿀

숍 실험이 전개됐다. 2021년 초 한 독지가가 이 카페 박현정 대표에게 불쑥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한다. “이곳의 커피값으로 계산해 100잔 값인 35만원을 선지급하겠다. 카페는 꿀로만 구입할 수 있는 꿀커피를 메뉴에 올린다. 꿀커피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궁금한 고객을 위해 똥본위화폐 플랫폼 안내문을 계산대 앞에 비치한다. 100일간 꿀커피를 한 잔도 못 팔았더라도 35만원은 카페에 귀속된다. 단 누군가 커피값을 미리 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한다.” 꿀이 뭔지, 똥본위화폐가 뭔지도 몰랐던 박대표가 며칠의 숙고 끝에 독지가에게 승낙의 회신을 보내면서 100일의 꿀커피 실험이 2021년 3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이 사례는 똥본위화폐에 관해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사후 교육도, 꿀 사용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들과 다르다. 박 대표는 실험 수락 전에 똥본위화폐 플랫폼에 접속한 것이 정보의 전부였다고 한다. 시민운동 활동가이기도 한 그는 고산과 카페의 특성을 꿀커피 실험에 활용해보기로 했다. 완주 고산면은 초중고 모두 혁신학교로 바뀌었고, 그 덕에 가족과 함께 이주한 학생들이 최대 12년간 머무는 곳이 됐다. 인구가 줄어드는 여느 농촌과 달리 고산에는 젊은 학부모들이 꾸준히 유입될뿐더러 청년들의 대도시 유출도 적은 편이다. 학부모의 유대와 모임이 남달라, 400여명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도 운영된다.

박 대표의 카페는 학부모들의 사랑방으로 통한다. 박 대표는 학부모 단톡방에 “똥 이야기를 나누면 꿀커피를 드린다”는 카페 이벤트 공지를 올렸다. 똥과 꿀과 커피의 느닷없는 제안이 궁금한 학부모들 카페를 찾았다. 이들은 “생소하지만 흥미롭고 작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평소 생태화장실에 관심이 많았던 한 학부모는 “꿀커피를 통해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무척 고마운 경험”이었다고도 했다.

처음엔 독지가의 요청대로 꿀커피 희망자는 플랫폼에 접속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입자에 한해 플랫폼에서 꿀로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가 번거로운 탓에 학부모 모임 참가자들이 꿀커피를 이용할 경우,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꿀숍에 꿀커피 판매량이 6잔으로 표시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한다. 박 대표는 학부모 모임 참가자들에게 커피만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 모든 메뉴를 꿀로 결제했다. 5000원짜리 메뉴도 있으니 카페 대표가 35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꿀커피에 묻은 셈이다.

기존 학부모 학교나 학년별 소모임이 열릴 경우, 각 모임의 주제를 토론하기에 앞서, 꿀커피를 제공하고 똥과 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마침 조재원교수가 비비변기에 관해 쓴 책 <이것은 변기가 아니다>가 출간되었다. 꿀커피 모임은 이 책을 함께 읽고 토론했다. 똥본위화폐와 꿀의 가치를 계산하며 꿀숍을 이용하는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꿀커피를 통해 똥과 꿀로 다가가는 역순을 밟은 것이다. 박 대표는 꿀커피 100잔의 실험이 내내 즐겁고 신선한 경험이었다면서 "똥본위화폐는 여전히 어렵지만, 똥 문제만큼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사례6 남원 산내 자전거 작업장: 귀촌해 남원 산내면의 대안학교 실상사작은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고둘빼기(한형민, '고들빼기'의 오타라고 한다)는 산내마을에 정착해 평일엔 생업을 하고 주말 하루 '자전거작업장'을 운영하며 자전거 정비와 자전거 문화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지역 일반공모지원사업에서 선정되어 '지리산에서 자전거로 살아보기'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그가 2020년 12월 꿀숍을 열고 자전거 수리를 시작했다. 계기가 궁금했다. "생태뒷간을 통한 순환에 관심이 많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사이언스월든을 알게 됐다"고 했다. 조재원교수는 실상사작은학교에서 과학 특강도 해주었던 터라 순환과 화폐가 연결된 똥본위화폐에 굉장한 매력을 느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고둘빼기는 "똥본위화폐가 우리 마을에 잘 쓰인다면 돈 대신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수리의 '가격'으로 5꿀을 매겼다. 당일 가입한 이용자도 당장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5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꿀 고객은 연간 40~50명 정도라고 한다. 고령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힘들어 꿀 사용을 권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는 "시골에는 품앗이와 나눔의 전통이 남아있어 꿀 거래가 좀 어색하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누는 똥처럼 우리 각자가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면서 산다는 철학이 똥본위화폐처럼 잘 구현된 것은 없다"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 가면서 널리 퍼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3. '고귀하지만 결함 있는 이상

정치철학자 마사 C. 누스바움은 오늘날 세계가 도덕적으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진단 아래 세계시민주의의 의의를 환기하면서 세계시민주의의 전통을 일러 "고귀하지만 결함 있는 이상(理想)"이라고 했다. 누스바움가 보기에, 모든 인간의 평등한 가치를 조건 없이 인정하도록 '정의의 의무'를 강조한 세계시민주의는 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통찰이며, 면면히 이어진 고귀한 전통이다. 하지만 정의의 의무가 국경을 넘지 못하고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물질적 정의에 소극적인 점은 결함이라고 봤다. 누스바움의 요지는 결함을 고쳐 세계시민주의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고 확장하자는 것이다.

누스바움이 말한 "고귀하지만 결함 있는 이상"은 똥본위화폐 실험의 7년에 그대고 적용될 수 있겠다. 똥본위화폐는 똥과 돈과 꿀을 연루해 구린 돈을 달달한 꿀로 전이하는 매력적인 발상으로 왜 다른 돈을 상상해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귀함을 획득했다. 그러나 비록 섣부르긴 하지만, 똥본위화폐의 '이상'이 현실에서 다른 돈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는 점은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매력적인 똥본위화폐의 이상이 우리의 일상으로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지적·실제적 문제에 관한 꼼꼼하고도 찬찬한 탐구가 요구된다.

우선 똥본위화폐는 '좀 더 구려야 하지 않을까'한다. 앞서 똥본위화폐를 똥-돈-꿀의 다른 생각으로 요약한 바 있다. 그런데 똥본위화폐 실험은 2019년을 고비로 '똥-돈'에서 '돈-꿀'로 다른 국면이 전개됐다. 비비변기를 바탕으로 상상된 똥본위화폐가 '변기 없는 꿀'로 바뀐 것이다. 물론 비비변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똥본위화폐가 구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게다가 똥본위화폐 프로젝트의 목적이 변기 바꾸기가 아니라 다른 돈에 있었던 터에 비비변기 시스템이 실현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다. 하지만 '변기 없는 꿀', 즉 똥-돈에서 돈-꿀로의 이행은 생태와 대안 화폐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조차 똥본위화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똥에서 돈을 상상하기도 전에 돈에서 꿀로 똥본위화폐가 추상화된 탓은 아닐까

여겨진다.

똥-돈의 연루가 휘발된 돈-꿀은 사변적이 됐다. 일상에서 돈은 김수영 시인의 말마따나 '바쁨과 한가와 실의와 초조'에까지 들어붙어 있다. 현금의 실재함을 사변적인 돈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법정통화인 원화와 똥본위화폐의 꿀화는 병존한다고 정의됐지만, 사변적이고 어려운 돈으로 실질적 쓸모를 입증하고 확보하기는 '무한도전'에 가까웠다. 이에 사이언스월든은 다양한 융합실험을 설계하고 가동했다. 그럴수록 똥본위화폐는 똥을 품은 돈이어야 빛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비비변기 시스템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고 환경 정의를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다. 멀리 길게 본다면 똥본위화폐의 성패는 다시 똥-돈의 연루를 복원함으로써, 보다 더 '구린 똥'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앞서 살핀 순천사랑어린학교의 구내매점과 고산의 100잔의 꿀커피 사례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 두 곳은 원화로 꿀숍 매물의 비용을 충당하고 꿀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사이언스월든의 1000만원 지원금과 한 독지가의 34만원 커피 선불금이란 꿀로 거래할 수 있는 현금 재원이 됐다. 이 방식을 비비변기와 연계해 응용한다면 똥본위화폐의 쓸모는 보다 구체화되지 모른다. 법정 화폐와 똥본위화폐가 병존하는 것으로 상정된 만큼, 비비변기 시스템에서 생성된 가치로 원화 현금을 재원으로 꿀숍에 공급된 물품과 서비스를 꿀로 거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더 탐구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꿀은 다른 '돈'인가, 아니면 똥본위화폐 공동체의 '여권'에 더 가까운가에 관한 것이다. 어쩌면 이 물음은 최근에 정립된 똥본위화폐의 정체성에 비춰 보자면 답은 예정되어 있다. 앞서 똥본위화폐는 "현금(법정 통화, 원화)이 아니라 돈"이며, 시장에는 원이, 꿀마켓엔 꿀이 돈이라고 정의됐다. 그렇다면 꿀은 여권이면서 돈이라는 답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래도 검토할 지적·실제적 문제는 남는다.

먼저 꿀이 꿀마켓에서 통용되는 돈이라면 다른 돈임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꿀이란 돈은 무엇인가, 과연 돈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아가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유효하고도 필요하다. 똥본위화폐는 원화와 같은 법정 통화에 견주면 대안화폐에 해당하지만, 기존의 대안화폐(노동화폐, 지역화폐, 자유화폐, 시간화폐 등) 범주로

보기에는 똥-돈-꿀이 연루된 대단히 독창적이고 전복적인 '화폐'이기 때문이다. 그간 '똥-돈'의 연루와 '돈-꿀'의 연루 사이에 단층이 감지되는 것은 '똥-꿀'의 이행을 위한 '돈'에 관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성찰과 탐색이 부족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김수영 시인은 돈의 비밀이 돈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밀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지만, 똥본위화폐는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험된 똥본위화폐의 쓸모는 어떠할까. 앞서 본 사례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듯, 꿀숍에 내놓을 수 있는 이른바 매물은 제한적이다. 물품인 경우, 똥본위화폐의 철학에 공감한 꿀숍 지기가 여러 매물을 올린다. 자신에게 사용가치가 없는 쓸 만한 것도 있고, 김밥집이나 커피점과 같은 오프라인의 매장 주인이 하루 물량을 한정해 꿀로 거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물품보다는 서비스가 월등 많다. 자전거 수리, 반려동물 돌봄, 한의 진료, 연극과 음악회 입장, 카풀 등이 그러하다. 꿀숍에 물품 거래가 제한적인 데는 똥본위화폐로 물품의 현금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의 경우 사정은 다소 달라진다. 서비스 거래 가격을 현금으로 계량할 수는 하지만, 그 가격을 꿀숍 지지가 똥본위화폐의 이상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기만 한다면 현금 손실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꿀거래가 지금보다 확산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꿀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장은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꿀마켓 거래에서 꿀의 양(시장 현금의 가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현실의 장터에선 가성비를 따지며 가격에 민감하지만, 꿀 장터에선 똥본위화폐 플랫폼 가입 여부가 관건이지, 몇 꿀에 거래가 이뤄지는가는 부차적이다. 여기서 꿀은 과연 돈인가, 아니면 똥본위화폐의 철학을 공유해 다른 돈 또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의 여권인가란 물음이 나온다. 꿀이 돈이라기보다 꿀 공동체의 여권 내지 주민증이라고 해서 똥본위화폐의 이상이 퇴색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여권에 방점이 있다면 똥본위화폐의 실험과 운용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또한 돈이나 여권으로 재단하기 힘든 문제도 있다. 앞서 산내 자전거 작업장의 사례에서 보았듯 똥본위화폐의 '돈'은 품앗이로 대표되는 비화폐경제와 마찰한다는 점이다. 홍동마을의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어 똥본위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홍동마을에 내려와 농촌살이를 체험하던 한 청년은 농번기의

어느 날 이웃 농민의 일손을 거들게 됐다. 하루 품을 마쳤는데 품값을 주지 않는 농민의 처사를 귀촌 청년은 이해하지 못했다. 2년 뒤 농촌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청년의 급선무는 농토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때 2년 전 품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농민이 그 청년에게 농지를 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홍동마을 활동가는 거래 때마다 돈으로 결제되지 않는 '주기-받기-답례'의 선물경제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품앗이나 선물경제에서 굳이 똥본위화폐의 꿀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화폐가 개입되면 선물경제의 요체인 '답례의 의무'란 고리가 약화 내지 절단될 수 있다. 이는 농촌의 일만도 아니며 도시라고 선물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똥본위화폐에도 선물경제의 속성이 내재한다. 그렇다면 똥본위화폐는 선물경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살피는 것도 과제라 하겠다.

맺음말: '새로운 천사'

똥본위화폐 실험에 참여한 한 활동가를 인터뷰할 때였다. 서로 초면의 어색함이 풀리고 똥과 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다소 엉뚱하다 싶게도 그는 '클레의 천사'를 소환했다. 똥본위화폐에 관한 총평을 묻자 나온 말이다. 발터 벤야민이 자살하기 직전까지 애장했던 파울 클레의 미술작품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가 느닷없이 출현했고, 뒷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벤야민은 변화의 바람에 앞으로 떠밀려가면서도 뒤쪽을 보고 있다며 클레의 천사를 '역사의 천사'라고도 했다. 하지만 현장 활동가인 그의 해석은 직관적이었다. 클레의 천사는 "머리만 커다랗고 다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똥본위화폐가 '새로운 천사'이지만, 그 천사는 다리가 부실하지 않느냐고 했다. 구슬을 꿰어야 보배다고 한다. 창발적이고 고귀한 기획을 누가 어떻게 보배로 만들 것인가에 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도시에서 퇴비를 통한 순환적 삶을 추구하는 생태운동가 안철환은 똥본위화폐 심포지엄에서 똥본위화폐에는 "종교개혁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맞다. 똥-돈-꿀의 연루와 이행을 완수하는 것은 결국 '꿀 시민'일 터이다. 자크 랑시에르는 정치란 몫이 없는 이들이 몫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똥본위화폐는 자본주의에서 몫이 없었던 순환의 똥과 사회적 꿀을 소환해 다른 돈의 몫을 주장한다.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똥본위화폐의 정치라 불러도 좋겠다.

똥본위화폐의 새로운 천사와 랑시에르식 정치는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100잔의 꿀커피' 실험을 했던 카페 대표는 "꿀커피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중매역할"을 하게 될 줄 미처 몰랐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꿀숍 지기 '익은수박'은 손뜨개 모자를 150꿀에 매물로 올렸는데, 꿀숍에 참여한 사연이 흥미롭다. SNS에서 가수 박성훈의 글을 보고 음원을 구입하기 위한 꿀을 얻기 위해 꿀숍을 열었다는 것이다. 가수 박성훈은 '똥본위화폐'를 소재로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의 음원을 100꿀에 꿀숍 매물로 내놨던 참이다. 꿀숍이 다른 꿀숍의 개점으로 이어진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하겠다. 음원에서 손뜨개로 연결된 꿀숍의 순환이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이어지게 될까?

토론문

송 종 운
UNIST

발표문은 똥본위화폐와 관련한 여러 시도와 실험들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보건데, 똥본위화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천적 태도와 관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문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앞으로 더 탐구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꿀은 다른 '돈'인가, 아니면 똥본위화폐 공동체의 '여권'에 더 가까운가에 관한 것이다. 어쩌면 이 물음은 최근에 정립된 똥본위화폐의 정체성에 비춰 보자면 답은 예정되어 있다. 앞서 똥본위화폐는 "현금(법정 통화, 원화)이 아니라 돈"이며, 시장에는 원이, 꿀마켓엔 꿀이 돈이라고 정의됐다. 그렇다면 꿀은 여권이면서 돈이라는 답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래도 검토할 지적·실제적 문제는 남는다"

발표자는 똥본위화폐가 "돈"인가 아니면 "여권"에 가까운 것인가를 향후 탐구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미 돈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 하였거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똥본위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멈추지 않고 있어, 똥본위화폐가 닫힌 개념이나 구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부단히 상호간섭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똥본위화폐의 제안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험은 그 자체로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 하겠다.

경제학 모형은 이미 마련된 개념과 그것에 기초한 실행가능성을 기반으로,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똥본위화폐는 무언가를 '전제'하고 '전개'하기보다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위에 만들어진 것 같다. 화폐를 고정된 실체나 불변의 것으로 보지 않고 대신 하나의 제도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똥본위화폐의 시각과 일견 유사하다.

프랑스의 레귤라시옹 학파, 콩방시옹 학파는 화폐를 제도로 보고 있어 일견 발표문과 유사한 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폐를 제도로 보는 시각은 존 매이너드 케인스의 시각과도 일치한다. 케인스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는 폐지될 수 있다. 그러나 화폐라는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역사적 소용에 따라 이리저리 변화 혹은 진화를 겪다 소용이 다하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화폐라는 것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인간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시도되지 않을 때 제도는 실패한다. 화폐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시도되지 않을 때 실패한다. 따라서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한 똥본위화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 가는 진전을 이룰 수도 혹은 되돌아가는 퇴보를 겪을 수도 있다. 미래는 항상 열려있다.

똥본위화폐, 인간 생활의 어느 부분에 적합한 화폐일까?

발표자는 똥본위화폐의 실험이 "물품보다는 서비스가 월등하다"고 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토론자가 보기에 이는 똥본위화폐가 법정화폐와의 태환'되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똥본위화폐가 추구하는 그 무엇에 이유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물품'은 자본순환의 과정 내에서 인정된 지급결제의 관행을 벗어난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 국가와 시장이 인정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합의된 지급결제수단이외의 것은 지급결제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이미 친분이 있는 개인들 간의 소액결제가 아닌 서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은행간 결제일 경우는 더 그렇다. 이 때문에 똥본위화폐로 물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적거나 예외적인 것이다. 똥본위화폐가 오늘은 사는 사람들에게 지급결제 수단 기능을 하는 화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일반적이지 못할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똥본위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모르고 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균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러나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똥본위화폐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가치 척도나 가격표준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표준을 택하기 보다는 똥본위

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판단과 의사에 따라 상품을 내놓고 거래 상대방에게 택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꿀숍의 거래는 바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의 표준 같은 것은 똥본위화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급결제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즉 똥본위화폐를 통한 거래에서는 자본주의적인 등가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똥본위화폐의 거래에 유독 서비스가 월등한 까닭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해 물품에 비해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잉여노동을 기꺼이 지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물품의 생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윤창출의 법칙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데, 서비스는 공급자가 자신의 잉여노동을 제공하는데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 노동의 개별성(단독성)이 등가의 법칙으로부터 서비스상품의 공급을 자유롭게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꿀을 줄테니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해달라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시간, 체력, 마음의 여유가 있는 연주가가 나서기만 하면 거래는 성사된다. 서비스노동의 개별성이 충족되면 큰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엘가의 '사랑의 인사' 연주가 과연 사회적으로 얼마어치의 가치와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이 거래를 받아들인 연주자에게는 말이다. 이것이 서비스노동 공급이 갖는 개별성의 핵심이다.

반면, 물품의 공급은 복잡하다. 개별성이 아니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만 원짜리 의자에도 무수히 많은 노동이 지출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이 처분하는 사람에게 그냥 줘도 되는 잉여가 아닐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0만 원 짜리 책상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즉 가격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마르크스라면, '물품은 죽은 노동의 산물이지만 서비스노동은 아직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되지 않은 자율적인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

서비스노동은 매우 독특한 성질의 것이다. 인간의 서비스노동에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의외로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물품이야 재료비와 작업비 정도를 계산하면 나오지만 서비스노동은 재료가 사람의 몸과 정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머리속에 든 지식이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가령 모차르트 현악 4중주 제23번, F장조, K.590 (프러시안 4중주 3번) 연주는 얼마를 받아야 적절할까? 18세기 모차르트 시대의 가격과 2021년에 공연을 볼 때 내는 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적절할까? 아니라면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모차르트 현악 4중주 제23번, F장조, K.590 (프러시안 4중주 3번)을 악보대로 정도로 연주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은 2021년이라고 해서 18세기보다 더 들거나 덜 들거나 하지 않는다. 공연장의 임대료나 드레스의 가격은 다르겠지만 말이다. 또 모차르트 현악 4중주 제23번, F장조, K.590 (프러시안 4중주 3번)은 모차르트가 살았던 당시도 지금도 24분이며 총4명이 필요하다. 4중주이기에.

바로 이것이 서비스 노동의 독특한 성격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절대적인 노력(노동 강도)과 (노동)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서비스노동이야 말로 인간의 것이며 죽은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는 몇 안되는 것 중 하나다. 이것이 서비스노동의 소유자의 의지/의사대로 처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물품보다 더 크게 만든다.

서비스노동은 생산적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잉여노동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우리가 재능기부라고 일컫는 유형의 노동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똥본위화폐와 거래 가능한 서비스는 잉여노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선물, 증여, 재능 기부, 나눔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것이 똥본위화폐를 통해 거래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똥본위화폐의 확장은 잉여노동의 거래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는 문제

이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똥본위화폐는 “품앗이로 대표되는 비화폐경제와 마찰한다.” 토론자가 보기에 ‘마찰’ 보다는 ‘경합적’

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홍동마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똥본위화폐는 사람들 간의 "선물경제의 요체인 '답례의 의무'란 고리가 약화 내지 절단" 할 수 있다. 똥본위화폐를 통한 거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경험하여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낯선 친숙함이라 할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똥본위화폐를 통한 관계의 정립이 '답례의 의무'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가 이어지게 만들기에 낯선 것일 뿐이다. 사람들이 똥본위화폐를 통해 낯선 친숙함을 느낀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똥본위화폐는 불현 듯 하다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현재 똥본위화폐는 '잉여를 거래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공유경제'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똥본위화폐는 새로운 부가기치의 창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 꿀숍의 거래는 부가가치 창출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다. 거래가 수요자의 효용을 극대화할지는 모르지만 똥본위화폐를 통한 효용극대화가 또 다른 효용극대화를 낳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과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폐라는 제도는 중단하지 않는 한 부단히 진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섣불리 실패를 예상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근본적인 성찰을 필요로 한다.